

[농림수산식품부-연구보고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2011. 1. 26

김철규(고려대 사회학과)

이해진(한국청년정책연구원)

김기홍(농민신문)

박민수(고려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최종보고서 제출

본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연구용역 과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사)한국사회학회 회장 박재묵

연구진

연구 책임	김 철 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이 해 진	(재)한국청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기 홍	농민신문 부장
	박 민 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연구 보조	백 승 범	(재)한국청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목 차

<요약 및 정책제언>	1
I. 서론	31
1. 연구의 필요성	31
2. 연구목적	33
3. 연구내용과 보고서 구성	34
II.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 동향과 이론	38
1. 귀농 귀촌 현황과 동향	38
2. 귀농 정책	41
3. 이론적 논의	52
III. 연구방법	69
1. 연구개요	69
2. 연구대상	73
3. 설문지 구성	76
4. 조사와 분석	80
IV. 귀농귀촌인 설문조사 결과	85
1. 조사응답자의 특성	85
2. 귀농귀촌 행태와 특성	86
3. 귀농귀촌인의 사회적관계와 가족관계	99
4. 귀농귀촌 성공요인	104
5. 농촌사회발전에 대한 의견	140
6. 귀농정책	149

V.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	152
1. 조사개요	152
2. 마을특성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153
3. 귀농귀촌 성공요인	161
4. 귀농귀촌 실패요인	162
5. 농촌사회발전에 대한 의견	163
6. 귀농정책 평가	167
VI. 결론 및 제언	169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169
1) 귀농귀촌인 조사결과와 시사점	169
2) 원주민 조사결과와 시사점	174
3)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조사결과의 비교	178
4)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180
2. 정책제언	187
참고문헌	196
부록1. 귀농귀촌인조사 설문지	200
부록2. 원주민조사 설문지	212
부록3. 심층면접조사요약	219

<표목차>

<표 1-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 규모	32
<표 2-1> 농촌지역 인가와 농림업 인구의 변화	38
<표 2-2> 90년대 이후 연도별 귀농 현황	39
<표 2-3> 경제위기 직후 취업자 비율의 변화	39
<표 2-4> 연령별 귀농 현황	40
<표 2-5> 연도별, 시도별 귀농 가구 수 분포	41
<표 2-6>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사업	45
<표 2-7> 진안군의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50
<표 2-8> 귀농 경로	53
<표 2-9> 귀농인의 유형	54
<표 2-10> 귀농관련 자치법규의 귀농인 정의	55
<표 2-11> 외생적 개발과 내발적 개발 비교	65
<표 3-1> 연구일정	70
<표 3-2> 전국 귀농귀촌인 가구통계	73
<표 3-3> 진안군 귀농귀촌인 현황 집계표	75
<표 3-4> 진안군 마을 인구현황	76
<표 3-5> 귀농귀촌인 대상 설문지 구조	77
<표 3-6> 원주민대상 설문지 구조	79
<표 4-1> 귀농귀촌인 조사응답자의 특성	85
<표 4-2> 귀농 전 직업	87
<표 4-3> 진안을 귀농지로 선택한 이유	88
<표 4-4> 귀농귀촌 형태	89
<표 4-5> 귀농연도	90
<표 4-6> 귀농기간	91
<표 4-7> 동거가족 수	91
<표 4-8> 동거가족 형태	92
<표 4-9> 귀농 준비기간	92
<표 4-10> 귀농 준비과정 자기평가	93
<표 4-11> 귀농귀촌 동기	94
<표 4-12> 귀농귀촌 동기 유형 분류	95
<표 4-13> 귀농귀촌 유형과 귀농귀촌 형태의 비교	96
<표 4-14> 귀농귀촌 유형별 학력 비교	97
<표 4-15> 귀농귀촌 유형별 연령 차이	97

<표 4-16> 귀농귀촌 유형별 현재 직업형태	98
<표 4-17> 년도별 귀농귀촌 유형 집단의 변화	98
<표 4-18>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사회적 관계	99
<표 4-19> 귀농귀촌인 지역사회와의 관계 요인분석	101
<표 4-20>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101
<표 4-21> 귀농귀촌인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 평가	102
<표 4-22> 귀농귀촌 후 부부관계 변화	102
<표 4-23> 가족의 귀농귀촌 지지도	103
<표 4-24> 마을주민과의 갈등 경험도	103
<표 4-25> 마을주민과의 갈등 경험의 정도	103
<표 4-26> 귀농귀촌 성공도 종합평가	105
<표 4-27> 귀농 실패 이유(1순위)	107
<표 4-28> 향후 귀농귀촌 지속의향	108
<표 4-29> 귀농 후의 인식 변화	108
<표 4-30> 귀농 전 목표와 실제생활 차이 인식	108
<표 4-31> 연령별 귀농성공도 인식 차이	109
<표 4-32> 학력별 귀농성공도 인식 차이	110
<표 4-33> 소득수준별 귀농성공도 인식 차이	110
<표 4-34> 귀농동기별 귀농성공도 인식	111
<표 4-35> 귀농동기별 귀농성공도 인식 차이의 평균비교	111
<표 4-36> 귀농귀촌 준비기간에 따른 귀농성공도 인식 비교	112
<표 4-37> 귀농귀촌형태별 귀농성공도 인식	112
<표 4-38> 귀농기간에 따른 귀농성공도 인식	113
<표 4-39> 현재직업형태별 귀농성공도 인식	113
<표 4-40> 영농규모별 귀농성공도 인식	114
<표 4-41> 지역사회친밀도와 귀농성공도 인식 비교	115
<표 4-42> 지역사회 결속도와 귀농성공도 인식 비교	115
<표 4-43> 지역사회 고립도별 귀농성공도 인식 비교	116
<표 4-44> 갈등경험도의 차이와 귀농성공도 인식	116
<표 4-45> 배우자지지도별 귀농성공도 인식 비교	117
<표 4-46> 가족동거여부와 귀농성공도 인식 비교	117
<표 4-47> 귀농성공도 항목별 평가	118
<표 4-48> 귀농귀촌 성취도 요인분석	118
<표 4-49> 귀농 후 개인 행복 성취도	119

<표 4-50> 인구통계적 요인별 귀농성취도(행복과 만족)	119
<표 4-51> 귀농등기별 개인 행복 성취도 비교	120
<표 4-52> 귀농행태요인별 귀농성취도(행복과 만족) 비교	120
<표 4-53>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관계 요인별 귀농성취도(행복과 만족)	122
<표 4-54> 귀농귀촌 후 경제적 소득 성공도 인식	123
<표 4-55> 경제소득 성공도 vs. 귀농준비 상관관계	123
<표 4-56> 인구통계적 요인 * 귀농성취도(경제적 소득과 안정)	124
<표 4-57> 귀농형태별 경제소득 성공도 인식 교차표	124
<표 4-58> 귀농연도별 경제소득 성공도 인식 교차표	125
<표 4-59> 귀농행태요인 * 귀농성취도(경제적 소득)	126
<표 4-60> 거주면별 경제소득 성공도 인식 교차표	127
<표 4-61> 인구통계적 요인 * 귀농성취도(가족관계와 화합)	128
<표 4-62> 귀농행태요인 * 귀농성취도(가족관계와 화합)	129
<표 4-63> 사회적 관계 * 귀농성취도(가족관계와 화합)	130
<표 4-64> 인구통계적 요인 * 귀농성취도(주민화합)	131
<표 4-65> 귀농행태요인 * 귀농성취도(주민화합)	132
<표 4-66> 사회적 관계 * 귀농성취도(주민화합)	133
<표 4-67> 인구통계적 요인 * 귀농성취도(공동체와 생태적 가치)	134
<표 4-68> 귀농행태요인 * 귀농성취도(공동체와 생태적 가치)	135
<표 4-69> 사회적 관계 * 귀농성취도(공동체와 생태적 가치)	136
<표 4-70> 성공요인 중요도 인식 평균값	137
<표 4-71> 귀농귀촌인의 성공요인 중요도 평가	138
<표 4-72> 귀농성공도와 성공요인 중요도 간의 상관분석	138
<표 4-73> 귀농귀촌의 가치와 신념의 중요도 인식이 귀농성공도에 미치는 영향	139
<표 4-74> 지역사회와의 고립도 평가	139
<표 4-75>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성공요인 인지도의 차이	140
<표 4-76> 귀농귀촌의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 인식	141
<표 4-77> 요인별 농촌발전 기여도 비교	142
<표 4-78> 귀농귀촌의 마을 발전 기여도 인식	143
<표 4-79> 요인별 마을발전 기여도 비교	144
<표 4-80> 귀농귀촌의 영역별 농촌사회발전 기여도 인식	145
<표 4-81> 귀농귀촌인의 신뢰도	146
<표 4-82> 지역사회 신뢰도 평가	146
<표 4-83> 귀농귀촌 성공도와 농촌발전 기여도 관계	147

<표 4-84> 귀농귀촌 성공도와 마을발전 기여도 관계	148
<표 4-85> 귀농성공도에 따른 농촌발전 기여도 인식	148
<표 4-86> 귀농귀촌 지원정책 효용성 평가	149
<표 4-87> 연령별 정부의 귀농정책 평가 비교	149
<표 4-88> 요인별 진안군 귀농정책 평가 비교	150
<표 4-89>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항목별 평가	151
<표 4-90> 정부의 귀농종합대책 효용성 평가	151
<표 5-1> 원주민 조사응답자의 특성	152
<표 5-2> 귀농마을적합도	153
<표 5-3> 마을발전에 필요한 요인 (1순위)	154
<표 5-4> 마을발전에 필요한 요인 (2순위)	154
<표 5-5> 귀농귀촌인의 마을거주 호감도	155
<표 5-6> 귀농귀촌인의 생활태도 만족도	155
<표 5-7> 귀농귀촌인에 대한 평가	156
<표 5-8> 귀농귀촌인들의 사회적 관계 평가	157
<표 5-9> 귀농귀촌인의 마을 참여도 평가	157
<표 5-10> 귀농귀촌인과의 갈등 경험도	158
<표 5-11> 원주민의 귀농귀촌 성공요인 평가	162
<표 5-12> 원주민의 귀농귀촌 실패요인 평가	163
<표 5-13> 귀농귀촌인의 마을발전 기여도	163
<표 5-14>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발전 기여도(항목별)	164
<표 5-15> 귀농귀촌인의 부정적 영향	166
<표 5-16> 마을주민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평가	167

<그림목차>

<그림 1-1> 연도별 귀농·귀촌인 변화 추이	31
<그림 2-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사업	45
<그림 2-2> 타 기관 귀농 귀촌 관련 정책 사업	46
<그림 2-3> 진안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	49
<그림 3-1> 연구흐름도	71
<그림 3-2> 조사연구 분석의 주요 개념도	84
<그림 4-1> 귀농귀촌 이전 거주지역	87
<그림 4-2> 귀농귀촌 형태 (I/U/J턴형)	89
<그림 4-3> 조사응답자의 귀농귀촌 연도 추이	90
<그림 4-4> 귀농 준비 기간	93
<그림 4-5> 귀농귀촌 유형별 귀농귀촌의 연도별 추이	98
<그림 4-6> 마을주민과의 갈등경험 정도	104
<그림 4-7> 귀농귀촌 성공요인 분석 변수들	105
<그림 4-8> 귀농귀촌 정착과정의 어려움(1순위)	106
<그림 5-1> 귀농귀촌인과의 갈등 경험도	158
<그림 5-2> 귀농귀촌인과의 갈등정도 평가	159
<그림 5-3> 갈등발생 요인	159
<그림 5-4> 갈등 대응 양식	160
<그림 5-5> 갈등해결 주체	160
<그림 5-6> 마을 발전에 필요한 귀농귀촌인 선호도	165
<그림 5-7> 진안군 귀농정책의 형평성	168
<그림 5-8> 귀농귀촌 성공도 요인과 농촌발전	173

〈요약 및 정책제언〉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귀농·귀촌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4,000명 이상이 귀농했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귀농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 귀농·귀촌은 1955~1963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 베이비 붐 세대는 대략 7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 세대가 2010년부터 본격 은퇴를 맞으면서 귀농·귀촌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규 귀농·귀촌인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회정책이다.
- 귀농·귀촌은 귀농·귀촌인을 수용하는 농촌사회의 입장에서 대단히 큰 변화이다. 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농촌의 작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농촌 지역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새로운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가진 비교적 젊은 도시민이 유입되면, 지역사회는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화 인프라의 발전, 농촌사회 조직의 부흥 등을 예상할 수 있다.
- 정부는 귀농·귀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을 펼쳐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종합대책」을 시행하여 본격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지자체 역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 이주를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귀농·귀촌이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개인적·사회적·정책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연구는 미흡했다.

- 기존 정책과 연구들이 주로 귀농인들의 영농정착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채택했다고 한다면, 이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의 관계 속에서 귀농·귀촌의 성공의 요인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 귀농·귀촌인들이 어떻게 하면 농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2. 연구목적

- 성공적인 귀농·귀촌이란 무엇인지를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강조되었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귀농·귀촌인, 원주민, 그리고 그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다.
-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귀농·귀촌인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어려움에 처한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귀농·귀촌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 진안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귀농·귀촌 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과 재생산에 필요한 사회적·정책적 과제를 규명한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귀농·귀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농촌지역과 주민, 귀농·귀촌인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한다.

3.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1단계 : 문헌연구
 - 주로 국내외의 귀농·귀촌 연구동향과 귀농·귀촌 관련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단위에서 귀농·귀촌인들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문헌자료와 2차 통계자료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 이를 위해 전국적인 귀농귀촌동향을 파악한 뒤 사례연구 대상지역으로 전북 진안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집중적인 연구를 하게 됐다.

○ 2단계 : 조사연구

- 여러 차례의 예비조사를 통해 진안군의 귀농귀촌실태를 파악하고, 귀농귀촌인·군청담당자·뿌리협회·마을위원장 등을 면담해 조사 설계에 착수했다.
- 아울러 이 단계에서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려면 귀농귀촌인 당사자 뿐 아니라 마을 원주민에 대한 조사가 병행돼야 제대로 된 귀농귀촌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별도의 설문지 구성이 필요함도 알게 됐다.

○ 3단계 : 본 조사

<귀농귀촌인 조사>

- 본 조사는 우선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방법으로 통계적 조사를 했다. 11개 읍면단위로 조사원을 선발, 사전조사를 거쳐 귀농귀촌인을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취합했다. 그 결과 전체 591가구 중 357가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채택했다.

<원주민 조사>

-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진안군청 행정체계의 도움을 통해 11개 읍면 296개 마을을 대상으로 1,500여명에게 설문지를 배포, 이를 추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모두 467명의 샘플을 확보했다. 마을별 이장·부녀회장·노인회장·새마을지도자·개발위원장이 포함되도록 조사를 실시하여 마을주민과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질적 조사>

- 통계적 조사를 통해 파악이 안 되거나 보완을 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적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질적조사는 문헌연구, 참여관찰, 심층면접, FGI(표적집단면접법)를 통해 지역 실정에 대해 잘 아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마을위원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귀농귀촌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병행했다.

○ 4단계 : 통계분석·질적분석

-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PASW SPSS 18을 통해 진행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인적특성, 귀농동기 등 행태요인, 사회적관계, 가족관계 등에 대해 빈도·평균·표준편차를 파악하고 교차분석·상관분석·요인분석·분산분석 등을 거쳤다. 아울러 이러한 변수가 귀농귀촌성공과 농촌사회발전, 귀농정책에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귀농동기 유형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인적특성, 귀농귀촌인 평가, 갈등양상, 성공적인 귀농귀촌방안, 농촌사회발전방안, 원주민이 원하는 정책 등에 대한 입장도 파악했다.
- 아울러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에 대한 조사결과 중 문항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평균 등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의 원인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FGI(표적집단면접법)을 통해 확보한 심층면접 자료를 정리한 뒤 유형별로 재분류해 통계적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 5단계 : 종합 분석 및 정책적 합의 도출

- 마지막 단계로 이론적 논의를 논 연구에 맞게 재정립하고 통계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귀농귀촌의 다양한 양상을 요약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사항을 요약·정리하고 이를 통해 정책 제언까지 연구를 진행했다.

II. 귀농귀촌 선행연구

1. 귀농귀촌 현황과 동향

- 1990년대 이후 진행된 귀농인구의 흐름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귀농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98년과 99년에 귀농자가 월등히 늘었다. 이후 2002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2009년에 다시 대략 2배 가 늘었다. 98년과 99년, 09년에 귀농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경제 위기'로 실업이 증가하고 여기에 대응하여 농업이 갖는 고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증가는 그 이전 농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귀농운동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전제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 귀농자의 연령분포는 30대, 40대, 50대 귀농자가 가장 많다.
- 시도별 귀농자 분포이다. 2009년 경북, 전북, 전남, 경남이 가장 많은 인력이 들어온 지역이다. 최근 5년간 경북, 전북, 전남, 경남 등이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귀농귀촌자가 더 많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과 거리가 떨어져 토지 가격이 싼 것과 지자체가 귀농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한 자체 정책을 더 잘 실행했기 때문이다.

2. 귀농정책

- 중앙 정부는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세웠다. 2009년 종합 대책이 이전의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지원정책보다 진일보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근원적으로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왜 농촌지역에서 귀농·귀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관점'의 문제이다. '정부는 왜 귀농·귀촌 문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가'라는 관점이 아니라 '귀농·귀촌 정책 사업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진안의 귀농귀촌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진안군의 전체 농촌 정책 발전 가운데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해 있다. 둘째, 진안은 농사를 전문으로 지으러 오는 사람보다 다른 일을 하러 오는 귀촌자를 더 우대한다. 셋째, 귀농귀촌 정책을 원주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는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

3. 이론적 논의

1) 귀농, 귀촌 정의

- '귀농', '귀촌'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 '귀농'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입안하는 문제, 귀농과 관련한 농촌 발전을 전망

하는 문제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 첫째, '귀농'의 의미를 '직업'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논의들이 있다. 둘째, 공간을 중심으로 귀농인을 정의한 경우이다. 셋째, 직업으로 농사짓는 것을 전제한 이후 이 공간을 세분화하여 U턴 귀농자, J턴 귀농자, I턴 귀농자로 유형화했다. 넷째, 귀농을 생태적 가치의 측면에서 다루는 논의가 있다.
- 지자체들은 자치법규에서 귀농인을 규정함에 있어 공통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농(農)의 의미를 주소득이 농업과 연결된 직업적·산업적 의미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농생활' 전반과 지역민들이 구성하는 농촌사회의 다양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귀농과 귀촌을 정의하는데, 이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결국 '관점'이 중요하다. 이 관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① 귀농귀촌을 도시민의 실업 대책을 위한 도구적 측면이 있고, ② 귀농귀촌을 사회문제 해결('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③ 귀농귀촌을 대안적 관점으로 조망하며 자립 가능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에 종사할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얻고, '농'의 가치를 현재의 생태·경제·문화위기를 돌파하는 하나의 대안적 동력으로 보는 관점이다.
- 본 연구는 세 번째 관점에서 귀농귀촌을 정의하려고 한다. 일차적으로 귀농과 귀촌은 농촌으로 돌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농촌적·농민적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무엇보다 농촌지역사회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공통 지반 아래에서 귀농과 귀촌을 구분한다.

2) 선행연구

- 귀농귀촌 관련 연구 동향은 이론적 논의가 부족하고, 귀농인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축소하고 정책적 제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귀농귀촌이 어떤 관점 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불분명하기에 생겨나는 현상이며 귀농귀촌을 또 다시 도시민들의 실업해소를 위한 도구나 농업 인력 충원이라는 좁은 시야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과 함께 어떻게 '귀농귀촌의 성공'을 이끌 수 있으며, 이 성공이 농촌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시작한다. 즉 지금까지 '성공적인 귀농귀촌'과 '농촌사회 발전'은 분리되어 진행되었음을 지적하고, 각각의 논의가 통합되고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귀농 관련 국내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귀농에 관한 연구는 귀농 실태와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서규선·변재면, 1997; 박영일, 1998; 김동근, 1998; 김형용, 1998; 나장백, 1998; 구본석, 1999; 김주현, 1999; 정진웅 외, 2000). 또한 그리고 귀농자들간의 '차이'에 주목해, 그 차이가 곧 귀농 후 적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임혜영, 1999; 박공주, 2005; 강대구, 2006·2007). 이후에도 지자체의 정책과 그 정책 방향이 어떤 관점으로 진행되어야지 논의하는 연구가 있다(장동현, 2009; 김정섭, 2009). 또한 귀농귀촌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유지라는 큰 틀에서 이야기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이민수 외, 2009).
- 진안군 귀농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진양명숙(2009)이 대표적인데, 이 연구는 진안으로 이주한 20여명의 사람을 사례로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김정원 외(2008)는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과 귀농귀촌인 역량 DB구축 연구용역』에서 진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조사하고 그 의미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
- 농촌 발전에 대한 이론으로 크게 외생적 개발 전략과 내발적 발전전략이 있다. 농촌사회를 삶터, 일터, 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사회를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박진도, 2010: 172).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국가와 외부 자본이 진행하는 과거의 '하향식 접근방법'은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정책실행 과정에 연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지역마다 특정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김정섭, 2009: 105).
- 신내생적 모델은 내생적 개발이 가지는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외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내생적 모델

을 바탕으로 외부의 자원과 어떻게 외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원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 내생적 혹은 신내생적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이다. 김정섭(2009)은 상향식 모델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창과 순창의 사례를 통해 경험적 연구를 시도했다. 이 측면에서 귀농귀촌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역의 자원과 전통적 문화를 연결하여 내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농촌의 발전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자원이 이들에게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측면에서 귀농귀촌을 연구할 때, 농업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에서 이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며 본 연구의 관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귀농귀촌의 성공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 개인의 만족과 행복, 가족관계, 지역주민과의 관계, 농촌사회의 발전 등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설명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가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귀농인의 시각으로만 조사했다면,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발전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귀농귀촌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셋째, 귀농귀촌인을 그 동기에 따라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으로 유형화했다. 기존의 논의가 귀농동기를 나열한 것에 그쳤다면 귀농동기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들이 각각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이룰 수 있는지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귀농귀촌 자체만을 논의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귀농귀촌을 분석하고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집단이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에 동화되고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넷째, 진안을 구체적인 사례로 선택했다. 귀농 1번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선진적인 귀농시스템을 갖춘 사례를 바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을 사례로 선택한 것은 특수한 지자체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며 오히려 귀농귀촌 일반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귀농귀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 전략에서 볼 때 귀농귀촌인은 신내생모델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특정 분야’에서 지역주민들보다 높은 역량이 있다. 또한 외부의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 ‘외부에서 온 내부인’으로 지역의 발전 가능한 잠재력을 찾아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와 연결하

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

Ⅲ. 귀농·귀촌인 설문조사 결과

1. 귀농귀촌인의 특성과 유형

- 진안군 귀농귀촌인의 이전 직업은 사무/서비스/기술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31.8%). 귀농귀촌 이전 거주지역으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였던 사람들이 38.8%(138명)로 가장 많았다. 조사응답자의 92%가 진안이 최초 귀농지라고 응답했으며, 진안군을 귀농귀촌지로 선택한 이유로는 고향이나 친척이 있는 연고지란 점과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 귀농귀촌 경로를 기준으로 파악한 유형으로 분류하면, 조사 응답자 가운데 U턴형이 41.1%, J턴형이 15.5%, I턴형이 43.4였다. I턴형 귀농귀촌인이 가장 많다는 점과 U턴형 비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진안군 귀농귀촌인들의 가족과의 동거현황은 혼자 살고 있는 귀농귀촌인이 전체의 19.3%였고,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45.9%였다.
- 귀농귀촌을 결정한 이후 귀농귀촌을 준비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조사자의 39.1%가 준비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3년 이상 준비한 귀농인은 61명으로서 전체의 1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응답자를 기준으로 진안군 귀농귀촌인의 평균 귀농준비 기간은 25.3개월, 즉 1년가량이다.
- 귀농귀촌 준비과정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정착기반이 되는 자금이나 토지를 준비하는데 소홀하였다고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동기와 행태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의 유형을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귀농귀촌 유형별로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첫째, '경제생계형'은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귀농귀촌한 집단으로 가업을 이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관련 사업 및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설문항에서 집안의 영농승계,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위해, 농촌이 향후 투자가치가 높아서, 도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에 경제생계형으로 유형화시켜 재분류하였다.
- 둘째, '대안가치추구형'은 경제적 목적과 개인적인 효용을 넘어서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과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이들은 귀농귀촌의 동기와 생활방식에서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며, 나아가 농촌공동체의 의의와 자연생태계의 보존을 중시하는 귀농귀촌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농(農)의 가치를 실현하고 농촌의 자연 생태적 삶 속에서 마을 발전과 자신의 귀농귀촌의 삶을 연결짓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을 갖는 귀농귀촌동기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문항에서 생태·공동체·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서, 농사일이 좋아서, 도시적 삶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하고자,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안가치추구형'에 포함시켰다.
- 마지막으로 '개인생활효용형'은 귀농귀촌의 동기와 귀농귀촌한 이후의 삶의 목적이 주로 자신과 가족 개인의 생활상의 편의나 효용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건강, 여가, 가족과 같이 생활 속의 개인적 효용을 위해서 귀농귀촌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의 아토피 치유를 위해 한시적인 기간 동안 농촌마을에 내려와 있는 경우나, 인생 휴가형이라 부르는 것처럼 노후의 삶을 농촌에서의 여가활동을 통해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설문항에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 때문에,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가족 친지와 가깝게 살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귀농귀촌인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 귀농귀촌 동기유형을 이주패턴별 유형(U턴, J턴, I턴형)과 교차 비교한 결과, 대안가치추구형은 I턴형이 가장 많았으며(57.5%), 경제생계형(63.4%)과 개인생활효용형(51.4%)은 U턴형이 많았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공동체적 가치를 찾아 귀농귀촌한 대안가치추구형은 주로 대도시에서 태어나 농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경제적 목적이나 생활상의 효용을 위해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로 돌아온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귀농귀촌 동기 유형별로 비교할 때,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들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생활효용형은 은퇴 후 여가생활을 귀농귀촌의 동기로 포함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다. 경제생계형은 전업농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53.4%). 개인생활효용형도 전업농이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30.5%). 대안가치추구형은 다른 동기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2종겸업(농업외소득이 많음)이나 비농업직 종사자가 많았다.
- 귀농귀촌 시기별로 귀농귀촌 유형의 변화 추세도 나타났다. 최근에 들어 경제생계형 귀농귀촌인은 줄고, 개인생활효용형과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이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2002년 이후 경제생계형이 줄고 대안가치추구형이 증가했다. 본 연구 역시 다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2.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

- 진안군의 귀농귀촌인들은 귀농귀촌 성공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었다. 실패했다는 응답률(9.9%)보다 성공적이라는 응답률(36.4%)이 더 많았다.
- 귀농귀촌인의 특성을 구분하여 집단별로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 평가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관계 요인들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와 마을주민과의 친밀도, 결속도, 고립도에 따라 성공도 인식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서, 귀농귀촌 이후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주민, 지도자, 공무원, 귀농인)과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마을과 지역사회에 소속감과 융화도가 높을수록, 고립도가 낮을수록 귀농귀촌에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친밀도와, 지역사회 공동체로의 결속도와 같은 사회적 관계 요인이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 가족관계 요인 중에서는 특히 배우자가 귀농귀촌 생활을 지지할수록 귀농귀촌의 성공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에,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연령, 학력, 소득)과 귀농귀촌 행태 요인들(귀농 기간, 귀농 유형, 직업, 경작규모)은 귀농귀촌의 성공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귀농귀촌 후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성공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적 유의도 범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도 성공적 정착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 집단이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을 성공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한편, 귀농귀촌 동기를 크게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으로 구분했을 때, 귀농귀촌 동기에 따라 성공도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 집단이 경제생계형과 개인효용형 귀농귀촌인들보다 자신들의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기간에 따라서도 자신들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성공도 평가가 달라졌다.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이유로 사전준비 부족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던 점과 관련시켜 볼 때,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에 귀농귀촌 이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 귀농귀촌 성공도를 종속변인으로 삼아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추출한 결과, 지역사회, 가족관계, 귀농동기, 귀농준비 변수들이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들이 밝혀졌다.
- 종합하면, 충분한 귀농준비 기간을 갖고, 지역사회에 융화되려고 노력하면서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배우자의 지지를 얻고, 농촌사회가 갖는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귀농귀촌인일수록 자신들의 귀농귀촌 생활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가족관계, 귀농귀촌의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 귀농귀촌 생활의 사전준비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마을) 발전 기여도 인식

- 귀농귀촌인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귀농귀촌이 농촌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보통이다'라는 응답을 포함하면 88.1%).
-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차이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력, 귀농동기, 귀농후 직업, 배우자의 지지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이 높은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이며,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후 직업형태가 비농업인이나 겸업농, 이른바 귀촌인들에게서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배우자의 지지를 받는 사람과 귀농귀촌 후 비농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귀농귀촌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마을 일과 주민들과 고립적이지 않고, 친밀도와 결속감이 높은 귀농귀촌인일수록 자신들이 마을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 귀농귀촌 성공도와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와의 관계

-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과 농촌사회 및 마을발전 기여도 인식은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 귀농귀촌에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높다는 점을 통계적 검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이러한 발견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논지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을 높일수록 이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과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귀농귀촌인들을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과 사회적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과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된다.

5.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수요와 평가

- 전반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은 지자체와 정부의 귀농지원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평가한 결과는 긍정적인 응답(16.4%)보다 부정적인 응답(56.1%)이 훨씬 많았다.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평가는 유일하게 연령별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으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긍정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젊은 층보다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귀농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은 점이 시사적이다.
-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 효용성 평가에서는 귀농귀촌 동기별 유형 분류에 따른 개인생활효용형 집단, 즉 건강이나 교육 등을 목적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정책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사회 친밀도가 높은 귀농귀촌인 집단에서 지자체 정책에 대한 효용성을 긍정하는 편이 많았다. 진안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평가하도록 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효용도가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귀농귀촌 행사와 홍보활동에 대한 효용도 평가가 높았다.
- 정부의 귀농종합대책이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귀농정책 자금지원이나 용자 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IV. 원주민 조사 결과

1.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 진안군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들어와 거주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응답자의 88%가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에서 함께 사는 것에 찬성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귀농귀촌인을 마을주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의견(53%)이 부정적인 의견(15.4%)보다 많았으며,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주민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융화되려는 노력한다는 평가(41.3%)와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는 긍정적 평가(41.6%)가 반대보다 높았다. 반면에, 귀농귀촌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항목들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우월의식을 지적하는 비율이 많았다. 조사응답자의 약 29%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이 우월감을 갖고 행동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 마을주민들은 귀농귀촌인들이 마을 일에 참여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귀농귀촌인들이 마을회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33.4%)이 긍정적인 응답(21.5%)보다 더 높게 나온 점이 주목된다.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과의 갈등이 거의 없거나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응답했다.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갈등발생 요인으로서는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귀농귀촌 이후에도 도시에서의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간의 갈등을 줄이고 공생하는 관계를 위해서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촌사회의 고유한 생활방식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과 귀농귀촌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2. 귀농귀촌 성공요인에 대한 평가

-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의 성공요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물질적 지원보다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다.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이 정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이해와 교육, 그리고 마을주민과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 덧붙여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전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47.5%). 귀농귀촌하기 이전에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와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가족의 지지와 농촌생활에 대한 신념 등의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귀농귀촌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과 친화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3. 농촌사회 발전에 대한 의견

-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이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편이었다. 원주민 응답자의 43.6%가 귀농귀촌인이 마을 발전에 기여한다고 응답했고, 18.1%는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세부 항목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에서는 농촌인구가 늘어나 마을 유지에 기여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귀농귀촌인이 영농후계 인력을 확보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농교류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귀농귀촌인이 농촌마을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도는 평균적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원주민들은 대부분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세부 항목별 평가에서 경제적 기여와 삶의 질 증진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기여도에 비해 미세하지만 낮은 평가를 받았다. 농산물 가공 유통을 통한 농업 부가가치 증대의 기여도 항목을 보면, 기여한다는 의견(29.3%)이 기여하는 게 없다는 의견(24.2%)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
- 반면에, 마을 발전에 필요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수요는 젊은 전업농이나 젊은 농촌창업 경영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이 농촌의 문화, 복지, 삶의 질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였고, 교육, 문화, 복지 및 농촌사회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에 대한 수요는 낮았다. 귀농귀촌인들이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서비스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귀농귀촌 정책 평가

- 원주민들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지원단체의 귀농귀촌 정책지원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원주민 지원과 비교한 형평성 인식을 확인하였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1.9%), 귀농귀촌인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33.6%, 그리고 응답자의 24.6%가 귀농귀촌인에게만 정책지원이 편중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5. 마을 리더와 주민의 인식의 차이

- 원주민을 마을리더 그룹(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과 주민으로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계, 성공적 정착요인과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귀농귀촌인에 대한 평가에서 마을 내 리더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도자 집단이 일반주민에 비해 귀농귀촌인을 마을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높았다. 마을리더들이 귀농귀촌인을 더 포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반면에, 귀농귀촌인이 마을회의나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 마을리더보다 귀농귀촌인들의 참여도를 더 높게 인정하였다.
- 갈등발생 요인에 대한 마을리더들과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마을리더들은 농촌사회 내부의 기득권을 둘러싼 갈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마을주민들은 영농방식과 같이 일상적인 갈등에 주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을리더들은 귀농귀촌인과 심리적 갈등이나 말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에서 일반주민들보다 갈등 경험도가 더 많았다.
- 마을 지도자들은 마을 주민들에 비해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세부 항목별로 물은 질문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소통 및 합리적 의사결정, 혁신적 리더십의 형성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주민들보다 마을 지도자들이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마을 리더보다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미치는 부정적 영

항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귀농귀촌인의 부정적 효과를 평가하는 모든 항목에서(경제적 피해, 마을 공동체의 분쟁, 자존심에 상처, 공동체적 성격의 약화와 불신, 전반적인 나쁜 영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마을리더와 주민들간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고, 주민들이 리더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원주민들 가운데 마을 리더들은 귀농귀촌인이 마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마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마을 내의 기득권과 리더십에 도전을 받는 입장에서 귀농귀촌인과 갈등의 발생 소지를 안고 있다. 마을 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마을 주민들은 보다 일상적인 생활방식(영농)에서 귀농귀촌인과 마찰을 빚으며 귀농귀촌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주시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인과 마을주민들 모두 양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로 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처럼, 귀농귀촌인이 마을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착에 성공하고 농촌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마을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V.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인식의 비교

1.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 귀농귀촌인들은 자신들이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융화되려고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72.8%),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41.3%).
- 귀농귀촌인 조사와 원주민 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들과 어느 정도로 친화력을 갖고 지낸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동일 항목을 비교해보니, 주민, 지도자, 귀농귀촌인과의 친밀도에서 마을 원주민들의 평가가 귀농귀촌인의 자기평가보다 낮았다.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주민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긍정한 비율이 62.2%였던 것에 반해서, 원주민들이 긍정율은 36%로 절반에 그치고 있다.
- 귀농귀촌의 마을 일 참여도에 대한 평가도 귀농귀촌인 당사자와 마을 주민들

의 평가가 엇갈렸다. 귀농귀촌인 조사 응답자의 62.1%가 자신들이 마을 회의나 행사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원주민들은 22.5%만이 참여도를 긍정하고 오히려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33.4%).

- 종합하면,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와 마을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귀농귀촌인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원주민들은 그러한 노력이 훨씬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 당사자들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자체와 민간부문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관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양자가 모두 갈등이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원주민들이 갈등의 정도를 비교적 낮게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모두 마을 지도자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의 차이

- 귀농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인식에서, 귀농귀촌인은 가족관계(배우자의 지지)의 중요도를 가장 중시했고, 원주민들은 지역주민과의 관계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했다. 평균값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귀농귀촌인들에 비해 원주민들이 사전 농촌사회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나 경제적 소득보다 마을주민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원주민들이 귀농귀촌인보다 사전 준비부족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귀농귀촌인들의 경우 응답자의 35.6%가 준비부족을 실패요인으로 꼽고, 자금부족(18.4%)이나 소득원확보문제(18.7%) 등의 경제적 이유를 꼽은 반면에, 원주민들은 응답자의 47.5%가 사전 준비부족을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주민과의 불화로 인해 귀농귀촌에 실패한다고 보는 견해도 원주민(9.1%)이 귀농귀촌인보다(7.5%) 조금 많았다.

3.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 인식의 차이

- 귀농귀촌인이 마을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귀농귀촌인 조사에서는 47.7%가 긍정하고, 원주민 조사에서는 43.6%가 긍정했다.
- 세부 영역별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집단 모두 긍정적이 평가가 많았다. 두 집단 공통적으로 귀농귀촌인들로 인해 농촌인구가 늘고 마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마을공동체의 회복, 영농후계 인력의 확보, 도농교류의 확대 항목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농가공유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농촌 문화, 복지, 삶의 질 증진,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에 못 미칠 정도로 원주민들의 평가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비교할 때, 귀농귀촌인 당사자들은 정책지원 효용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던 것에 비해서 원주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 이 연구는 성공적인 귀농·귀촌이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귀농귀촌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였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귀농귀촌을 위기에 처한 농촌 사회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했다.
- 이러한 작업은 귀농귀촌의 선도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진안은 600가구에 가까운 귀농귀촌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경험적 연구는 앞으로 전국 차원이나 다른 지자체 차원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촌인의 특성과 유형화

- 귀농귀촌인은 동질적이고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귀농귀촌의 동기와 목표 및 생활방식에서 다양한 욕구와 가치지향을 갖는 이질적이고 다층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밝혔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귀농귀촌해서 농촌마을에서 살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이 서로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삶의 형태와 지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이라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화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및 원주민간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특히, 대안가치추구형은 본 연구에서 그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고 이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던 유형이다. 이들은 귀농귀촌 생활과 성공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농촌사회 및 마을발전 기여도에서 다른 집단과 차별적인 특징을 보여 주었다.
- 본 연구는 이처럼 귀농귀촌인의 특성과 유형화를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향후 귀농귀촌인 유형별 연구와 각각의 유형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2)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와 정책의 초점이 귀농귀촌인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영농인력 및 기술의 지원이나 농촌인구의 양적 증대에만 주목하였던 것에 반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와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가 귀농귀촌의 성

공적 정착에 중요한 요인임을 부각시켰다.

- 우리는 먼저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주민과의 관계를 친밀도, 결속도, 고립도로 구분하였고 지역사회와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부부관계가 성공적인 귀농귀촌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기반조차 사회적 관계가 안정적일 때 가능하다. 진안으로 귀농한 후 다시 도시로 돌아간 사람을 추적한 결과 작목반에 소속되는 것이 정부의 지원과 이웃 농민들의 도움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법임을 말해준다.
- 무엇보다 이 성공의 요인은 귀농동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지만 대안가치추구형이나 개인효용형에게는 그 중요성이 경제생계형보다 적다.

(3) 귀농귀촌과 농촌사회 및 마을발전과의 관계

- 성공적인 귀농귀촌이 개인적인 차원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일관되게 서술하였다.
- 이 관점 하에서 귀농귀촌인을 정의했다. 도구적 관점, 사회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귀농귀촌인을 보지 않고 대안적 관점으로 귀농귀촌인을 서술했다. 이는 자립 가능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에 종사할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얻고, '농'의 가치를 현재의 생태·경제·문화위기를 돌파하는 하나의 대안적 동력으로 보는 관점이다.
- 또한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귀농귀촌연구와 농촌발전 논의가 각각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두 논의가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신내생적 발전 모델 아래에서 농촌 사회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네트워크

를 형성하기 위해, '외부에서 온 내부인'인 귀농귀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밝혔다.

-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경험적으로도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과 농촌사회 및 마을발전 기여도 인식은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논지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귀농귀촌인들을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과 사회적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귀농귀촌인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비교

- 귀농귀촌인 연구에서 본 연구는 최초로 원주민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주민 조사 분석을 통해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인식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상호이해를 통해서 좁혀 나가고, 갈등의 발생을 지역사회 내에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5) 귀농귀촌인 유형과 성공도 및 농촌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

- 귀농귀촌의 유형에 따라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역할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촌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며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생활공간이다. 그러기에 농촌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과 전문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먼저, 경제생계형 귀농귀촌자들에게는 농촌사회의 자립적 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활동에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 로컬푸드나 유기농 농산물을 가공, 유통하는 소규모 창업을 지원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지역만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의 대안 먹거리 사업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만들고 나아가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경제적 협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개인생활효용형은 이들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

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은퇴형 귀농귀촌인의 경우,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인적·사회자본이 농촌사회의 발전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대안가치추구형은 농촌발전을 위한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지향 가치를 근거로 농촌을 현대사회의 생태·경제·문화위기를 해소하는 대안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집단이다. 생명농업을 지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촌 사회 내 의료, 복지, 교육, 생태 등 그동안 농촌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그룹이다.

2. 정책제언

1) 농촌사회 발전 방안으로서의 귀농귀촌 정책의 적극적 추진

- 연구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모두 귀농귀촌인이 농촌이나 마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두 집단 공통적으로 귀농귀촌인들로 인해 농촌인구가 늘어 마을을 유지할 수 있고, 공동체 회복, 영농후계 인력 확보, 도농교류의 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귀농귀촌은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사회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귀농귀촌의 이런 의미를 고려할 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촌의 부활 방안으로서 귀농귀촌에 대한 포괄적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 지역민간단체,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간 협치기구 필요

- 진안이 귀농1번지로 기반을 다지고,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헌신적인 공무원, 귀농인 민간기구인 뿌리협회, 그리고 마을지도자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협조를 제도화하고, 귀농·귀촌 후 성공적인 안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치기구가 필요하다.
-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지자체 단위에서 협치기구를 만들고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컨대,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별적이고 선도적인 귀농귀촌 지원사업들을 정리하고 연구하여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보급하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유형화하고 모델화함으로써 비교와 벤치마킹의 준거로 삼을 수 있다.

3) '성공적 귀농·귀촌'의 다차원성에 주목하는 종합적인 정책

- 성공적인 귀농·귀촌이란 단순히 소득이나 경제적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 가족 관계, 주민화합, 공동체 가치, 귀농 전 경험 활용 등의 다차원적인 조합으로 귀농이 성공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관계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학적 요인의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걸맞는 사회 정책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 귀농귀촌의 정책패러다임을 단순히 농촌인구의 증대나 영농후계 인력의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농촌사회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인위적 마을조성보다 기존 마을을 적절히 개발하고 같은 공간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4) 공적 귀농·귀촌 초기 정착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

- 농업 외의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등을 마련하여 특히 귀농귀촌 초기의 안착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예컨대 산림관리원, 마을간사 등). 특히 '경제생계형'의 경우에 귀농귀촌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경제적 소득 문제로 인식하고, 귀농귀촌의 성공도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귀농귀촌인에게 적용하는 정책적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재생산이 안되는 소모적 일자리보다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사회적 기업

을 통한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단체, 기관, 기업체 등에 귀농 귀촌인을 고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안도 필요하다.

-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들은 대부분 I턴(대도시에서 귀농귀촌한 집단) 유형으로 도시에서 전문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들이 귀농귀촌한 지역 농촌 마을에서 자신들의 경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역사회 화합 프로그램의 개발

- 진안의 마을만들기 축제와 같은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여,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의 사회적 친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농촌 내부 역량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6) 귀농·귀촌에 대한 배우자 지지도 제고 방안 모색

- 귀농귀촌에 대한 부부의 의견 일치를 귀농귀촌의 조건으로 강조해야 한다. 귀농귀촌인 배우자를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과 부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실행이 도움이 될 것이다.

7) 귀농·귀촌인 관련 원주민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성공적인 귀농귀촌과 귀농귀촌인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 따라서 원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교육 홍보해야 한다.
- 또한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인의 가치를 확인시키고 그 이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8) 귀농·귀촌 집단별 맞춤형 정책의 수립

- 이 연구에 의하면 귀농·귀촌인은 동기에 의해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즉 '경제생계형', '대안가치 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 등으로 분류된다. 각 집단은 상이한 특성을 지니므로 각각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경제생계형'의 경우 주로 농업을 위해 이주한 귀농인으로 가장 적극적인 농업 종사자들이다. 이들 집단의 경우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나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도농교류나 산촌유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인하는 경제적인 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대안가치추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귀농성공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생태적 가치, 농촌발전,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 등을 귀농동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농촌발전의 주요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개인생활효용형'은 개인의 건강, 은퇴 등을 귀농귀촌 동기로 밝힌 집단으로 상대적으로 귀농귀촌 성공도에 대한 자기평가가 가장 낮았다. 이들에게 억지로 지역사회의 사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새로운 농촌발전을 주도할 리더의 양성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을 아우르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비전과 능력을 가진 리더를 발굴, 양성해야 한다. 신규 리더십의 조화와 상생을 통해 새로운 농촌사회 발전의 주체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안적인 농촌 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전통적인 리더십과 귀농귀촌인의 리더십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0) 귀농귀촌인의 유입, 정착, 유출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

- 귀농귀촌인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정책 평가 및 개발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특히 귀농귀촌을 포기하거나 귀농귀촌 목적지를 바꾼 사람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그들이 진안(1차 귀농귀촌지)을 떠난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추후 귀농귀촌 정책의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11) 농업 중심의 귀농 정책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귀촌 정책으로 전환

- 귀농귀촌인 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 후 직업형태가 비농업이거나 겸업농인 경우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이 농촌의 문화, 복지, 삶의 질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2) 귀농귀촌인 사전 준비 교육 강화

-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 교육프로그램 실시와 병행하여 결국은 농촌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재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귀농귀촌 이전에 농촌 일반 및 귀농귀촌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관계 등을 강조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13) 지역사회 통합적 귀농귀촌인 정주 모델의 개발

- 귀농귀촌인의 거주지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때에도 지역 주민들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교류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소규모 집단 주거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4)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 행사 시행

- 귀농귀촌인들은 농촌 생활을 하면서도 도시의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원주민 역시 농촌의 열악한 문화생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 및 원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두 집단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15)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통한 지역 창업 유도

-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로컬푸드의 개념에 입각하여 농산물 가공 및 유통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고, 그들이 가진 인적자본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농촌정책 및 농촌사회 발전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귀농귀촌인을 농촌사회 발전의 새로운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주체적 역량을 활용해서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농촌형 공동체 회사와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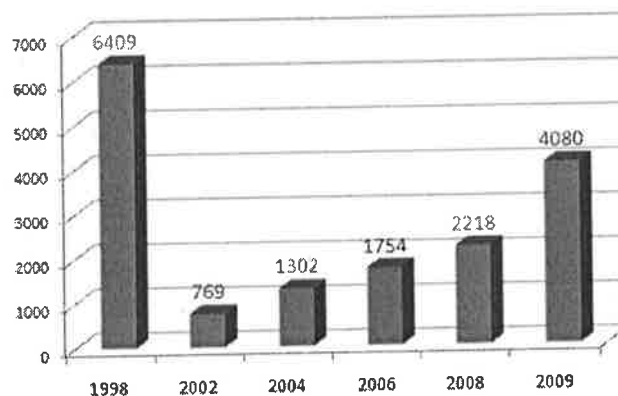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제 귀농·귀촌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에만 4,000명 이상이 귀농했으며(<그림 1> 참조), 앞으로도 귀농·귀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귀농운동본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귀농 준비 과정에는 교육생이 넘쳐나고 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귀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귀농인 선행학습교육지원 정책, 농촌정착 지원 정책, 귀농인 지원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IMF 직후 급증했던 귀농은 경제적 동기가 강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자기 진행된 당시 귀농은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의 귀농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비경제적 동기가 상당히 중요해졌으며,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최근의 높은 관심은 도시 삶에 대한 불만, 좋은 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 대안적인 가치 추구 등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귀농·귀촌은 새로운 사회변동의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농촌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70%를 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44). 또 송미령·박석두·성주인·박경철(2006)의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5%(30-40만 정도)에 달했다.

<그림 1-1> 연도별 귀농·귀촌인 변화 추이



앞으로 귀농귀촌은 1955~1963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에 베이비 붐 세대는 대략 720만 명으로 추산되고(<표 1-1> 참조), 이 세대가 2010년부터 본격 은퇴를 맞으면서 귀농귀촌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중 10~20%는 귀농귀촌의사가 있는 것으로 예측됨으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정책이 있을 경우 농촌사회 활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 규모

구 분	추 정 인 구
1955년생(만 55세)	66만3319명
1956년생(만 54세)	70만8728명
1957년생(만 53세)	74만2633명
1958년생(만 52세)	78만4111명
1959년생(만 51세)	82만3550명
1960년생(만 50세)	84만8690명
1961년생(만 49세)	85만8141명
1962년생(만 48세)	85만4550명
1963년생(만 47세)	84만1625명
합 계	712만5437명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0

귀농·귀촌은 개인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진 농촌으로 이주해 다른 삶에 도전하는 것이다. 귀농·귀촌인은 개인과 그 가족의 향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귀농·귀촌은 귀농·귀촌인을 수용하는 농촌사회의 입장에서 대단히 큰 변화이다. 특히 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농촌의 작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농촌 지역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원을 가진 비교적 젊은 도시민이 유입되면, 지역사회는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화 인프라의 발전, 농촌사회 조직의 부흥 등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갑작스러운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전혀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외부인들이 들어와 농촌사회의 문화와 부딪히며, 지역공동체를 해체시킬 수 있다. 지역정책이나 마을 운영과 관련된 상이한 이해관계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 역시 귀농·귀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을 펼쳐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종합대책」을 시행하여 본격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자체 역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 이주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귀농·귀촌이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개인적·사회적·정책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연구는 미흡했다.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절실하다. 우선 과연 무엇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이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무엇을 성공적인 귀농·귀촌으로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귀농·귀촌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의 주민들의 성공적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하다. 귀농·귀촌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원만한 관계야말로 농촌 지역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성공적인 귀농·귀촌이란 무엇인지를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강조되었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귀농·귀촌인, 원주민, 그리고 그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학적 접근은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귀농·귀촌인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어려움에 처한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귀농·귀촌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연구는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귀농·귀촌의 중요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을 채택한다. 전국에 편재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귀농·귀촌인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지역연구를 통해 특정 지역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귀농귀촌의 현실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전라북도 진안군을 연구 대상지로 삼아, 지역의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렇다면 왜 진안인가? 우리가 진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안은 우리나라의 귀농 1번지로서, 600세대에 가까운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살고 있다. 다수의 귀농귀촌인이 이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귀농귀촌인의 현실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하기에 충분한 사례수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진안은 지자체장, 공무원, 그리고 지역 민간조직 등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틀 속에서 귀농귀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진안의 선도적 실험은 이후 다른 지역의 귀농귀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략에 좋은 벤치마킹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진안군은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라고 하는 한국 농촌 일반이 경험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도출된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발전 정책은 우리 사회의 농촌의 보편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귀농·귀촌이 이루어진 후 실생활 속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의 내용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한다.
- 진안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귀농·귀촌 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과 재생산에 필요한 사회적·정책적 과제를 규명한다.
-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귀농·귀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농촌지역과 주민, 귀농·귀촌인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한다.

3. 연구내용과 보고서 구성

1) 연구방향

앞에서 제시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 귀농·귀촌의 역사적 변화와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재에 이르는 귀농·귀촌 현황의 특징을 분석한다.
- 2009년 한 해 동안 100여 가구의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고 귀농·귀촌전국대회를 개최하기도 한 전라북도 진안군 지역의 귀농·귀촌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한다.
- 귀농·일번지 브랜드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착률 지원' 정책과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 귀농·귀촌의 다양한 형태를 분류하고, 귀농인과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협력의 사회적 관계의 내용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적인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찾아낸다.

2) 연구내용

- 귀농·귀촌인들과 지역 원주민들 간의 관계 분석.
 - 귀농·귀촌자들과 지역주민 간의 협력, 갈등, 통합의 사회적 관계 분석
 - 원주민들의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인식 및 관계 방식 조사
 - 집단 귀농·귀촌 마을 내부 구성원들간의 갈등 및 조정의 상호작용 분석
-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례와 정책 도출
 -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만족도, 기여도 등 지역사회와의 관계
 - 지역사회 통합적 귀농·귀촌에 필요한 요인(사회적 관계, 사회적 자본) 도출
 - 농촌형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창출방안
 - 귀농·귀촌인과 지역원주민간 주민통합 및 농촌활력 프로그램 개발
- 귀농·귀촌 사례의 심층적 현지조사를 통한 일반화 모델과 비교 기준 마련

- 사례지역(진안군) 심층면접 결과를 지표화, 일반화하여 타 지역 귀농·귀촌 비교 준거 마련
 - 귀농·귀촌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성공적 귀농·귀촌 사례와 방안 제시
 - 지자체(진안군)의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와 지자체 귀농정책 모델 제시
- 지속발전 가능한 귀농·귀촌 정책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제안
- 귀농·귀촌인을 활용한 농촌 지역복지, 문화, 교육 등의 삶의 질 개선방안
 - 농업 농촌 문제해결과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귀농·귀촌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의미와 방향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

3) 연구보고서 구성

최종보고서 본문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내용과 보고서 구성

II.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 동향과 이론

1. 귀농 귀촌 현황과 동향
2. 귀농 정책
3. 이론적 논의

III. 연구방법

1. 연구개요
2. 연구대상
3. 설문지 구성
4. 조사와 분석

IV. 귀농귀촌인 설문조사 결과

V. 마을 원주민 설문조사 결과

VI.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 1) 귀농귀촌인 조사결과와 시사점
- 2) 원주민 조사결과와 시사점
- 3)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조사결과의 비교
- 4) 조사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2. 정책적 제언

II.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 동향과 이론

1. 귀농 귀촌 현황과 동향

압축적 근대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은 공동화되었다. 해가 지날수록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이는 농촌 지역의 자립 기반이 무너졌다. <표 2-1>은 90년대 이후 최근의 농촌 인구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표 2-1> 농촌지역 인가와 농림업 인구의 변화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증가율(%) (1990~2005)
전국인구	43,411	44,609	46,136	47,279	0.6
동지역 인구	32,309	35,036	36,755	38,515	1.3
읍·면지역 인구	11,102	9,957	9,381	8,764	Δ1.4
읍·면 비중(%)	25.6	21.5	20.3	18.5	
농림업 인구	3,100	2,289	2,162	1,747	Δ2.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 통계연보 2007년, 2003년, 2000년; 이민수, 2009: 17에서 재인용

지자체들은 감소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귀농귀촌'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는 출산 장려나 자금 지원에서 전원마을 조성까지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있던 귀농귀촌지원정책을 정비한 '2009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나오게 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2007 농촌정주수요 조사> 결과, 56.3%가 향후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161). 이 수요가 직접적인 귀농귀촌 실천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는 삶의 터전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거나 옮기려는 도시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실제 1990년대부터 2009년까지 귀농 인구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다.

<표 2-2> 90년대 이후 연도별 귀농 현황

구분	합계	'90~'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가구수	34,379	13,595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누계	34,379	20,781	17,713	18,867	19,747	20,516	21,401	22,703	23,943	25,697	28,081	30,299	34,379
구성비(%)	100	39.5	13.6	3.8	2.9	2.5	2.9	4.3	4.1	5.8	7.9	7.3	11.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경영과 내부 자료

위의 표를 통해 몇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¹⁾. 먼저 귀농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98년과 99년에 귀농자가 월등히 늘었다. 이후 2002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2009년에 대략 2배가 늘었다. 우선 1998년과 2009년은 귀농인구가 그 전 해와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했다. 갑작스런 변화는 특정한 계기를 동반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가 취업자의 이상 현상과 관계있다고 분석한다. 즉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업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체 경향과 반대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실업의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농업이 갖는 고용 효과, 나아가서는 사회적 불안의 흡수 능력을 확인시켜줬다.

<표 2-3> 경제위기 직후 취업자 비율의 변화

	('97평균)···금융위기···('98평균)	('08. 2월) ····· ('09. 2월)
총 취업자(천명)	: 21,214 → 19,938(Δ1,276))	22,284 → 22,742(Δ142))
농림어업 부문	: 2,177 → 2,318(증 141)	1,333 → 1,340(증 7)

그러나 갑작스럽게 귀농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경제적 원인'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1997년과 2008년은 동시에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 상황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IMF 한파는 대외 의존적 농업생산(대규모 축산이나 유리온실 등)이 갖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국내의 자립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마찬가지로 2008년은 세계 금융위기와 식량위기가 동시에 강타한 해였다. 1997년 IMF가 국내 상황에 집중된 '위기'를 보여준다면, 2008년은 세계의 '위기'가 국내의 '위기'로 전이된 상황이며 외국 의존 식량의 가격 변동(밀)이 큰 폭으로 변화한 시기이다. 즉

1) 정부가 귀농자 관련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한 때는 1994년부터이다. 이때부터 정부(농림부)는 매년 1회 행정조사('이장'에게 설문)를 통해 마을 외부로부터 '농사를 지으러 들어 온 농가수'를 조사하여 귀농자 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기에 1994년 이전에는 귀농자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가 없었으며, 1994년 조사시 90년 이후로부터 93년까지의 귀농자 실태를 소급 조사하여 1990년부터의 귀농 통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1998: 25).

두 번의 경제 위기 전후에 '식량 위기', '농업 위기'가 있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귀농인구 흐름의 두 번째 특징을 말해준다. 1998년 급속히 증가한 귀농인구수의 거품이 빠지고 2003년부터 점진적으로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흐름은 2008년까지 지속하고 2009년 대략 2배 정도가 된다. 즉 경제위기는 1998년과 2009년의 급격한 귀농인구 증가의 계기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 농촌과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귀농운동의 흐름이 선제한 상황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농촌과 농업, 먹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있었기에 귀농귀촌 인구가 서서히 증가해 온 것이다.

둘째 귀농자의 연령분포는 <표 2-4>와 같다. 연령별 귀농인구 추이를 살펴볼 때 30대, 40대, 50대 귀농자가 가장 많다. 50대 이상의 집단은 실직이나 정년퇴임의 과정을 거친 집단으로 농업을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삶의 공간으로 농촌을 선택한 집단이다. 젊은 층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다. 경제적인 이유,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녀의 교육과 건강 문제, 집안의 가업을 잇기 위함 등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동기에 맞는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4> 연령별 귀농 현황

구분	계(%)	'90~'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34,379 (100%)	13,595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29이하	2,791 (8.1)	1,282	361	65	38	62	64	34	54	70	44	31	686
30~39	12,206 (35.5)	6,058	2,077	515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1,184
40~49	9,875 (28.7)	3,368	1,206	391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1,294
50~59	6,428 (18.7)	2,004	422	155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749
60이상	3,079 (9.0)	883	52	28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16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경영과 내부 자료

셋째, <표 2-5>는 시도별 귀농자 분포이다. 2009년 경북, 전북, 전남, 경남이 가장 많은 귀농귀촌인이 들어온 지역이다. 경북의 경우 1,000명이 넘는 귀농인구가 2009년에 유입되었고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남, 전북 지역 역시

2005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꾸준히 귀농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남 역시 2001년 이후 200명 이상의 귀농 인구가 꾸준히 있어 왔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귀농자가 500명 이상이 되었다. 그에 비해 경기와 강원은 다른 도에 비해 귀농인구가 적다. 이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토지 가격이다. 경기도, 강원도는 서울과의 접근성 때문에 여전히 토지 가격이 높다. 그에 비해 경상도와 전라도는 귀농인들이 집과 토지를 구하는데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 귀농 정책적 요인이 있다. 실제 귀농인을 지원하는 지원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전체 23개 시/군 중 경북 7, 전남 7, 전북 5곳이다²⁾. 총 23개 시/군 중 이들 세 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82% 정도이다. 무엇보다 귀농인이 많기에 그 사람을 통해 귀농인이 더 많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

<표 2-5> 연도별, 시도별 귀농 가구 수 분포

구분	계	'90~'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34,379	13,595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부산	16	12	3	-	-	-	-	-	-	1	-	-	
대구	52	52	-	-	-	-	-	-	-	-	-	-	
인천	169	74	21	1	-	1	-	16	28	2	-	-	26
광주	68	4	49	3	-	-	5	6	-	1	-	-	
대전	4	2	-	-	1	-	-	-	-	1	-	-	
울산	31	18	6	-	-	-	-	-	7	-	-	-	
경기	2,026	1,208	224	54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강원	2,814	1,043	330	151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충북	2,332	971	213	35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충남	3,006	1,088	382	111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전북	4,599	1,391	456	166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전남	5,192	2,249	1,048	230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경북	7,677	2,932	689	191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경남	5,511	2,298	489	119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제주	882	253	208	93	56	22	31	16	7	58	48	50	40
	34,379	13,595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경영과 내부 자료

2. 귀농 정책

2) 전남은 강진, 곡성, 화순, 나주, 해남, 영암, 무안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전북은 고창, 순창, 장수, 부안이며, 경북은 영양, 영주, 문경, 의성, 예천 봉화, 청송이다

1)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자발적 귀농현상은 농촌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적 구조를 개선하고, 인적자원을 재생산하여 농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다. 1997년 외환 위기라는 외적 요인으로 급증하였던 귀농 흐름은 귀농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각종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의 성공 사례로 제시되는 마을현장에서 귀농자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역 내 귀농자 유입을 단순 인구이동이 아닌 특정한 사회집단의 선택적 이주(selective migration)와 현장에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 확보로 관점의 변화가 시작되었다(서용만, 구자인, 2005: 147). 무엇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2008년 세계 식량 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는 귀농 동향에 준비하여 정부는 이전부터 있었던 귀농정책을 정비하여 2009년 '귀농 귀촌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비체계적이고 담당 부서도 일관적이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 분명 진일보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1980년대 초 정부는 '농어민후계자자금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정부가 주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귀농(농고나 농대졸업자)하거나 귀농 후 농어민 후계자로 편입되는 방식의 귀농 흐름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1992년에서 1997년까지 귀농정책은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인력정책이었다. 1992년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농정의 시대'로 들어갔고 대규모의 자금(42조원)이 투입되며 '귀농'은 '돌아오는 농촌 건설'이라는 농업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룬다. 왜냐하면 농촌은 공동화되고 고령화되었기에 농촌으로 투입된 자금을 실제로 운용할 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해도 그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귀농정책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는 곧 전업농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나타났고, 그 유인책으로 '대학생선도농가지원' 혹은 '선도개척농사업'³⁾이 실시된다. 이 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귀농의 형태와 동기도 귀농자의 '경제적 요구'와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한편 1997년 말 IMF 사태를 맞으며 정부에서도 실업자의 구제차원에서 귀농에 대한

3) 선도개척농은 농과대학이나 농업계대학원의 졸업자로서 농촌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1인당 1억원의 자금을 제공하며 '귀농'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1994년부터 실시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1998년까지 총 139명(94년 30명, 96년 25명, 97년 29명, 1998년 25명)이 귀농하였으며, 1인당 1억원씩 139억원의 귀농장려자금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35세 미만의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규귀농에 얼마나 직접적인 유인이 되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특혜적인 자금지원은 신규귀농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였음이 틀림없다.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귀농지원의 정책적 목표는 농업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인력육성에 맞춰 실시되었다. 그 내용은 일정 조건을 갖춘 귀농희망자를 선발하여 지원한 것이라면, 이 시기의 정부지원은 직업알선을 위한 전업대책(영농정보제공, 영농기술교육, 귀농정착지원 등)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는 무엇보다 귀농지원정책이 농림부의 단독 사업이 아닌 노동부의 실업문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귀농희망자영농훈련사업'과 연계하여 시행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먼저 1997년에서 2009년 귀농종합대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지원책을 살펴보자. 1997년 이후 귀농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방향은 ① 확고한 의지를 가진 젊고 능력있는 사람의 정착을 지원하고 ② 농업 및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며 ③ 최근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귀농자를 위한 별도의 정착자금을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지원책은 귀농'전'과 귀농'후' 단계로 구분하고 귀농'전' 단계에서 '귀농희망자에 대한 귀농안내 및 정보제공과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귀농희망자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농협,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시·도 등에서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초영농기술교육이 실시 되었다.

귀농'후' 단계의 지원정책은 크게 ① 전문경영기술교육, ② 귀농자영농창업자금제공, ③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영농지도 등으로 구분된다. 전문경영기술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소득작물 전문기술 교육과 지역특화작목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영농공개강좌 등과 농협, 축협, 전국농업기술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품목별 전문교육, 그리고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경영·정보화교육 등이 있다.

귀농자영농창업자금제공은 영농기반시설과 농기계, 비료, 농약, 유류 등 영농자재 구입을 지원(농지 및 농가주택 구입은 자부담)하기 위해 2000명에 대하여 각 20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영농창업자금을 연 6.5%(2년 거치 3년 상환)로 융자해 주고 있다.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이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은 두 가지이다. 먼저 1997년 1월 1일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귀농지역 농촌지도소장에게 영농정착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둘째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 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해야 한다. 그러나 귀농자들만을 위한 귀농자금은 2000년에 잠시 제공되었다가 귀농창업자금과 종합자금제로 통합되어 전국적인 별도의 자금은 없는 실정이다. 1998~2000년 사이의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지원이 있었으나, 2001년부터 연령 제한에 따른 귀농창업

후계농업인 및 농업종합자금제에 따른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금 지원 부분은 취농에 관련된 각종형태의 자금이 있으며, 창업농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 경영자금 지원, 종합자금제에 따른 자금, 농기계나 수리를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귀농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보면 시·군, 농촌지도소, 농축협, 농업인관련단체의 대표들로 '귀농인력 영농정착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영농정착교육과 훈련, 영농기술지원과 컨설팅, 영농자금 제공 등을 위해 분기별로 귀농자의 정착실태를 조사분석하는 한편, 귀농자 개인별로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관리지도하도록 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해결토록 하며, 각종 정책사업에 정착된 귀농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것 등이다.

또한 지자체나 각 시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정보교육, 영농기술교육, 원격영농상담, 화상영농교육, 영농설계교육, 농기계 교육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교육은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빈집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농어촌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정착 시 주택 수리비를 보조하는 경우, 농어촌 주태개량용자사업에 대한 알선이나,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의 지자체가 출산장려, 영유아 양육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체 임직원이나 대학생 전입시 기업과 학생회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입자에 대한 차량등록비 지원 및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이나,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을 위한 순환농업시범단체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2009년까지 귀농정책은 그 방향에 애매모호하고 추진 주체도 체계적이지 못했다.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단순한 인구 유입', '도시민의 실업자 해소'라는 목표가 혼합되며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귀농 대책이 수립되지 못했다.

2009년 귀농 종합대책은 이전의 대응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1998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귀농인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태를 겪었고 동일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귀농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때를 대비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6>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사업

담당부서	사업명	주요 내용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정책국	농산업 인턴제	• 농업분야 창업 준비를 위한 영농 실습 지원
	귀농교육 프로그램	• 영농 기술 및 농업경영 교육
	귀농인의 집	•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준비
	창업 자금 및 컨설팅 지원	• 영농기반 또는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마련에 필요한 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
	신용보증 지원	• 담보능력이 미약한 귀농인의 채무 보증
	빈집수리비 지원	• 귀농가의 주택 마련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정책국	전원마을 조성	• 20호 이상의 농촌주택단지 공급 • 신규 전입자에게 분양
	농어촌뉴타운조성	• 50호, 100호, 200호 규모의 농촌주택단지 공급 • 농업 및 농산업분야 종사 예정자에게 분양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지역 홍보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필요한 교육 등 연성적 프로그램 지원 • 시설설치에 수반되는 '하드웨어 지원'을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연성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 및 실행

자료 : 김정섭, 2009: p. 22

그 외 타 정부기간과 민간단체의 지원정책은 아래와 같다.

<그림 2-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사업

민간기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사)전국농업기술지협회	천안연일대학 귀농지원센터
○생태귀농학교 운영 ※ 89백만원(농림부) ○지자체 MOU 체결, 교육 ○지역귀농지원센터 지원 ○귀농농부 책자 발간	○도시민 웰빙농사교육 ※ 농림부 지원, 140명 수료	OE-tutor, uitem시스템 ○교육과정운영 - 귀농 정보탐색/준비과정 - 비농출신 직업훈련과정 ※ 930백만원(농림수산식품부)

<그림 2-2> 타 기관 귀농 귀촌 관련 정책 사업

공공기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테마마을사업 ○체제형 가족농원사업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 ○은퇴귀농연구 ○귀농승계기구연구 ○한국형 가족농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종합정보포털 (www.nongchon.or.kr)운영 - 귀농·귀촌 - 농지은행 - 주택정보 - 그린두어 - 투자유치 등
지방자치단체	
강진, 곡성, 순창, 화순, 영양, 부여, 장수, 나주, 고창 등	경기도청, 전북 진안·순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자지원조례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위원회설치 - 교육훈련과 경비보조 - 귀농관련 사업보조용자 - 빈집수리 등 시설지원 - 의료·학자금지원 - 귀농인 사후관리 - 농지구입 자금지원 - 영농정착 자금지원 - 컨설팅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형 가족농원사업 ※ 개소당 예산: 3.2~10억원
	<p style="text-align: center;">화천, 양구, 서천, 금산, 진안, 남원, 고창, 곡성, 안동, 남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컨설팅, 교육행사 ○ 일자리주선, 주거정보제공 ○ 출향인사파악 등 지원 ※ '07~'09, 10억(국·지방비)

※ 귀농교육은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한국농업대학 3개교에서 3~4개월 교육과정 운영
 ※※ 자료: 이민수

2009년 종합 대책이 이전의 지원정책보다 진일보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 김정섭(2009)은 네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귀농자의 귀농 동기나 유형에 관계 없이 중앙차원의 일괄적인 지원은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귀농자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거나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농업경영모델이나 농기업경영모

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표준소득분석 정도가 있으나 지역, 판매 시기와 방식에 따라 소득에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귀농인들이 적절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작목구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귀농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귀농인의 범주를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것만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농업영위자도 지원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귀농교육이 농업기술에 치중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와의 적응을 돕는 방안이나 농촌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안도 필요하다. 농촌지역 창업은 도시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불리하므로 행정부서의 일관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

이 측면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왜 농촌지역에서 귀농·귀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김정섭, 2009).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저발전의 집약적 표현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다. 귀농·귀촌 정책은 농촌발전, 농촌개발이라는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틀 안에서 연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기에 귀농귀촌 인구를 단순히 농업의 테두리 안에서 한정시키지 않고 농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동력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농촌인구를 유지한다는 귀농귀촌인의 양적인 측면에서 이들에게 있는 질적인 잠재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의료, 복지, 교육, 창업 등)를 보완하고 지역적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관점'의 문제이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농촌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귀농·귀촌 정책을 실시해왔다. 사실 '귀농·귀촌 종합 대책'을 구성하는 세부 프로그램들도 이미 이전에 시행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왜 귀농·귀촌 문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가'라는 관점이 아니라 '귀농·귀촌 정책 사업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김정섭, 2009: 535). 이 부분은 특히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며 느끼는 장애요인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 외, 사회적 요인을 더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을과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 이를 해결하는 방법, 농촌을 이해하는 공부 등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규 취농자들이 겪는 진입장애 해소의 실마리는 경제적 자본 요인보다는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에서 찾아야 한다(마상진, 2008: 75). 마을의 기득권자, 마을주민, 생산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의 중심 기관 등 마을과 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과 어떻게 연계하고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의미에서 귀농·귀촌 인구를 경제적 유인에 따라 거주지 이전을 선택하는 원자화된 개인으로 간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에 포섭되고 동화되어 능동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잠재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실행 집단(group)으로 조직화하자는 농촌개발 정책의 관점에서 귀농·귀촌을 생각해야 한다(김정섭, 2009: 540~543).

2) 진안의 귀농귀촌 정책

진안군은 농촌 살리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귀농귀촌정책을 시작했다. '무진장'(무주, 진안, 장수)이라는 오지와 가난의 대명사였던 진안군은 과거 행정안전부의 지역 낙후도 평가에서 전국 231위(총 234 시군 중)를 차지할 만큼 뒤쳐진 군이었다. 그러나 2001년 군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읍면 지역 개발계획 추진사업을 도입하며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2003년 기존의 '읍면 지역 개발계획'을 '으뜸마을가꾸기'로 개칭했다. 주민주도형 상향식 마을만들기가 기본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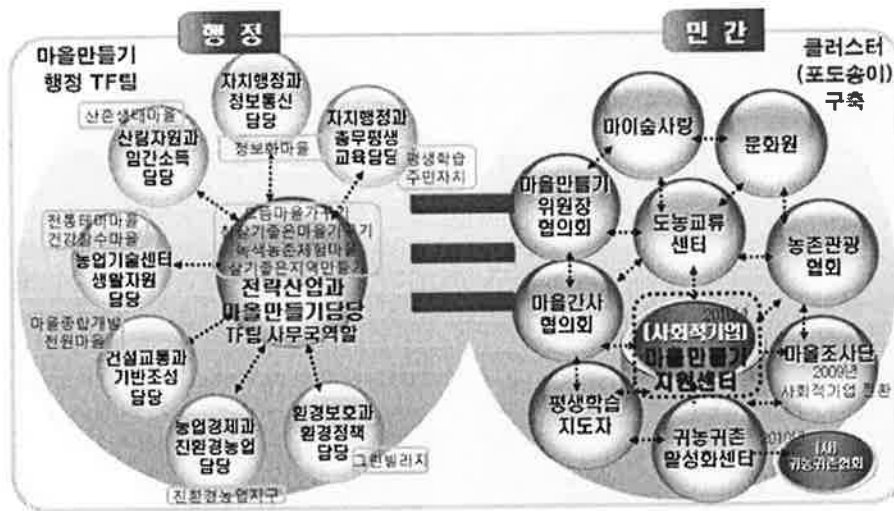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을간사 제도를 2006년부터 시작했다. 또 이 제도 운영의 경험을 확장하고 도시민 인재의 농촌 정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 말부터 '귀농 1번지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이와 맞물려 당시 행자부 혁신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①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② 지원프로그램 개발, ③ 홈페이지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 10억원(3년)으로 각종 귀농귀촌 사업을 진행했고, '귀농 1번지 프로젝트'는 더 구체화되었다. 귀농1번지 프로젝트는 5대 분야 24개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 이후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굴되고 확장되고 있다.

진안군에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핵심주체는 귀농1번지 프로젝트 일환으로 2008년 1월에 만들어진 '귀농귀촌활성화센터'였다. 초기 그것을 담당하는 주체는 행정의 기간근로자가 담당하며 전문성을 키우고 지속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 민간이 주체가 되는 읍면별 소모임을 병행해서 만들어 왔다. 이후 2년간의 준비 및 훈련과정을 거쳐 2009년 12월에는 민간전문그룹으로서 '뿌리협회'가 창립되었다. 2006년부터 귀농귀촌 지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며 이의 근간이 되는 5가지 원칙을 정했다. 그것은 아래와 같다.

- | | |
|------------|------------|
| ① 정착귀농인우선 | ② 도시민전문성존중 |
| ③ 현금지원배제 | ④ 주민과의화합중시 |
| ⑤ 도시민환영시스템 | |

진안의 귀농귀촌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진안군의 전체 농촌 발전 정책 가운데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해 있다. 이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3> 진안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



진안군은 지역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행정과 민간 가버너스형 마을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다. 농촌 내부의 발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존중하지만, 마을 자체만으로 모든 발전을 완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전문그룹들을 조직하고 제도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행정과 민간이 각각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강조한다. 행정의 지원시스템은 마을만들기 전담팀 구성과 행정협조회의 개최(2007.2), 마을 사업간 5단계 확립, 지원조례 제정(2010.5)을 만들었다. 기존 지자체들은 귀농귀촌 정책을 단순히 인구 늘리기, 농업 후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기에 귀농귀촌 정책이 군의 농촌 발전 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는 것에 비해 진안군은 ‘마을 만들기 사업’ 아래 귀농귀촌 정책이 자리매김해 있다.

둘째 진안은 농사를 전문으로 지으러 오는 사람보다 다른 일을 하러 오는 귀촌자를 더 우대한다. 농촌에서 부족한 인력은 농촌의 외연을 확대할 인력이라는 의미에서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 과제가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다.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는 농촌 지역의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나 공공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위적 일자리로 지역의 고용안정과 지역 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를 말한다(김재현, 2006: 112).

<표 2-7> 진안군의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	수행주체	사업 참여자		주요 활동	재원
마을 간사	지자체	귀농·귀촌인	비 취 약 계 층	마을개발사업 실무 담당	국비
마을 사무장	중앙정부	귀농·귀촌인		마을개발사업 실무 담당	국비
평생학습지도자	지자체	고졸 이상 여성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 학습프로그램 운영	군비
마을 조사단	비영리 조직	문화 활동가		마을 문화 및 자연자원 조사 발굴	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비영리 조직	빈곤층		취약 계층	간병, 청소, 보육지원, 집수리, 급식지원, 약초재배, 농산물 판매

자료 : 김정원, 2008: 14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일자리는 귀농귀촌인 자체를 위한 자리도 있고 진안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도 있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마을 간사제도와 마을 사무장 제도이다. 귀농인을 중심으로 농촌형 외부인재를 영입, 부족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매개로 마을개발 및 마을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새로운 마을발전의 모델을 마련하는 데 있다(곽동원, 2008: 55). 마을간사는 장기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젊은귀농귀촌인들이 농촌으로 와서 농촌을 이해하고 배우며 다른 삶의 길을 찾는 '완충 지대'이다.

또한 2006년 시작된 마을조사단 활동도 마을간사제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다. 마을문화조사단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되었으며 조사단 구성의 일차적 배경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있었으나, 조사단의 궁극적 목적은 마을의 문화 및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농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이었다. 처음 진안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2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활동은 국비와 기업,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확장되어 2011년에 용담댐 수몰지역 4개면까지 조사하면 전체 11개 읍면의 295개 마을 조사가 완료된다. 마을조사에서 출발한 활동은 2008년부터 마실길 프로젝트로 확장되었고 2010년 초에는 생태관광 10대 모델로 선정되었다. 이후 백운면 손내옹기와 마령면 공동체박물관,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정과 마을숲, 당산나무 등의 자원을 연계하면서 진안군 전체를 하나의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생각하는 에코뮤지엄 구상도 계속 진행중이다. 어느 마을도 이

야기와 역사가 없는 곳이 없다. 우리들에게 잊혀져 가는 그 마을의 이야기와 문화를
끄집어내고 거기서 그 마을이 다음의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진안군은 2008년 5월경 이와 비슷한 사업 하나를 새로 추진했다. '귀농귀촌인의 창
업 및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귀농귀촌인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정적 소득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귀농귀촌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활
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상생과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진양명숙, 2009: 110-111)⁴⁾.
진안군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는 이유는 다양한 역량을 지닌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동시에 농
촌도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우선 이를 위해
귀농귀촌 정책이 원주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아야 한다. 이는 '뿌리협회'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배경에서도 드러난다. 마을만들기 팀장인 구자인 박사는 귀농귀촌이란
것은 권리도 자격도 아니고, 너무 두드러지게 내세워서 '돌 맞기 십상'이라 본다.
무엇보다 이 땅의 뿌리를 지켜온 토박이 주민을 존중하고 새롭게 뿌리를 내리려는
귀농귀촌인이 힘을 합쳐 모두의 고향(뿌리)이 되는 농촌 마을을 튼튼하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구자인, 2010). '산토끼, 집토끼', '굴러온 돌, 박힌 돌' 운
운하며 귀농귀촌인과 지역민들간의 갈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원주민들을 존중하
며 갈등을 예방하고 귀농귀촌인의 장점을 결합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귀농귀촌에 관한 정책이 귀농귀촌인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마을과 지자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동시에 그
역의 경우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을
축제이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마을'을 테마로, 2008년 전
국 처음으로 '마을축제'가 시작되었다. 30개 마을의 소박한 마을잔치와 회흔례, 시골
학교 동창회, 미니FM방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연 3만명 정도가 다녀
갔다.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겠지만, 마을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연성적인 프

4) 예시된 지원분야는 농업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복지분야, 기타분야가 있다. 문화분야만 살펴보면 청소년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소외지역 영화 등 서비스 제공행사, 각종 공공미술 프로그램 운영, 전통 공예
품 제작, 관광 등 기능성 지도 제작, 풍물 지도, 천문 행사 진행, 인터넷 소설 연재, 각종 지역자원 발굴 조사
및 DB구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진안군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기여 활동지원 사업' 공모 자료). 진안군
은 귀농귀촌인을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듯 했다(진양명숙, 2009: 110-111).

로그래를 만들고 함께 참여하는 장을 만든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3. 이론적 논의

1) 귀농, 귀촌 정의

‘귀농’, ‘귀촌’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이다. 다양한 학자들이 저마다 분석하는 맥락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지자체마다 귀농 정책을 펴는 대상을 다르게 규정하기도 한다. ‘귀농’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입안하는 문제, 귀농과 관련한 농촌 발전을 전망하는 문제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 측면에서 먼저 학자들이 내린 다양한 귀농 정의를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는 자치법규에서 귀농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이 맥락 하에서 귀농과 귀촌의 개념을 어떻게 잡는 것이 농촌 발전을 전망하는데 적합 한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

1-1) 귀농 정의에 관한 기존 논의

귀농의 사전적 정의는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와 농사를 지음”을 말한다(두산동아, 동아 새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krdic.php?docid=17277> 2006. 1. 7). 여기서 귀농자를 과거 ‘농촌’에서 생활하였고, 돌아온 이후 ‘농사’를 짓는다고 전제한다. 이는 귀농을 가장 협소하게 정의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협의의 귀농인 정의로부터 몇 가지 파생되는 논의들이 있다.

먼저 ‘귀농’의 의미를 ‘직업’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박영일(1998)은 귀농인을 “농촌 출신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U-turn자, 도시 출신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취농자”로 분류하였다. 직업을 중심으로 사고할 때, 귀농인이 반드시 농촌 출신일 필요가 없으며 농촌출신 이외에서 농촌으로 들어와 새롭게 농업에 종사하게 된 자까지 귀농인으로 포함시킨다. 이정관(1998)이나 김주현(1999) 역시 이 관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직업 범주를 확대 해석한 경우도 있다. 1998년 농촌진흥청에서는 귀농의 이

동 경로와 과정을 분석했는데⁵⁾, 여기서 '이동 없음'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동 없음'은 농촌을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을 중단했던 사람이 농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귀농을 '농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다(강대구, 2005). 여기서는 귀농인이 이전에 거주하던 '공간'의 문제가 사라지며 오직 '직업'의 측면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귀농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간을 중심으로 귀농인을 정의한 경우이다. 남정덕(2000)은 노인이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귀농형 실버타운'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에서 지내던 은퇴자들이 노후를 농촌에서 살려고 내려온 사람들을 귀농했다고 볼 수 있는 거의 문제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서규선과 변재면(2000)은 귀농을 직업으로 농사짓는 것을 전제 한 이후 이 공간을 세분화하여 유형화했다. 고향농촌에서 거주하다가 고향농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 다시 고향 농촌으로 되돌아온 U턴 귀농자, U턴 귀농자와 달리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연고가 없는 타 지역의 농촌으로 귀농한 J턴 귀농자, 처음부터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취업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I턴 귀농자로 분류하였다. 여기서는 공간을 세분화하여 귀농인의 이동 경로에 따라 세분화했다는 것이 의미있는 작업이다.

5)

<표 2-8> 귀농 경로

구분	농촌 → 도시 → 고향농촌	농촌 → 도시 → 타향농촌	도시 → 농촌	이동 없음	기타	합계
가구 수(호)	205	50	99	6	6	366
구성비	56.0	13.7	27	0	1.6	100.0

<표 2-9> 귀농인의 유형

분류		정의
U-turn 귀농인		- 고향인 농촌에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에 다시 고향 농촌으로 되돌아온 귀농인
	계획적 U-turn 귀농인	- 부모와 뜻이 맞지 않거나 농촌총각의 결혼곤란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시취업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농업은퇴 또는 결혼에 성공한 후 농촌에 귀농
	추출된 U-turn 귀농인	- 오랫동안 고향 농촌을 떠나 도시생활에 정착한 후에 실직하거나 조기 퇴직, 가족 구성원의 건강문제 또는 도시로부터의 추출요인(pushers)에 의하여 고향 농촌으로 귀농
J-turn 귀농인		-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연고가 없는 타 지역의 농촌으로 귀농하는 귀농인
I-turn 귀농인		- 처음부터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취업생활을 영위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자료: 서규선·박병덕(1997),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산논총 제5권, 재정리

마지막으로 이병철(1999)은 귀농을 반자연적인 도시의 삶으로 멀어져버린 땅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자연을 파괴하고 반인간적인 현대 문명을 치유하고 생계와 건강과 삶의 가치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귀농을 보며, 이는 1996년 귀농운동본부가 만들어지며 한국사회에서 귀농을 생태적인 농촌 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여기서는 귀농의 의미가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넘어 농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직업적 의미와 함께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기까지 포함한 것이다.

1-2) 지방자치 법규에 나타난 귀농인 정의

다음으로 실제 정책에서 귀농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지자체의 자치 법규를 살펴보자. <표 2-10>은 귀농관련 자치법규의 귀농인 정의를 보여준다. 모든 자치법규의 공통점은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타지역에서 해당 지자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한다는 면에서 동일하지만 그 앞에 붙는 '조건부'가 있다. 그 조건부는 '가족'의 유무를 포함하는 것과 '연령'을 제한하는 측면이다. '가족'의 유무를 포함시킨 것은 단독 귀농자의 경우 거주가 불안정하여 이주할 가능성이 더 높기에 붙인 단서이며, '연령'은 이미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 젊은 층의 유입만을 귀농으로 간주하며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자치 법규에서 드러나듯이 귀농인을 각 지자체가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는 그 지자체의 농촌·농업 발전방안과 직결되며 그

지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귀농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 귀농인은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귀농인의 정의보다 협소한 의미로 적용되고 있다.

<표 2-10> 귀농관련 자치법규의 귀농인 정의

시 군	귀농인의 정의
익산시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정읍시	만 50세 미만, 3년 이상 도시 생활하던 자가 가족과 함께 읍면 농촌동 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남원시	농업외 직종으로 타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완주군	만 61세 미만,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무주군	만 20~55세 이하,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장수군	55세 미만, 가족(세대원 2인 이상)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임실군	가족(세대원 2인 이상)이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순창군	가족(세대원 2인 이상)이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고창군	만 50세 미만, 3년 이상 도시 생활하던 자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부안군	만 40세 미만, 2년 이상 도시생활하던 자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자료 : 장동현, 2009 : 22

1-3) 귀농귀촌을 정의하기 위한 관점 정립과 귀농귀촌 정의

귀농이 정의하는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귀농을 정의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거주자의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서용만·구자인, 2005: 150). 농촌으로 왔지만, 도회지에 출퇴근하며 도시에 의존해서 살 때 귀농 혹은 귀촌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지 거주 유형이 변했을 뿐,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적·농민적 생활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 종사도 성격에 따라 식량을 자급하는 수준이 있고 농업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귀농이지만 정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최소 영농 규모, 영농의 목적, 영농의 지속성 등의 분류기준 구체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제 귀농자가 정착한 지역 속성이다(서용만·구자인, 2005: 150~151). 귀농과 귀촌은 흡입지역과 배출지역이 있고, 두 지역의 상호 개념이 구분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도시화 및 교외화가 진전되고 정보화로 통신망이 전국을 연결하며 도시 주변부

와 시골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기에 행정구역상으로 귀농귀촌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기에 흡입 지역은 농촌적·농민적 생활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農)'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을 산업으로서 '농업' 혹은 직업으로서 '농사짓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모두 다양한 일을 하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농촌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 의미에서 농(農)의 의미를 주소득이 농업과 연결된 직업적·산업적 의미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농생활' 전반과 지역민들이 구성하는 농촌사회의 다양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귀농과 귀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강대구(2006)는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귀농자'와 구분하여 '귀촌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⁶⁾. 다만 현재 농업인의 정의는 종사 일수와 경지규모, 소득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귀촌자들의 상당 부분은 귀농자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귀농자로 넓게 규정하여도 무난하다고 한다. 고성준 역시 거주를 목적으로 농촌에 와서 농업을 부업 수준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귀촌으로 보고, 귀촌이기는 하나 일정 정도의 농업 경위를 전제로 한다면 귀농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고성준, 2007: 39).

이에 비해 유정규(1998)는 귀촌을 귀농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그는 귀농을 농업의 테두리 안에 한정시키는 정부의 산업적 차원의 귀농정책과 귀농운동본부의 생태 추구형 귀농운동을 모두 비판하며, 산업적 차원과 생태환경적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귀농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즉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생태적인 삶을 살고자 귀촌하는 것까지도 귀농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자(2010: 6~7)는 귀촌을 귀농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귀촌은 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와 농어촌 지역에 입지하는 모든 2·3차 산업을 포함한다고 한다. 이 논의를 정리하면 귀농과 귀촌의 관계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① 귀농과 귀촌은 각각 독립되었지만 교집합이 있는 경우(강대구, 고성준).
- ② 귀농이 귀촌 안에 포함되는 경우(유정규)
- ③ 귀촌이 귀농 안에 포함되는 경우(이시자)

6) 다만 현재 농업인의 정의는 종사 일수와 경지규모, 소득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귀촌자들의 상당 부분은 귀농자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귀농자로 넓게 규정하여도 무난하다(강대구, 2006: 28).

귀농과 귀촌을 정의하는데, 이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귀농과 귀촌 개념을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다의성이전에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귀농과 귀촌을 정의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 그러기에 '관점'이 중요하다. 먼저 귀농·귀촌을 도시민의 실업 대책을 위한 도구적 측면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는 IMF 사태 이후 실업의 급증과 연결하여 각종 실업대책 중의 하나로 '귀농'이 정책적으로 강조된 상황이었고, 이는 동일하게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다시 선택될 수 있는 관점이다. 그러나 귀농을 실업대책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실업자의 농업취업'로 파악한다면 귀농귀촌의 흐름과 그 정책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업이 도시의 문제 상황을 뒤치다꺼리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귀농귀촌을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 설 때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를 동시에 해소함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 농업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 충원으로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을 대안적 관점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자립 가능한 농촌 지역 사회 유지와 발전에 종사할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얻고, '농'의 가치를 현재의 생태·경제·문화위기를 돌파하는 하나의 대안적 동력으로 보는 관점이다.

본 연구는 세 번째 관점에서 귀농귀촌을 정의하려고 한다. 일차적으로 귀농과 귀촌은 농촌으로 돌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농촌적·농민적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무엇보다 농촌지역사회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공통 지반 아래에서 귀농과 귀촌을 구분한다. 귀농을 한 동기와 실제로 귀농이 농사를 지으며 먹거리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귀촌은 그 외 다른 지역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기도 한 진안에서 귀농귀촌인 가운데 45%가 넘는 비율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진안군, 2008: 82, 진양명숙, 2009에서 재인용). 진안군 자체도 귀농귀촌자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중용하지 않고 그들이 원래 지니고 있던 전문성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진안군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 다만 귀촌이기는 하나 일정정도의 농업영위(부업수준이상의 농업영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귀농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귀농귀촌 관련 연구 동향은 이론적 논의가 부족하고, 귀농인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축소하고 정책적 제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귀농귀촌이 어떤 관점 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불분명하기에 생겨나는 현상이며 귀농귀촌을 또 다시 도시민들의 실업해소를 위한 도구나 농업 인력 충원이라는 좁은 시야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과 함께 어떻게 '귀농귀촌의 성공'을 이끌 수 있으며, 이 성공이 농촌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시작한다. 즉 지금까지 '성공적인 귀농귀촌'과 '농촌사회 발전'은 분리된 두 축으로 별개의 논의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하고 각각의 논의가 어떻게 통합되고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2-1) 귀농 관련 연구

IMF 이후 귀농 현상이 중요한 사회 흐름으로 나타나자 귀농에 관한 연구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귀농에 관한 연구는 귀농 실태와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서규선·변재면, 1997; 박영일, 1998; 김동근, 1998; 김형용, 1998; 나장백, 1998; 구본석, 1999; 김주현, 1999; 정진웅 외, 2000). 또한 그리고 귀농자들간의 '차이'에 주목해, 그 차이가 곧 귀농 후 적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임혜영, 1999; 박공주, 2005; 강대구, 2006·2007).

신윤철외(1998)는 귀농동기와 귀농배경의 분석을 통해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영농기반 마련, 귀농전과 후의 교육 프로그램, 농업관련기관의 귀농 창구화 등을 강조하였다.

정한모(2002)는 귀농자들이 겪는 농촌의 일상생활의 어려움들과 정착과정을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봄에 귀농자들의 농촌생활 적응 및 효과적인 영농정착을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방법론으로 심층면접을 사용하며 조금 더 귀농자들의 섬세한 귀농 과정을 묘사했다. 그는 귀농을 이끄는 선택동기와 귀농 종용환경에 따라 귀농선택 과정을 분류했는데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귀농을 시도하는 '도전적 선택', 도시의 삶에 지쳐서 밀리고 밀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안식처로서 농촌을 찾는 '대안 없는 선택', 노부모 부양이나 가업 승계를 위한 '사회·윤리적 선택'으로 귀농을 범주화한다. 또한 귀농을 하여 새로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

하여 '따라짓기(이웃의 농부의 영농방식을 모형으로 그대로 따라해보는)', '발동냥(지역사회를 두루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 등의 '모사학습' 형태와 같은 비정형화된 학습 과정을 갖는다고 하였다.

장동헌(2009)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이 실태와 동기 분석에 주를 이루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귀농이 농촌 현실을 활성화시키는 활력소가 될 수 있으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관련 조례 및 규칙이 귀농촉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북 지역의 지방자치조례를 살펴보면 그 시사점으로 귀농정책과 함께 정착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귀농자의 지역문제의 개선, 영농행위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소득기반 확보, 귀농지원의 현실화, 농지구입에 대한 배려, 귀농자와 함께 세대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강대구(2006, 2007)는 농업 인력의 확보와 도농교류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 인력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귀농귀촌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이에 따라 귀농단계별(귀농 희망, 귀농 준비, 귀농 초기, 귀농 중기, 귀농 정착기) 귀농과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귀농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공주외(2006)는 귀농인들의 농촌 이주준비와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전국 70개 시군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귀농자 408명을 대상으로 귀농유형을 U턴형, J턴형, I턴형으로 구분하여 농촌이주 준비과정을 농촌이주동기, 농촌경험정도, 이주준비정도, 영농경험정도와 농촌 적응과정을 사회적 지원과 농촌생활인식수준으로 구분하여 농촌이주 준비과정과 적응과정에서 관련된 변인들은 귀농의 유형에 따라 다른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첫째 귀농유형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촌생활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U턴형, I턴형은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족형태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I턴형은 교육수준이 타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어 다른 유형보다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전원생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농촌 적응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심각성이나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귀농유형별 농촌이주 준비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U턴형은 경제적 여건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직접적인 동기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J턴형, I턴형은 농촌이 좋아서 라는 이상적인 전원생활의 동기에서 귀농을 선택하는 성향을 보이고, U턴형, J턴형, I턴형 모두 힘든 농사일 때문에 귀농 당시 이주 결심을 하기까지 꺼리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년기에 새로운 일에 대한 시

도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으므로 농촌으로의 귀농을 희망한다면 영농생활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임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언급하였다. 귀농인들의 적응을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자원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원주민과 귀농인이 상생하는 전략들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서만용·구자인(2005)의 연구는 농촌 인적자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귀농자들의 농촌적응 과정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농촌 정착과 귀농확대를 모색하려는 작업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귀농현상은 거시적인 경제적 모델보다는 미시적인 사회생태학적 인구이동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이들의 조사에서 귀농자들은 매우 낮은 경제적 소득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귀농 후 문제점 1위가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모순을 지적한다. 이는 곧 경제적 모델로 귀농을 설명할 수 없지만, 경제적 요인과 귀농결정이 관계없다는 견해 역시 설득력이 약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주장했다. 즉 이들은 서로 상호동기가 얽혀 있기는 하지만, 귀농선택과정에서는 삶의 질 가치 추구가 보다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경제적 이유는 귀농생활의 지속성 측면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청년인력의 귀농은 농촌의 인적 재생산구조 혹은 외부 공급구조를 확보하여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므로 향후 농촌정책은 고령화, 이촌향도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기보다 농촌의 활력을 주도할 활기 있는 농촌주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인구 문제는 한 가지 요인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이 전입과 전출에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설정에 맞추어 정책수립을 해나가야 한다. 셋째, 귀농시행 이후 최소한의 귀농 부적응자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즉 귀농에 대한 환상적인 사고만으로 현실성 없는 정책이 입안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귀농자 스스로 귀농정책 과정마다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정섭(2009)은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촉진하려는 정책 기획은 중앙 정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는 농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내 NGO의 역량이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임을 이야기한다. 귀농귀촌 촉진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① 지자체와 지역 내 NGO가 협력하는 가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하며 ② 귀농·귀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수준을 벗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적자

원 조직화'라는 관점을 가져야 함을 말하며 ③ 농촌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연성적 정책 프로그램(상담, 교육훈련 등)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이민수(2009)는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과 연구가 주로 귀농자들의 영농정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 귀농귀촌 정책은 영농에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유지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보다 이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영농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귀촌 집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말한다. 그 의미에서 농촌의 가족단위 소규모 사업체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유럽농업구조개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며 귀촌자가 도시지역과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기에 적소시장(niche market)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농촌 지역 소규모 기업으로 시장개척에 매우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귀촌자가 가지고 있는 높은 인적 자원의 측면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유럽의 농촌개발 전략을 실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2-3) 진안 관련 선행연구

진양명숙(2009)은 진안으로 이주한 20여명의 사람을 사례로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 이주자의 이주 동기를 보고, 농촌에의 정착과 적응을 둘러싼 그들의 일상의 경험을 포착하려 했다. 농촌으로의 주요 이주 동기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급진적이고 지나친 생태주의 의식은 관행 농업에 익숙해 있는 토착 주민에게 거부감을 일으켜 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조사 이전 익명성에 익숙한 도시 생활자들이 이주 후 주민과 관계 맺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한다. 즉 이주하기 이전 농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농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농촌형'으로의 삶의 전환이라 부른다. 농촌형은 농촌 정서를 이해하고, 농촌 사회에 맞추어 인내심을 갖고 서서히 정착하려는 사회적 적응 기제를 말한다. 도시민 농촌 이주자에게 있어, 농촌형으로의 삶의 전환은 농촌에의 정착과 적응을 향한 치열한 자기 혁신이라고 한다. 또 너른 평야보다 산과 숲이 많은 진안의 지리적 특수성을 볼 때, 농사짓지 않으려는 귀촌자가 농사지으려는 귀농자보다 많을 수 있다. 그 경우 마을이 처한 주민사회의 구조, 주민의 정서 등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존재

하고, 이것이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정책적 차원에서 진안군의 귀농정책과 농촌적 삶을 지향하며 도시에서 진안으로 이주한 한 개인의 귀농이 얼마나 합치될 수 있는지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귀농자의 귀농의 의미와 진안군 정책의 귀농의 의미가 서로 다른 선상에 놓여졌을 때 생기는 문제이다. 진안군의 귀농정책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위기에 처한 진안을 살리려는 절박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귀농자가 '대상화'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역으로 도시민 이주자는 농촌 지자체의 농업·농촌 회생전략의 진정성은 외면한 채 자신의 물적·사회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귀농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원 외(2008)는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과 귀농귀촌인 역량 DB구축 연구용역』에서 진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조사하고 그 의미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 했다. 진안군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일자리가 지역순환경제를 지향하며 귀농귀촌인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수행하며 지역 내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 진안군의 정책이 활성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활성화를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이 과정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사업 수행 주체 및 사업 참여자 간의 인식 공유의 미흡함을 해결해나가면서 풀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은 유의미한 실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과정은 학습과 훈련, 지역 내 공공조직의 구축 및 지원, 지역 내 각 주체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책임 공유, 중앙정부의 제도를 활용해 지역의 내발적 발전 도모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여기서 사회적 기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지금까지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한 진안군의 정책이 뚜렷하게 지녀왔던 의도 즉 국가 정책을 활용하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지역 중심, 주민 중심 지역개발관점, 지역 역량 강화라는 것을 꾸준히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한다. 그 의미에서 진안군의 귀농귀촌인들을 진안군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는 도구적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역의 주체로 설정해야 함을 뜻한다. 이를 위해 지역과 귀농귀촌인 간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2-3) 귀농귀촌 동기와 유형화

귀농동기는 귀농귀촌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착하는 과정에서 귀농

‘전’ 그들이 그랬던 이상과 귀농 ‘후’ 그들의 삶에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귀농귀촌 행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귀농동기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도 귀농동기를 조사했다. 그러나 귀농인들의 동기를 나열하는 데 그쳤을 뿐 그 동기를 가지고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다.

임혜영(1999)의 경우, 귀농동기를 조사하고 이후 이들을 긍정적인 집단과 중간유형, 부정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농촌 적응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집단이 농촌에 대한 적응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한다.

조록환(1998)의 경우 ① 농촌생활이나 농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집단, ② 경제적 요인으로 온 집단 ③ 건강문제로 온 집단 ④ 정년 퇴직 후의 생활을 위해 온 집단 ⑤ 영농승계로 귀농하는 집단으로 구분했다.

강대구(2007)는 ① 도시생활의 곤란 집단, ② 사업실패집단, ③ 농촌 생활 선호 집단, ④ 이상추구 집단, ⑤ 영농승계 집단(사회·윤리적 전통), ⑥ 건강문제 집단, ⑦ 퇴직 집단, ⑧ 기타 귀농 집단(결혼 후 신랑따라)으로 구분하고 이 동기별로 귀농귀촌의 정착과정에서 있는 다양한 차이를 분석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귀농동기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그쳤다면 강대구의 논의는 귀농귀촌자의 동기가 귀농정착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분석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비해 이민수 외(2009)는 ① ‘경제적 성공 추구’ 집단, ② ‘전원적 삶 추구’, ③ ‘가족생활 추구’, ④ ‘도시생활회피 추구’, ⑤ ‘영농승계 추구’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귀농·귀촌자를 유형화했다. 군지분석결과 ‘기업가형’, ‘소규모 창업형’, ‘전원형’, ‘영농승계형’으로 구분했다. 이민수의 연구는 귀농귀촌 동기를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농촌사회 발전에 이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민수 박사의 논의를 이어 귀농귀촌 동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것은 경제/생계형, 대안가치 추구형, 개인생활 효용형이다. 다른 연구들을 살펴볼 때, 전통적으로 경제/생계형이 IMF 이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요인이었다. 이 흐름이 역전되어 2003년 이후에는 대안가치 추구형이 귀농귀촌 동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이다.

이 유형화는 농촌사회발전의 틀에서 귀농귀촌을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그에 따라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경제/생계형 귀농귀촌인과 더불어 귀농운동의 차원에서 ‘대안가치 추구형’ 귀농귀촌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효용형이 정착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지역 사회에 원만하게 흡수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다.

2-4) 농촌발전에 관한 연구

전체 산업 분야에서 농업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농촌의 본질과 가치, 고유한 역할이 줄어들지는 아니다. 그 가치와 역할에 변화가 있을 뿐이며 오히려 그 중요성은 더 부각될 수 있다. 농촌은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과 공급, 경제적 일자리 제공,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국토 및 환경의 보전, 전통 및 문화의 계승이라는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가 채택되고 농업은 이를 지탱하는 보조 수단으로 취급받았고, 국제관계에서 협상용 카드로 사용되었다. 이 결과로 농촌은 공동화되고 고령화되었고, 농업의 비중은 더 낮아지며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더 요원해졌다. 그러기에 농정은 농업과 농촌주민의 관점이 아니라 성장을 최고 가치로 삼는 경제정책의 하위분야로 취급되었고 농촌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와 원동력을 농촌 내부의 자원과 문화, 인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국가와 외부자본에 맡겼다.

농촌 발전에 대한 이론으로 크게 외생적 발전전략과 내생적 발전전략이 있다. 농촌사회를 삶터, 일터, 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사회를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박진도, 2010: 172).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국가와 외부 자본이 진행하는 과거의 '하향식 접근방법'은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정책실행 과정에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지역마다 고유하게 존재하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김정섭, 2009: 105).

외생적 개발전략은 농촌의 문제를 도시와의 격차로 인식하고, 그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외부자본의 유치를 통해서 농촌을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생적 개발전략은 농촌과 도시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의 쇠퇴를 가져오고 지역의 종속적·왜곡적·파괴적 불균형 개발만을 초래했다고 비난받았다(미야모토, 2009).

외생적 개발전략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내발적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은 1980년대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유럽공동체는 농촌개발을 농업과 농촌서비스를 근대화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의 수준을 따라잡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최근 농촌지역의 개발은 그 지역의 고유한 개성과 문화적 자산에 근거하고 있다. Ray는 이 접근을 '문화적 경제'(cultural economy)라 명명하고 전통적인 문화

가 농촌 개발 네트워크의 자원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말했다(T.N Jenkins. 2000 : 309). 또한 EU는 ‘지속가능한 통합적 농촌개발(sustainable and integration rural development)’을 지향하는데,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란 농촌지역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속가능성이 농촌개발의 목적이라면, 통합성은 농촌개발의 수단과 관련된다.

유럽의 농촌개발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 문건인 유럽위원회의 『농촌 사회의 미래』(The Future of Rural Society)는 농촌개발에서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균형(balance)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촌개발의 방법론으로서 상향식(bottom up)과 지역에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local)의 요구와 사업에 맞아야 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가장 잘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안으로부터의 개발(development from within)”을 강조하였다.

내생적 발전전략은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즉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생태적)으로 통합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그리고 발전동력과 발전주체를 기본적으로 지역 내부에서 찾는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에도 지역 주체성을 중시한다. 개발을 정부나 싱크탱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NGO, NPO 등 지역 조직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 주민참가와 협동, 지방자치를 중시한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형성을 중시한다. 발전전략으로서 지역자원(자연적, 물적, 인적, 문화적, 환경적)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의 성과가 최대한 지역 내에 보전되도록 하는 것이 중시된다. 그리고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배양(capacity-building)에 두고 있다(박진도, 2005).

외생적 발전전략과 내발적 발전 전략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11> 외생적 개발과 내발적 개발 비교

구분	외생적 개발	내발적 개발
핵심원리	규모의 경제, 집중	지역 내 자연·인적·문화자원
핵심추동력	도시성장 축, 외부자연투입	지역역량, 소규모사업체
농촌지역의 역할	도시지역에 식품공급	다양성을 가진 서비스 경제
농촌개발 문제	낮은 생산성, 주변성	지역의 역량부족
농촌개발의 초점	농업의 현대화, 전문화	역량강화, 차별극복

(자료 : 이민수, 2009 : 38)

신내생적 모델은 EU의 LEADER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농촌사회학자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는 내발적 개발이 가지는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외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첫째, 내부의 자발성에 의한 사회경제개발 추구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의 개발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지역성은 외부와 내부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므로 내부의 상호작용만을 강조하는 내생적 모델은 한계가 있다. 셋째, 지역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원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과 지역을 둘러싼 정치, 제도,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지역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이민수, 2009: 38).

여기서 외부와의 연계가 중시되고 외부자원의 활용은 지역 내의 인적 사회적 자원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지역 내의 핵심 행위자들에 의해 지역적으로 배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생적 혹은 신내생적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이다. 김정섭(2009)은 상향식 모델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창과 순창의 사례를 통해 경험적 연구를 시도했다⁷⁾. 평창군은 지역 내 민간부문 주체들의 자발적인 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측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택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직접 사업에 개입하지 않고도 창의적인 세부사업 발굴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꾀하였다. 반면 순창은 대형 정책사업들을 유치하여 중앙정부 부처들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기에 대규모 자본 투자에 기초한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었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조성한 장류연구소, 장류체험관 등의 시설 및 조직을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운영하기에 너무 큰 비용 구조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창과 순창의 차이가 발생했고, 지역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자율적인 역량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내생적 혹은 신내생적 모델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들의 역량 강화

7) 평창은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농촌개발활동을 진행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여기에 기여했다. 지자체와 주민의 자체 역량으로 조직된 농업인 집단, 농정조직, 농촌관광마을, 일반 관광 분야 종사자, 연합 마케팅 조직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들이 추진한 신툐력사업을 계기로 '협치의 네트워크'(governance network)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활동이 시작될 때마다 언제나 '조직화' 사건이 발생했고, '학습' 사건이 인과적 선행조건으로 작용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금 투입은 이런 '학습-조직화' 또는 '조직화-학습' 형태의 뒤에 연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때 정책사업 성과제고의 가능성이 커졌다. 그에 반해 순창의 사례는 평창과 달리 공공 부문의 보조금 투입이 정책사업을 주도하고 주민들의 장류 생산자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성과 창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군청이 장류체험관을 직접 건립하거나 장류축제를 주도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하고 그것이 매출 증가를 낳았다. 민간 부문의 주체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학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직접적 개입과 환경적 요인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했다(김정섭, 2009: 111~116)

가 필수적이다. 국가와 외부의 자원으로 하향전달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내부에 있는 역량을 활용하고 강화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동참하는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귀농귀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지역의 자원과 전통적 문화를 연결하여 내·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농촌의 발전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자원이 이들에게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측면에서 귀농귀촌을 연구할 때, 농업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에서 이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4) 본 연구의 관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귀농귀촌의 성공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의 성공을 이야기 할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귀농동기로 보자면 '경제/생계 추구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귀농운동이 활발해지고 다른 동기를 지닌 귀농귀촌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귀농귀촌이 성공 요인은 경제적 관점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원주민과의 관계, 귀농귀촌인과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다. 이 필요성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만족과 행복, 가족관계, 지역주민과의 관계, 농촌사회의 발전 등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귀농귀촌의 성공이 다차원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가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귀농인의 시각으로만 조사했다면,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발전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귀농귀촌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지역 사회의 주민 혹은 지도자의 관점 역시 귀농귀촌 연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 역시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관계가 안정적인 정착과정을 거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양자의 관점을 비교하며 서로가 어떤 공통적인 인식을 하며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함께 고려할 때 귀농귀촌의 '성공'의 의미와 농촌사회 발전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다.

셋째 귀농귀촌인을 그 동기에 따라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으로 유형화했다. 기존의 논의가 귀농동기를 나열한 것에 그쳤다면 귀농동기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들이 각각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이룰 수 있는지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귀농귀촌 자체만을 논의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사회의 관점에서 귀농귀촌을 분석하고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집단이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에 동화되고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넷째 진안을 구체적인 사례로 선택했다. 귀농 1번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선진적인 귀농시스템을 갖춘 사례를 바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을 사례로 선택한 것은 특수한 지자체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며 오히려 귀농귀촌 일반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귀농귀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 전략에서 볼 때, 귀농귀촌인은 신내생모델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특정한 분야'에서 지역주민들보다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 역량이 원주민과의 원활한 관계 내에서 의미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학습 기회를 만드는 역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도시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로 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외부에서 온 내부인으로 지역의 발전 가능한 잠재력을 찾아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와 연결하는 접착점이 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개요

1) 연구과정

① 문헌조사

이 연구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8월 중 각종 2차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문헌연구는 국내외 귀농귀촌관련 기존 연구와 각종 2차 통계자료 등을 검토해 귀농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논문과 단행본, 정부나 지자체, 단체 등의 각종 통계치도 참고하였다. 또한 진안에 관련된 신문기사와 다양한 내부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② 예비조사

연구팀 전원이 조사 대상지역인 진안군을 9월 초부터 9월말까지 1주일에 1~2차례씩 방문, 주요 정보 제공자들인 진안군청 귀농담당직원, 뿌리협회, 귀농귀촌인, 지역 리더 등을 만나는 예비조사를 통해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③ 설문조사 기획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경우 예비조사를 거치면서 분석해야 할 변수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귀농연구팀 전원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200여개 이상의 질문을 취합, 이를 주제별로 나누고 본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로 압축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설문지는 현지 귀농귀촌전문가를 통해 2~3차례 검증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앞서 가진 조사원 교육 때 pre-test를 거쳐 설문항목을 추가 조정 후 엄선된 질문항목을 만들 모아 완성됐다.

2) 귀농귀촌연구팀 연구 과정 및 일정

본 연구의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주로 진안 현장연구와 세미나 형태의 연구회의로 나뉘지고, 일정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진행 및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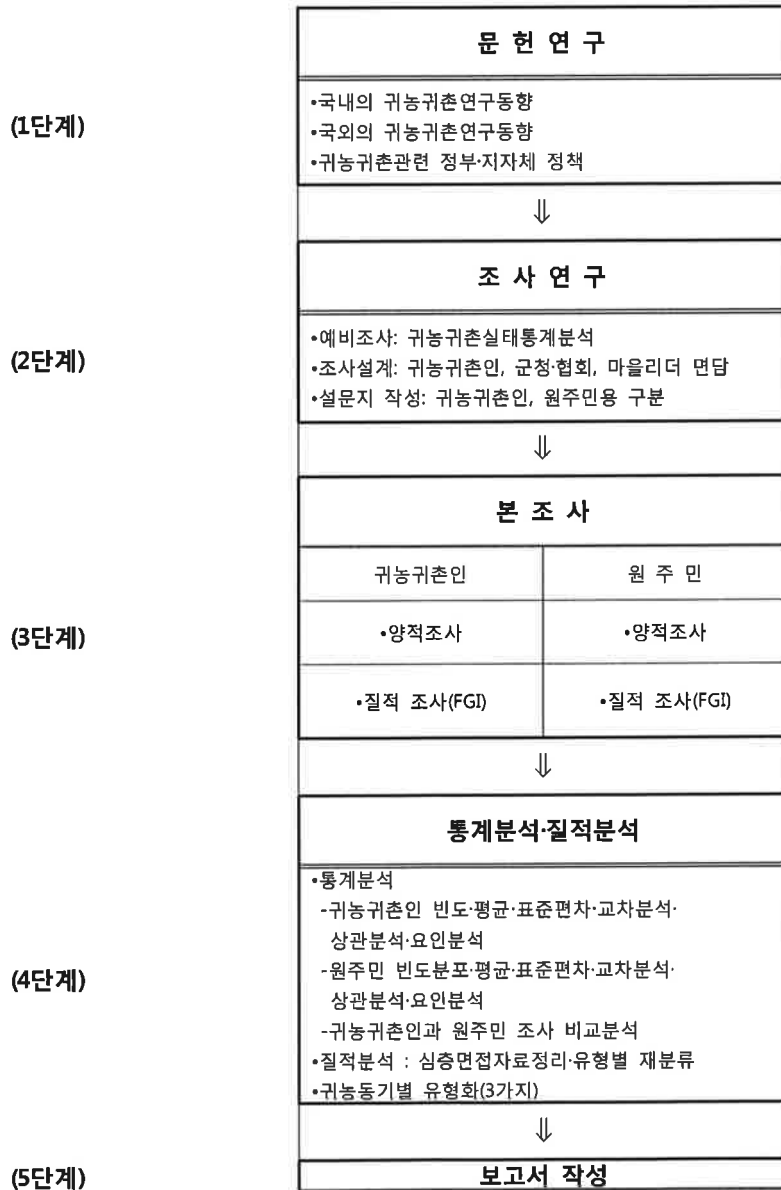
<표 3-1> 연구일정

일 자	연 구	내 용
2010. 8. 31~9. 01	진안 현장연구	능길마을·새울터마을 방문, 현지분위기 파악
9. 03	연구회의	연구용역계약사항 확인, 주제, 일정, 역할분담 토의
9. 04~05	진안 현장연구	진안군 귀농지원 담당자와 연구계획 협의 (공무원, 민간단체 - 송인하, 구자인 박사 면담) 진안군 전원마을조성사업지 새울터 답사
9. 10~11	진안 현장연구	진안 귀농인 민간단체 뿌리협회 면담 진안군 귀농행정 조사 - 구자인박사 미팅 진안군 마을지도자 대상 귀농연구 설명회 귀농인 사전조사 (부귀면)
9. 18	연구회의	귀농귀촌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주제 회의 귀농인 조사설계 및 설문지 작성회의
2010. 10. 01	연구회의	기존 조사연구 결과 분석 귀농인 설문지 회의
10. 08	진안 현장연구	귀농인 설문지 사전조사 귀농인 조사방법 협의 (조사원모집, 진안군협조) 진안군 마을지도자 회의 참관
10. 12	연구회의	귀농인 설문지 최종안 작성
10. 18~19	진안 현장연구	송영선 진안군수와 귀농연구팀 간담회 전문가 자문 / 마을지도자 면접 귀농인 설문지 최종회의·설문지 pre-test, 조사원 교육 진안군 읍면별 귀농담당 공무원 간담회
10. 25~11. 05	귀농인 설문조사 (진안현장연구)	진안군 귀농인 전수조사 (11개 읍면 600가구 대상), 357가구 응답회수, 코딩·통계적 분석 착수, 원주민 조사 설문용 사전 면접조사
2010. 11. 06	연구회의	원주민 조사 설문지 회의
11. 12~13	진안 현장연구	귀농인 조사 보완 (주천면, 정천면, 백운면) 원주민 조사 회의 (진안군 공무원) 심층면접 (마을 지도자, 정천면 우체국장)
11. 17~30	원주민 설문조사	진안군 마을지도자 1,500명 대상 (296개 마을별 지도자 5인), 467명 회수, 코딩·통계분석 착수
2010. 12. 4	연구회의	매주 토요일 연구회의 정례화
12. 05~12. 24	연구회의	자료정리, 통계분석, 중간보고서 작성
12. 26		농림수산식품부 방문, 중간보고서 제출
2011. 1. 6	진안 현장연구	주요 귀농귀촌인과 마을이장, 능길마을회장 심층면접
1. 17~20	연구회의	심층면접자료 추가분석, 결과보고자료 요약
1. 21	최종보고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관련 최종보고
1. 22	연구회의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결론 및 정책제언 관련 협의
1. 26		농림수산식품부 방문, 최종보고서 제출

3) 연구흐름도

지금까지의 연구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3-1>과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뉘지며, 단계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3-1> 연구흐름도



- | |
|---------------------------------|
| |
| •중간보고서 : 연구과정, 이론적 논의, 기초분석 등 |
| •최종보고서 : 연구결과 요약, 함의,
정책적 제언 |

2. 연구대상

1) 귀농귀촌인의 전국적인 실태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은 2009년 말 기준으로 1만5,512가구로 집계된다. IMF와 함께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귀농귀촌현상은 IMF 이듬해부터 급속히 줄었고, IMF가 종료되었던 시기에는 800여 가구 안팎으로 하향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귀농귀촌가구는 2004년을 기점으로 2003년보다 30% 정도 늘어났고 다시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2007~2008년에는 전년의 두 배 정도로 급증한데 이어,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다시 두 배 가까이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2001년부터 집계한 통계표에 잘 나타난다.

<표 3-2> 전국 귀농귀촌인 가구통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부산	-	-	-	-	-	1	-	-	-	1
대구	-	-	-	-	-	-	-	-	-	-
인천	-	1	-	16	28	2	-	-	26	73
광주	-	-	5	6	-	1	-	-	-	12
대전	1	-	-	-	-	1	-	-	-	2
울산	-	-	-	-	7	-	-	-	-	7
경기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540
강원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1,290
충북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1,113
충남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1,425
전북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2,586
전남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1,665
경북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3,865
경남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2,605
제주	56	22	31	16	7	58	48	50	40	328
계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15,512

2) 전북 진안군의 귀농귀촌인 현황

전북 진안군은 '귀농귀촌 1번지'로 떠오르는 지역이다. 2010년 기준으로 진안군의

귀농귀촌인 가구는 591가구로 전북 전체 2,586가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 시·군으로는 전국에서도 최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다. 진안군은 마이산과 용담호수로 유명하고 섬진강의 발원지이며 금강의 최상류지역이자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계이다. 대전통영간고속도로를 통해 외곽에서 진입하거나 진안읍을 관통하는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진안군은 11개 읍·면, 77개 법정리, 288개 행정리가 있고, 인구수는 2008년 말 기준으로 2만7,497명(남자 1만3,795명과 여자 1만3,702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북 진안군이 귀농귀촌1번지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자체가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진안군에는 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 팀을 전국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팀에는 10년 전부터 박사학위 소지자를 별도로 채용해 기획부터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까지 전담토록 해 다른 시·군과 차별화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다 귀농귀촌활성화센터, 도농교류센터, 뿌리협회를 운영하며 귀농귀촌에 가장 적합한 지역임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아울러 진안군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마을간사협의회,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 등을 별도로 두고 상향식 발전을 꾀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 <표 3-3>은 각 11개 읍·면별로 귀농귀촌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귀농귀촌인은 백운면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부귀면, 진안읍, 성수면, 동향면이 뒤를 잇고 있다.

<표 3-3> 진안군 귀농귀촌인 현황 집계표

읍 면 별	세대수	명	비 고 (2010년 1- 6월)
계	591	1,448	61세대 137명 (신42/105, 누 19/32)
진안읍	62	110	신규 5/10 누락 5/6
용담면	47	99	-
안천면	50	133	신규 4/12 누락 2/8
동향면	57	163	신규 5/16
상전면	24	51	신규 2/3
백운면	105	249	누락 3/4
성수면	61	144	신규 5/17
미령면	33	89	신규 2/3 누락 1/2
부귀면	70	202	신규 6/20
정천면	33	80	신규 9/20 누락 1/2
주천면	49	128	신규 4/4 누락 7/10

(진안군청, 2010년6월말)

3) 원주민

귀농귀촌연구 관련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관계성 뿐 아니라 원주민이 귀농귀촌인 혹은 귀농귀촌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귀농귀촌 관련연구는 귀농귀촌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관련 정책의 유효성 검증수준에서 끝났던 것이 현실이다. 귀농귀촌인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마을이나 원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원주민들이 귀농귀촌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귀농귀촌인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가를 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원주민이 귀농귀촌 현상과 귀농귀촌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귀농귀촌연구에 포함함으로써 이전의 연구와 차별화를 꾀하고자 했다. 하지만 진안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과 관련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원주민은 각 마을에서 이들과 직간접 관계를 보다 많이 맺을 수 있는 마을이장 등 지

도자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게 보다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과 협의과정에서 파악되었다.

<표 3-4> 진안군 마을 인구현황

읍면별	세대수	합계	남자	여자	외국인 합계	남 자	여 자	65세 이상 고령자
진안	4,547	10,890	5,455	5,435	87	27	60	2,354
용담	481	924	448	476	4	0	4	284
안천	518	1,113	534	579	10	1	9	399
동향	732	1,607	754	853	26	3	23	499
상전	443	1,016	530	486	5	0	5	260
백운	959	2,133	1,072	1,061	21	3	18	677
성수	939	2,075	1,032	1,043	22	7	15	603
마령	931	2,177	1,132	1,045	30	13	17	638
부귀	1,145	2,678	1,391	1,287	32	13	19	678
정천	465	1,128	577	551	7	0	7	313
주천	795	1,756	870	886	23	1	22	587
합계	11,955	27,497	13,795	13,702	267	68	199	7,292

(진안군청, 2009)

3. 설문지 구성

1) 설문지 구조

① 귀농귀촌인 대상 설문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다음 7가지 항목으로 크게 구분했다. 즉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귀농귀촌을 하고 얼마나 준비기간을 거쳤는지를 묻는 '귀농준비와 동기', 귀농귀촌인이 어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태도를 파악하는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관계-커뮤니티',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 간의 갈등양상과 가족 간의 관계를 묻는 '사회적 관계-주민/가족 간 갈등', 귀농귀촌인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귀농에 대한 자기평가', 귀농귀촌이 농촌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귀농과 농촌사회발전', 정부·지자체 등의 정책실효성을 알아보는 '귀농정책평가', 끝으로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귀농귀촌인의 개인적 특성' 등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5> 귀농귀촌인 대상 설문지 구조

내 용	세부 설문 항목
귀농준비와 동기	- 귀농 준비기간 - 귀농동기 - 준비과정
귀농귀촌인의 사회적관계 -커뮤니티	- 사회적 관계 - 지역의 모임이나 활동 - 귀농귀촌인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
사회적 관계-주민/가족 간 갈등	- 갈등대상 - 갈등경험 - 갈등요인 - 갈등대응방식 - 갈등조정 - 부부관계변화 - 배우자의 태도와 의견 - 자녀의 태도와 의견
귀농에 대한 자기평가	- 성공 평가 - 성취에 대한 태도 - 성공적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요인 - 정착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 - 귀농귀촌 실패이유 - 귀농귀촌시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조직 - 향후 귀농귀촌에 대한 의향 - 귀농귀촌후 삶의 변화
귀농과 농촌사회발전	- 한국농촌사회 발전에 기여 - 현재 거주마을의 발전에 기여 - 농촌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신뢰 - 마을 주민에 대한 소감
귀농정책평가	- 기존 귀농귀촌정책에 대한 평가 - 진안군의 귀농귀촌정책 평가 -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인 개인적 특성	- 성별, - 나이, - 최종학력 - 최초 귀농지, - 진안 오기 전 거주지 - 귀농귀촌형태(U-J-I turn), - 종교, - 귀농연도 및 연령, - 가족원, - 귀농 전 직업 - 귀농 후 직업, - 영농면적, - 주 수입원, - 한 달 동안 적정한 소득, - 연간 소득

② 원주민 대상 설문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도 7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즉 원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을 어떻게 평가하고 귀농귀촌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에 관한 '마을특성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의식',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관계·모임 참여정도를 묻는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관계-community',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상황을 파악하는 '사회적 관계-주민·가족 간 갈등', 원주민 관점에서 귀농귀촌인의 성공·실패요인을 묻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조건', 귀농귀촌인의 마을·농촌사회 기여도와 부정적 영향 등에 관한 '귀농귀촌과 농촌사회 비전', 정부·지자체 등의 정책실효성을 묻는 '귀농정책평가', 끝으로 응답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개인적 특성' 등이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6>원주민대상 설문지 구조

내 용	세부 설문 항목
마을특성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귀농귀촌 적합도 - 마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귀농귀촌인에 대한 태도 - 귀농귀촌인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반응 - 귀농귀촌인에 대한 평가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관계-comm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인과의 관계 - 귀농귀촌인들의 모임 참여정도
사회적 관계-주민·가족 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인과의 갈등경험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갈등정도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갈등이유 - 귀농귀촌인과 갈등시 대처방식 - 귀농귀촌인과 갈등시 조정자
귀농귀촌인의 성공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의 성공을 위한 사항 - 귀농귀촌인의 실패이유
귀농귀촌과 농촌사회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인의 마을발전에 기여정도 -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발전기여 - 귀농귀촌인의 마을에 대한 부정적 영향 - 농촌마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귀농귀촌인
귀농정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정책이 농촌사회발전 기여도 - 진안군의 정책지원과 원주민에 지원과의 형평성
개인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나이, - 거주기간, - 거주지역 - 최종학력, - 역할, - 연간소득, - 농사규모

4. 조사와 분석

1) 조사방법

① 귀농귀촌인

진안군청과 뿌리협회에서 파악한 진안군 귀농귀촌인 전체 591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키로 하고 1차 조사 대상을 거주주로 하고, 부재 시에는 배우자나 가족원으로 한정했다.

각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진안군에 귀농귀촌해서 각종 모임에 활동적인 지역주민 11명을 마을조사단으로 선발한 뒤 11개 읍·면에 1명씩 파견, 1대1 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귀농귀촌인 조사를 귀농귀촌인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기본적인 rapport를 형성, 양질의 답변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전체 591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한 결과 접근이 안 되는 200여명을 제외하고 약 400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이중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이 많거나 대리조사 등의 의심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357명(60%)에 대해 통계 분석을 했다.

② 원주민

진안군청 행정문서 수발신 경로를 이용, 11개 읍·면, 296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1차 할당된 뒤 각 읍·면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마을별로 이장·부녀회장·노인회장·새마을지도자·개발위원장 등 5명씩 모두 1,500여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뒤 이를 추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모두 467명(32%)의 샘플을 확보, 분석했다.

2) 분석내용

①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등)
- 귀농귀촌인의 개인적 특성과 주요 변수와의 교차분석
- 귀농귀촌인 관련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 귀농귀촌인의 귀농동기 등에 관한 요인분석
- 귀농귀촌의 동기에 따른 유형화와 분산분석

- 귀농귀촌의 유형에 따른 성공도에 관한 상관분석
-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통한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변수파악

② 원주민

- 원주민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등)
- 원주민의 개인적 특성과 주요 변수와의 교차분석
- 원주민 관련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 원주민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태도관련 변수분석
- 원주민이 바라보는 귀농귀촌 관련 문제점 분석
-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협력을 통한 농촌사회 활성화 변수 분석 등

③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공통질문에 대한 비교분석

-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주요 변수 결과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
-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주요 변수 결과치 차이에 대한 요인파악
-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공통변수에 대한 차이해소를 통한 농촌사회 활성화 방안분석 등
- 원주민중 리더그룹과 일반 주민들 간의 귀농귀촌에 대한 태도 및 행동방식에 대한 차이 분석

3) 분석도구

- PASW SPSS 18

4) 질적 접근(FGI·표적집단면접법)

귀농귀촌인은 물론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통계적 접근으로 드러나지 않는 귀농귀촌 문제를 파악코자 귀농귀촌인 가운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귀농귀촌인들에 대해 영향력을 갖는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9~10월 현장방문 시마다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한 바 있다.

특히 진안군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구자인 박사 등 공무원, 뿌리협회 관계자, 마을간사 등을 집중 면담했고, 진안군마을만들기위원장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에도 참석, 참여관찰을 하는 등 귀농귀촌이 어떻게 농촌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코자 했다.

설문조사원으로 참여했던 귀농귀촌인과 마을이장 등을 2011년1월6일 진안군뿌리협회로 초청, 통계적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파악코자 심층면접을 했다. 아울러 능길마을을 방문, 위원장으로부터 진안군의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상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청취하고 심층면접을 가진바 있다. 아울러 일본 교토대에서 한국의 귀농연구를 위해 방문한 아키즈 교수 등과도 일본의 귀농귀촌 실태를 부분적으로 청취한바 있다.

본 통계조사에서 분석이 제외된 고립형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도 별도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즉 본 조사에서 응답한 귀농귀촌인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들과 친분이 있거나, 조사에 응한다는 자체가 귀농귀촌에 긍정적인 성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중 '개인생활효용형'은 다양한 층으로 분류되는데, 정년 후 농촌에서 편안히 여가를 보내기 위해 은퇴한 연금생활자의 경우 마을 주민들과 접촉을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귀농귀촌동기와 그 후 정착과정,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 느끼는 생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별도 진행해 그 내면을 들여다봤다.

또 귀농귀촌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귀농귀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 사례도 본 통계조사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귀농을 했으며 어떤 문제로 인해 귀농귀촌을 포기하고 도시로 돌아갔으며 귀농귀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파악코자 별도의 사례를 찾아 심층면접, 본 연구의 통계적 취약점을 보완코자 했다. 귀농귀촌 포기자의 경우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전화로 인터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5) 유형화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유형화를 시도했다.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귀농귀촌인을 다양한 형태로 유형화를 시도했지만 체계화된 유형화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형화는 각 유형을 특징짓는 지표(index)를 최도로 구성한 뒤 이를 축으로 해서 서로 다른 유형을 구분해 가는 사회과학방법론이다. 물론, 이렇게 구분되는 각 유형은 동일 범주 내에서 충분하고 완벽히 포괄적이어야 하고 다른 범주 간에는 상호배타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런 전제하에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동기를 주요 지표로 해 유형화(typology)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언급했다. 특히, 귀농귀촌 동기는 귀농귀

촌인의 지향성(intention)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차후 농촌에서의 적응과정에 그대로 현실화돼 개인적인 생활면에서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구체화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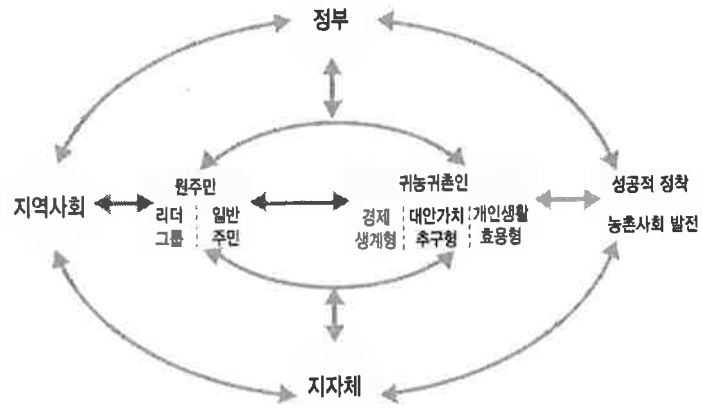
더구나 귀농귀촌에 대해 주요 변수인 동기를 구분해 유형화한 것은 본 연구가 진안 사례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차후 다양한 지역에서 귀농귀촌을 분석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공코자 하는 선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기인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중요시 한 동기에 따른 유형화는 앞으로 지표를 다시 만들어 재구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동기를 명확히 구분해 유형화를 세련화 시켜 나간다면 보다 정확히 귀농귀촌인의 특성을 구분하고 맞춤형 정책,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의 유도를 통해 향후 베이비붐 세대 등의 귀농귀촌을 촉진시켜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인식이 다.

6) 조사분석의 개념도

본 연구의 조사 분석 개념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이 농촌사회 발전과 연결된다는 주제를 갖고 귀농귀촌을 둘러싼 구조적 요인과 다양한 행위자들을 분석한다. 귀농귀촌인을 유형화하여 그 특성과 관계가 어떻게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과 연관되는지를 파악한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원주민들은 마을리더와 주민으로 구분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나아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차이를 비교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요인을 강조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3-2> 조사연구 분석의 주요 개념도



IV. 귀농귀촌 설문조사 결과

1. 조사응답자의 특성

- 진안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591가구(2010년 6월 기준)를 모집단으로 삼아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조사에서 표집된 귀농귀촌인 조사대상자는 356명이다.
- 본 조사의 분석에 활용된 진안군 귀농귀촌인 356명의 조사응답자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4-1> 귀농귀촌인 조사응답자의 특성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88	81%
	여	67	19%
학력	중졸이하	80	22.9%
	고졸	132	37.7%
	전문대/대졸이상	138	39.4%
연령	20-30대	54	15.3%
	40대	107	30.3%
	50대	108	30.6%
	60대이상	84	23.8%
직업(현)	무직	64	18.1%
	전업농	138	39.1%
	겸업농	71	20.1%
	비농업인	80	22.7%
소득(년)	1000만원미만	63	20.4%
	1000만~3000만원	157	50.8%
	3000만원이상	89	28.8%
영농규모	1000평 미만	186	52.2%
	1000평~3000평	96	27.0%
	3000평 이상	74	20.8%

- 조사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소개한다. 학력은 중졸 이하가 응답자 356명 가운데 80명으로 22.9%이고, 전문대졸 7.7%, 대학졸업자 27.4%, 대학원이상 학력 소지자가 4.3%였다.

- 조사응답자의 연령분포대는 25세부터 80세까지로서, 20대가 4명, 30대가 50명이었다. 40대와 50대가 각각 30% 정도로 비슷한 규모였고, 이들 4~50대를 합치면 전체의 60%에 이르러 조사응답자 가운데 4~50대가 가장 많은 연령대에 속했다.
- 직업은 현재 영농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무직(전업주부 포함)이 18.1%, 전업농 39.1%, 겸업농이 20.1%, 비농업인이 21.7%로서 조사응답자 귀농귀촌인 가운데 59.2%(209명)가 어떤 형태로든 농사를 짓고 있었고 나머지 40.8%는 귀농귀촌인이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 겸업농은 농업과 다른 직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농업의 소득이 더 크다고 응답한 사람(16.4%)이 겸업농이되 농업 소득이 더 크다고 응답한 사람(3.7%)보다 많았다.
- 소득수준은 연소득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었다.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63명(20.4%)이었는데, 이 중 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3.3%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안정적인 귀농귀촌 생활에 필요한 적정소득을 함께 물었다.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평균치 기대소득은 월평균 약 20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 영농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논과 밭의 규모를 각각 응답하게 한 뒤, 이를 합쳐서 계산하였다. 경작규모가 1000평 미만인 경우가 52.2%로 가장 많았다.

2. 귀농귀촌 행태와 특성

1) 귀농귀촌인의 특성

(1) 귀농 전 직업

- 귀농귀촌하기 이전의 직업은 사무/서비스/기술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

았다(31.8%). 다음으로 종업원 9명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했던 자영업자들의 귀농귀촌 비율이 높았다(24.1%). 이어서 전문직(교사, 교수, 간호사, 예술 언론인 등)과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일했던 관리직(공무원, 기업체임원 등) 종사자들이 약 19%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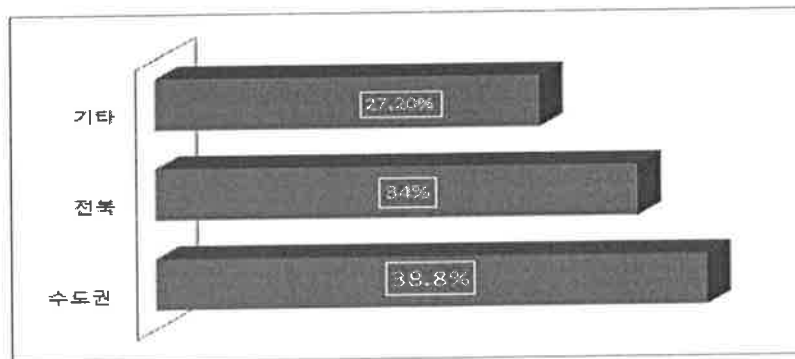
<표 4-2> 귀농 전 직업

		빈도(명)	퍼센트(%)
직 업 유 형	자영업	85	24.1
	블루칼라노동자	34	9.7
	사무/서비스/기술직	112	31.8
	전문관리직	66	18.8
	전업주부	25	7.1
	기타	30	8.5
	합계	352	100.0

(2) 귀농 전 거주지역

○ 진안으로 귀농귀촌하기 이전에 살던 곳을 조사하였다. 주로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귀농귀촌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는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였던 사람들이 38.8%(13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북 34%(121명), 그 외 지역이 27.2%(97명)로 나타났다.

<그림 4-1> 귀농귀촌 이전 거주지역



(3) 귀농경험과 진안선택 이유

- '진안이 최초 귀농지'인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2%에 해당하는 324명이 '그렇다'고 응답. 두 번째 이상의 귀농지로 선택한 이들은 28명으로 전체의 8%에 해당

<표 4-3> 진안을 귀농지로 선택한 이유(단위 : 명/%)

	빈도	유효 퍼센트
전에 살던 도시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31	8.8
직장 학교로의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해서	8	2.3
고향이나 친척이 사는 등 연고가 있어서	149	42.2
선후배 친구 등 지인이 살고 있어서	30	8.5
농업 등 소득 창출이 용이해서	4	1.1
자연환경이 좋아서	74	21.0
생활환경이 편리해서	3	.8
장래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6	1.7
선진 귀농 일반 지리는 명성 때문에	1	.3
귀농인이 많은 곳이어서	4	1.1
지자체의 귀농 지원 정책이 잘 되어서	1	.3
기타	42	11.9
합계	353	100.0

- 진안을 귀농지로 선택한 이유로 연고지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U턴형 귀향인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두 번째로 높게 나온 항목은 진안이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이었다. 고원지대로서 천혜의 생태적 자연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발의 때가 더 묻은 지역으로서 자연환경 보존이 잘 이루어진 점이 귀농인들의 선택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토피 치료나 건강을 목적으로 한 도시 이주자들에게 선택적인 유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선후배 친구 등 지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귀농생활을 함께 하고자 진안을 귀

농지로 선택한 귀농인들은 30명이었다. 귀농일번지라는 명성이나 귀농지원정책이 진안으로 귀농인들이 들어온 이유로는 낮게 나왔다. 현재 진안에 거주하는 귀농인들은 진안이 귀농 선진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귀농지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 귀농귀촌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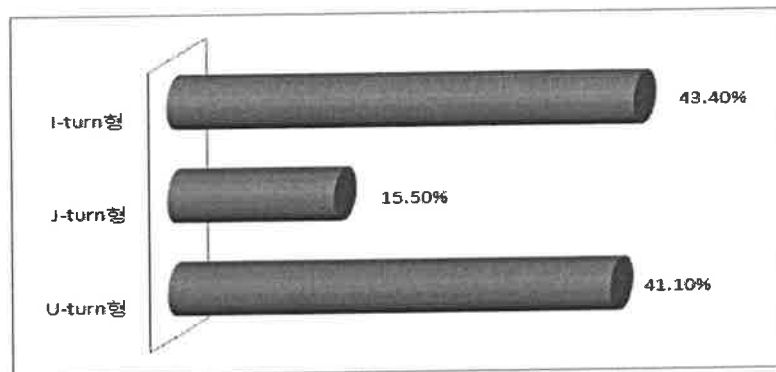
-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귀농귀촌 형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지역 출신으로 고향으로 귀향한 경우(U-turn형), 타지역 농촌 출신으로 고향이 아닌 농촌지역으로 귀농 귀촌한 경우(J-turn형), 도시출신으로 농촌으로 귀농귀촌한 경우(I-turn형). 진안군에 귀농귀촌한 조사자들을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4-4> 귀농귀촌 형태

	빈도(명)	비율(%)
진안출신으로 고향이나 인접마을로 귀농귀촌 (U턴형)	143	41.1
타지역 농촌 출신으로 진안 귀농귀촌 (J턴형)	54	15.5
도시출신으로 진안으로 귀농귀촌 (I턴형)	151	43.4
합계	348	100.0

- 이와 같이 귀농귀촌 경로를 기준으로 파악한 유형으로 분류하면, 조사 응답자 가운데 U턴형이 41.1%, J턴형이 15.5%, I턴형이 43.4였다. I턴형 귀농귀촌인이 가장 많다는 점과 U턴형 비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4-2> 귀농귀촌 형태 (I/U/J턴형)



(5) 귀농연도와 귀농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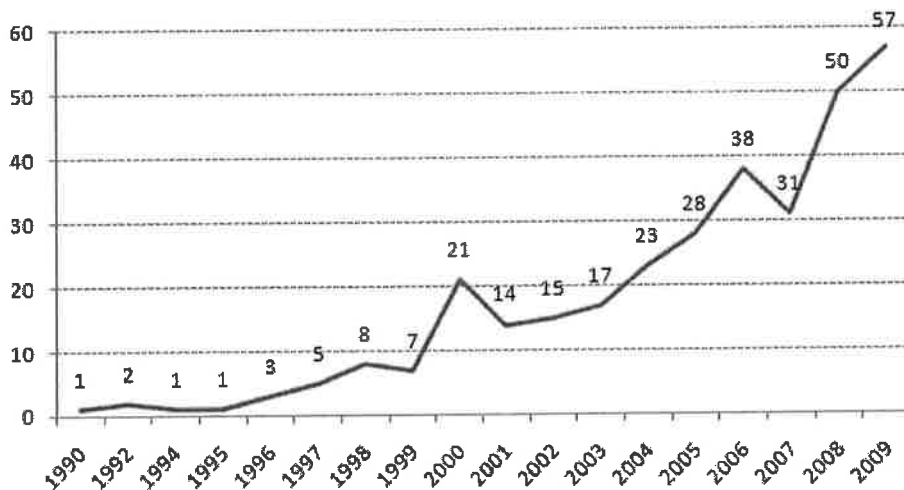
○ 귀농시기는 4개의 시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997년 IMF경제위기 이전 귀농한 사람은 조사 응답자의 3.8%(13명)에 그쳤다. 조사응답자 가운데 2008년 이후에 귀농한 사람들, 즉 귀농한 지 만 2년 이내의 귀농인들이 12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7.3%로 비교적 최근에 귀농한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5> 귀농연도

	빈도(명)	비율(%)
1990-1997	13	3.8
1998-2004	105	30.6
2005-2007	97	28.3
2008년 이후	128	37.3
합계	343	100.0

○ 귀농귀촌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에 귀농한 조사자가 21명으로 전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후 각 년도별로 비슷한 수치로 유지되다가 2006년 귀농한 이들이 38명으로 비중이 높았고(11%), 다시 2008년에 귀농한 이가 50명, 2009년에 귀농한 응답자가 57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3> 조사응답자의 귀농귀촌 연도 추이



- 귀농시점을 다시 귀농기간으로 환산해보면, 귀농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7.3%(128명)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4~6년이 28.3%, 귀농한 지 7년 이상된 귀농인 응답자가 34.4%(118명)을 차지하고 있다.
- 조사자의 평균 귀농기간은 5.7년으로, 최소 1년 미만에서 21년까지 분포되어 있다(표준편차=3.8169)

<표 4-6> 귀농기간

	빈도(명)	비율(%)
3년 이내	128	37.3
4년-6년	97	28.3
7년-9년	55	16.0
10년이상	63	18.4
합계	343	100.0

(6) 가족관계

- 진안군 귀농귀촌인들의 가족과의 동거현황을 살펴본 결과, 혼자 살고 있는 귀농인이 68명으로 전체의 19.3%, 1인 가족이 123명으로 34.8%, 2인 이상이 163명으로 전체의 45.9%에 해당하였다.

<표 4-7> 동거가족 수

	빈도(명)	비율(%)
혼자살고 있음	68	19.3
1인	123	34.8
2-3인	125	35.4
4인이상	37	10.5
합계	353	100.0

- 동거가족 형태는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대부분(80.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본인 외 1인 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그리고 1 자녀를 데리고 사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부부가 귀농귀촌해서 함께 살고 있는 형태가 26.3%이고, 부모를 모시고 사

는 경우가 6.2%, 자녀만 데리고 사는 비율이 7.1%였다.

<표 4-8> 동거가족 형태

	빈도(명)	퍼센트(%)
독거	68	19.3
부모	22	6.2
배우자	93	26.3
자녀	25	7.1
부모+배우자	8	2.3
부모+자녀	9	2.5
배우자+자녀	112	31.7
부모+배우자+자녀	16	4.5
합계	353	100.0

2) 귀농귀촌 준비와 동기

(1) 귀농준비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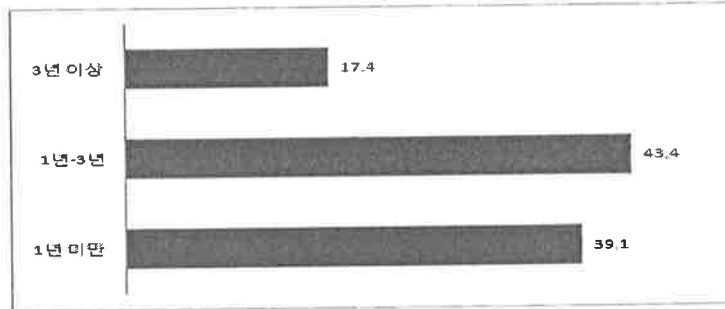
- 귀농귀촌을 결정한 이후 귀농귀촌을 얼마나 준비했는가를 물었다. 조사자의 39.1%에 해당하는 137명이 준비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3년 이상 준비한 귀농인은 61명으로서 전체의 1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9> 귀농 준비기간

	빈도	비율(%)
1년 미만	137	39.1
1년이상-2년미만	76	21.7
2년이상-3년미만	76	21.7
3년 이상	61	17.4
합계	350	100.0

- 조사응답자를 기준으로 진안군 귀농귀촌인의 평균 귀농준비 기간은 25.3개월, 즉 1년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4> 귀농 준비 기간



(2) 귀농 준비과정 평가

- 귀농귀촌 준비과정을 항목별로 스스로 평가하도록 했다. 준비과정이 매우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최소값 1점으로 하고, 매우 잘되었다라는 평가를 최대값 5점으로 측정했을 때, '농촌 지역사회와 마을주민과의 관계 준비'가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과 비교해서 준비가 더 잘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 뒤이어 '귀농·귀촌 삶에 대한 정신, 가치, 철학'에 대한 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반면에, 영농기술과 경험에 대한 준비가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정착 기반이 되는 돈이나 토지를 준비하는데 소홀히 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귀농 준비과정 자기평가 (단위 %)

귀농준비 평가항목	미흡	보통	잘됨	평균
귀농·귀촌 삶에 대한 정신, 가치, 철학	26.7	43.7	29.6	3.0431
정착기반(자금이나 토지 등)	43.3	35.8	20.9	2.6332
주거 공간 확보	28.9	35.1	36.0	3.0170
영농/경영 기술과 경험	55.1	30.3	14.6	2.3800
주변 사람의 지지(부모, 가족 및 친구)	26.4	44.7	28.9	2.9370
농촌 지역사회와 마을주민과의 관계 준비	26.2	38.9	34.9	3.0519
농촌사회와 지역에 대한 이해	31.7	42.4	25.9	2.8832

(3) 귀농귀촌동기와 유형 분류

- 귀농귀촌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도시적 삶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영위하고자' 위함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2.9%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생태, 공동체, 소박한 삶과 같은 가치추구형 귀농귀촌 동기를 지목한 이들도 전체의 12.7%에 해당한다.

<표 4-11> 귀농귀촌 동기

	빈도	유효 퍼센트
집안의가업이름	27	7.6
농사일이좋아서	16	4.5
자신과가족의건강때문에	63	17.8
은퇴후여가생활을위해서	19	5.4
가족친지와가까운곳에살고싶어서	26	7.3
자녀교육을위해서	6	1.7
도시보다생활비가적게들어서	11	3.1
농업농촌관련사업을위해	17	4.8
농촌이향후투자 가치가높아서	8	2.3
추구하는가치(생태, 공동체)를찾아	45	12.7
도시적삶에서벗어나조용히전원생활을하고자	81	22.9
새로운일자리를찾기위해서	9	2.5
자신의역량으로농촌사회발전에기여하기위해	7	2.0
기타	19	5.4
합계	354	100.0

- 귀농귀촌동기를 묻는 질문 항목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이유들로 설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동기를 다시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귀농귀촌동기는 귀농귀촌 이전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로 귀농귀촌한 이후의 삶에서 귀농귀촌의 생활방식과 행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는 귀농동기 유형별로 귀농동기가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동기와 행태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의 유형을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4-12> 귀농귀촌 동기 유형 분류

구분	빈도	비율(%)
경제생계형	73	21.7%
가치추구형	155	46.1%
생활효용형	108	32.1%
전체	336	100%

- 첫째, '경제생계형'은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귀농귀촌한 집단으로 가업을 이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관련 사업 및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설문항에서 집안의 영농승계,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위해, 농촌이 향후 투자가치가 높아서, 도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에 경제생계형으로 유형화시켜 재분류하였다.
- 둘째, '대안가치추구형'은 경제적 목적과 개인적인 효용을 넘어서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과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이들은 귀농귀촌의 동기와 생활방식에서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며, 나아가 농촌공동체의 의의와 자연생태계의 보존을 중시하는 귀농귀촌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농(農)의 가치를 실현하고 농촌의 자연 생태적 삶 속에서 마을 발전과 자신의 귀농귀촌의 삶을 연결짓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을 갖는 귀농귀촌동기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문항에서 생태·공동체·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서, 농사일이 좋아서, 도시적 삶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하고자,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안가치추구형'에 포함시켰다.
- 마지막으로 '개인생활효용형'은 귀농귀촌의 동기와 귀농귀촌한 이후의 삶의 목적이 주로 자신과 가족 개인의 생활상의 편의나 효용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건강, 여가, 가족과 같이 생활 속의 개인적 효용을 위해서 귀농귀촌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의 아토피 치유를 위해 한시적인 기간 동안 농촌마을에 내려와 있는 경우나, 인생 휴가형이라 부르는 것처럼 노후의 삶을 농촌에서의 여가활동을 통해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해당

한다. 설문항에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 때문에,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가족 친지와 가깝게 살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귀농귀촌인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 귀농귀촌 동기유형을 이주패턴별 유형(U턴, J턴, I턴형)과 교차 비교한 결과, 대안가치추구형은 I턴형이 가장 많았으며(57.5%), 경제생계형(63.4%)과 개인생활효용형(51.4%)은 U턴형이 많았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공동체적 가치를 찾아 귀농귀촌한 대안가치추구형은 주로 대도시에서 태어나 농촌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고, 경제적 목적이나 생활 상의 효용을 위해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로 돌아온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3> 귀농귀촌 유형과 귀농귀촌 형태의 비교(교차분석) (단위: 명, %)

		귀농귀촌형태			전체
		U턴형	J턴형	I턴형	
귀농귀촌 동기유형	경제생계형	45 63.4	9 12.7	17 23.9	71 100
	가치추구형	35 22.9	30 19.6	88 57.5	153 100
	생활효용형	54 51.4	14 13.3	37 35.2	105 100
전체		134	53	142	329
		40.7	16.1	43.2	100

Pearson Chi-Square .000

- 귀농귀촌인 유형별로 특성을 살펴보았다. 진안군을 귀농귀촌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었다. 경제생계형과 개인생활효용형은 귀농귀촌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향이나 친척 등의 연고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생계형 응답자의 53.4%와 개인생활효용형의 58.9%가 고향이나 친척, 지인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대안가치추구형은 진안군의 자연환경을 선택의 이유로 꼽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27.9%)
- 귀농귀촌 동기 유형별로 학력수준을 비교할 때,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들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가치추구형 응답자의 49.1%가 초대졸 이상 고학력자로서 다른 유형보다 20%이

상 높았다.

<표 4-14> 귀농귀촌 유형별 학력 비교 (단위: 명, %)

		학 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귀농 귀촌 유형	경제적동기	17	33	7	16	73
		23.3	45.2	9.6	21.9	100
	가치추구형	25.0	52	14	60	151
		16.5	34.4	9.3	39.8	100
	생활효용형	34	41	5	27	107
		31.8	38.3	4.7	25.2	100
계	76	126	26	103	331	
	23	38.1	7.9	31.1	100	

Pearson Chi-Square=.009

- 귀농귀촌 유형별로 연령 차이도 존재한다. 은퇴 후 여가생활을 귀농귀촌의 동기로 포함하고 있는 개인생활효용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다.

<표 4-15> 귀농귀촌 유형별 연령 차이 (분산분석)

	응답수	평균	표준오차	F값	유의확률
경제생계형	72	49.53	1.22	3.336	0.037*
가치추구형	153	50.88	0.81		
생활효용형	108	53.44	1.10		
계	333	51.42	0.58		

- 귀농귀촌 후 일하고 있는 형태도 귀농귀촌 유형 집단별로 차이가 드러났다. 경제생계형은 전업농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53.4%). 개인생활효용형도 전업농이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30.5%). 은퇴 후 여가생활자나 건강 상의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한 귀농귀촌이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대안가치추구형은 다른 동기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2종겸업(농업외소득이 많음)이나 비농업직 종사자가 많았다.

<표 4-16> 귀농귀촌 유형별 현재 직업형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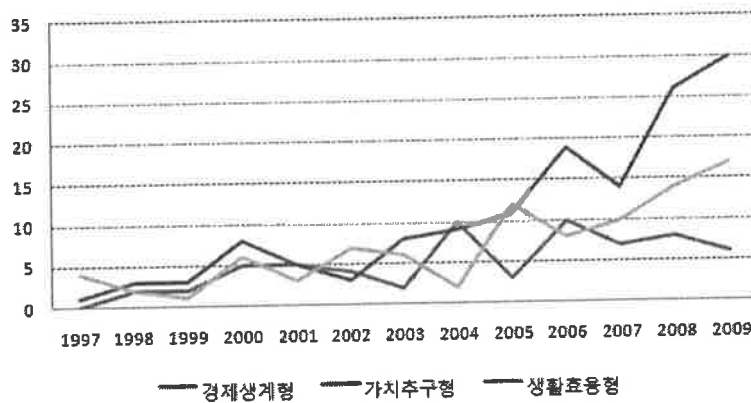
		현재 직업형태					
		무직	전업농	1종겸업	2종겸업	비농업직	계
귀 농 귀 촌 유 형	경제적동기	5.0	39	4.0	9.0	16.0	73
		6.8	53.4	5.5	12.3	21.9	100
	가치추구형	24.0	51	4.0	33.0	40.0	152
		15.8	33.6	2.6	21.7	26.3	100
	생활효용형	33.0	44	5.0	12.0	14	108
		30.6	40.7	4.6	11.1	13.0	100
Total		62.0	134.0	13.0	54.0	70.0	333
		18.6	40.2	3.9	16.2	21.0	100

○ 흥미로운 점은 본 조사의 결과에서 귀농귀촌 시기별로 귀농귀촌 유형의 변화 추세가 감지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2000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진안군에서 귀농귀촌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두 시점을 잡아 귀농귀촌인 유형별로 비중을 조사하였다. 2006년도와 2009년도를 보면, 경제생계형 귀농귀촌인은 줄고, 개인생활효용형과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17> 년도별 귀농귀촌 유형 집단의 변화

	2000년		2006년		2009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제적동기	5	26.3	10	27.0	6	11.3
가치추구형	8	42.1	19	51.4	30	56.6
생활효용형	6	31.6	8	21.6	17	32.1
계	19	100	37	100	53	100

<그림 4-5> 귀농귀촌 유형별 귀농귀촌의 년도별 추이



3. 귀농귀촌인의 사회적관계와 가족관계

1)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사회적 관계

-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와 마을 토착주민과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귀농귀촌 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과 마을 주민의 일원으로서 어떤 생각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 귀농귀촌인들은 대부분 마을주민과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 상호 간에도 친밀하게 지내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과 비교할 때 친밀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오히려 귀농귀촌인들과 친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행정 공무원들과의 친화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특히, 조사응답자의 27.3%에 해당하는 귀농귀촌인들이 진안군 행정 및 공무원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행정적 지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8>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사회적 관계

항 목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귀농귀촌인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13.8	37.5	48.7	3.4817
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5.9	31.9	62.2	3.7718
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지도자(이장 등)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9.9	33.7	56.4	3.7139
나는 진안군 행정 및 공무원과 소통이 잘 되고 협조를 잘 받는다.	27.3	37.2	35.5	3.0795
나는 가급적 마을주민이나 마을 일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	51.0	28.8	20.2	2.5185
나는 마을주민과 지역에 괴리감(서로 달라 통하지 않는 느낌)을 느낀다	54.8	29.4	15.8	2.4052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 주민(공동체)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5	27.3	66.2	3.8839
나는 거주하는 마을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애乡심을 갖고 있다	7.4	29.9	62.7	3.8177
나는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융화되려고 노력한다	3.9	23.3	72.8	4.0028

- 마을주민들과 마을 일과 사회적 거리감을 두거나 인지적 괴리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다. “가급적 마을주민이나 마을 일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고 응답한 귀농귀촌인은 전체의 약 20%에 달했으며,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며 정서적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조사응답자의 약 16% 정도 존재했다.
- 귀농귀촌인들은 지역사회와 마을주민의 한 사람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매우 높게 갖고 있으며, 마을주민과 지역공동체와의 결속감이나 소속감도 높고, 지역사회에 동화되려는 노력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을 농촌사회와 마을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귀농귀촌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된 항목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주민(공동체)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동의한 정도가 65%로서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정체성과 주체성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자의 62%가 마을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을 갖고 있는가란 질문에 동의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정서적 결속감을 표현하였다.
- 가장 주목할 만한 응답은 귀농귀촌인이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융화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귀농귀촌인이(72%) 실제 관계와는 별개로 마을주민과 지역사회에 협력하고 융화되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귀농귀촌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묶인다. 아래 <표>는 위에서 논의한 항목들을 요인분석한 결과이다. 첫 번째 요인은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결속도를 나타내며, 두 번째 요인은 지역사회 대인관계의 친밀도로 표현할 수 있고, 세 번째 요인은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고립도와 사회적 거리를 의미한다.

<표 4-19> 귀농귀촌인 지역사회와의 관계 요인분석

	성분		
	1	2	3
마을공동체소속감	.819	.142	-.257
마을애향심	.847	.247	-.109
지역사회융화노력	.814	.302	-.100
귀농인친밀도	.048	.815	-.079
주민친밀도	.358	.701	-.282
지도자친밀도	.367	.644	-.206
행정공무원친밀도	.217	.681	-.059
고립생활도	-.151	-.155	.834
괴리감인지	-.161	-.141	.843

2) 지역사회 참여도

- 귀농귀촌인들의 다수는 마을회의나 마을행사에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또한, 지역의 농민단체나 공적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귀농귀촌인들간의 모임과 활동에도 예상보다 적은 참여율을 보인다. 진안군 차원의 귀농귀촌인 모임과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읍면 단위 귀농귀촌인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표 4-20>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항 목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마을회의나 행사에 참여한다	13.9	24.0	62.1	3.7825
마을 내 경제활동(영농조합, 작목반)에 참여하고 있다	42.5	18.1	39.4	2.9200
지역 교회에 다니고 있다	74.6	4.9	20.5	2.0058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일에 참여한다	62.3	15.3	22.4	2.2368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자활기관, 공부방, 도서관)에 참여한다	58.0	20.7	21.3	2.3506
지역주민들과 함께 여가문화활동(동호회, 산악회, 갑게)에 참여한다	46.7	23.3	30.0	2.6997
지역 농민단체(가톨릭 농민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67.3	13.3	19.4	2.0659
지역 외부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54.9	14.9	30.2	2.5201
읍면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한다	48.2	23.5	28.3	2.6459
진안군 귀농귀촌인 모임(뿌리협회 포함)이나 행사에 참여한다	57.6	22.6	19.8	2.3616

3)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 인식

- 귀농귀촌인에 대한 원주민들의 선입견과 배타적인 태도는 그다지 심각한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주민들과 지도자들은 귀농귀촌인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자신들을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귀농귀촌인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 평가

평가항목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마을의 지도자들은 나를 차별적이고 부당하게 대우한다	75.7	18.1	6.2	1.9435
귀농귀촌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텃세가 심하다	64.8	19.1	16.1	2.2620
귀농귀촌인에게 우호적이고 환대하는 분위기다	17.0	44.2	38.8	3.2833
나를 마을주민(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8.2	26.8	65.0	3.7260

4) 가족관계와 지지도

- 귀농귀촌 후 부부관계는 더 좋아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훨씬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 이후에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표 4-22> 귀농귀촌 후 부부관계 변화

		나빠짐	변화없음	좋아짐	해당없음 (미혼)
귀농귀촌 후 부부관계 변화	% (N=352)	9.6 (34)	42.1 (148)	39.5 (139)	8.8 (31)

- 귀농귀촌인 가족들의 지지도도 긍정적인 응답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배우자나 자녀가 현재의 귀농귀촌 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귀농귀촌한 삶에 대해 반대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귀농귀촌한 이후의 삶에 가족의 지지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 4-23> 가족의 귀농귀촌 지지도

		지지	보통	반대	해당없음 (미혼)
배우자의 귀농귀촌 지지도	% (N=354)	57.3 (203)	27.1 (96)	5.7 (20)	9.9 (35)
자녀의 귀농귀촌 지지도	% (N=349)	47.6 (166)	37.0 (129)	4.0 (14)	11.4 (40)

5) 귀농귀촌인의 갈등관계

- 귀농귀촌 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마을주민과 갈등을 겪은 편이 아니라는 입장이 절반정도였다(51.7%). 드물지만 갈등을 경험한 귀농귀촌인이 약 35%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포함해서 갈등을 어느 정도 경험한 귀농귀촌인이 약 14% 정도에 이른다.

<표 4-24> 마을주민과의 갈등 경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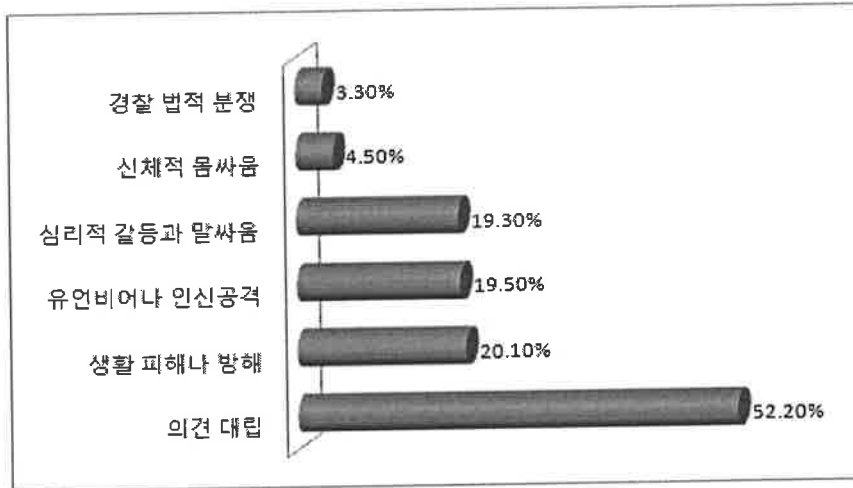
	전혀 없다	드문 편이다	보통	자은 편이다	매우 자은 편	계
마을주민과 갈등경험도	51.7 184	34.6 123	10.4 37	1.7 6	1.4 5	100% (N=355)

-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질문해서 갈등 경험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의견대립을 느낀 적이 있는 귀농귀촌인이 절반을 넘었다. 생활 상의 피해나 방해를 받은 경험이나, 인신공격, 유언비어, 말싸움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약 20% 정도이다.

<표 4-25> 마을주민과의 갈등 경험의 정도

평가항목	있다		없다		N
	%	(명)	%	(명)	
의견 대립을 느낀 적이 있었다	52.2	(178)	47.8	(163)	341
생활에 피해나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20.1	(69)	79.9	(274)	343
유언비어나 인신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19.5	(66)	80.5	(273)	339
심리적 갈등과 말싸움을 한 적이 있다	19.3	(65)	80.7	(271)	336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몸싸움을 한 적이 있다	4.5	(15)	95.5	(322)	337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분쟁까지 간 적이 있다	3.3	(11)	96.7	(327)	228

<그림 4-6> 마을주민과의 갈등경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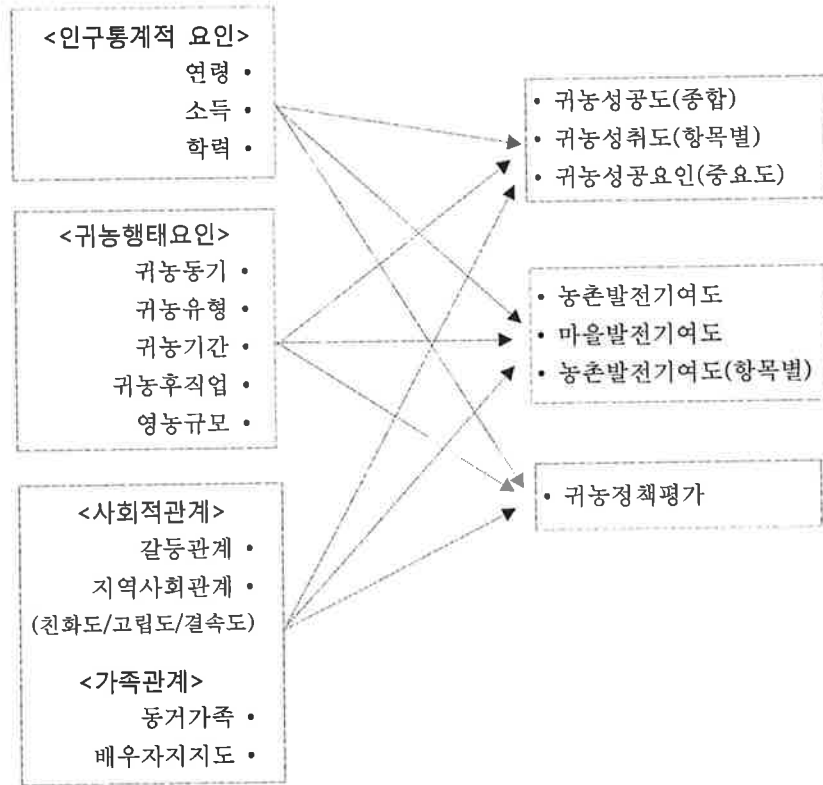


4. 귀농귀촌 성공요인

본 연구의 주제인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성공도를 측정하기 위한 세 차원의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우선 자신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성공도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귀농귀촌 생활 성공도를 6가지 항목으로 세분하여 항목별로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해서 농촌마을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가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1)전반적인 귀농귀촌 성공도 평가, (2) 항목별 귀농귀촌 생활 성취도 평가, (3) 귀농귀촌 성공요인들의 중요도 평가를 종속변수로 놓고, 이러한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영향력의 정도와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의 특성에 따른 집단별 귀농귀촌 성공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분석도를 소개한 것이다.

<그림 4-7> 귀농귀촌 성공요인 분석 변수들



1) 귀농귀촌 성공도 - 종합평가

(1) 귀농귀촌 성공에 대한 일반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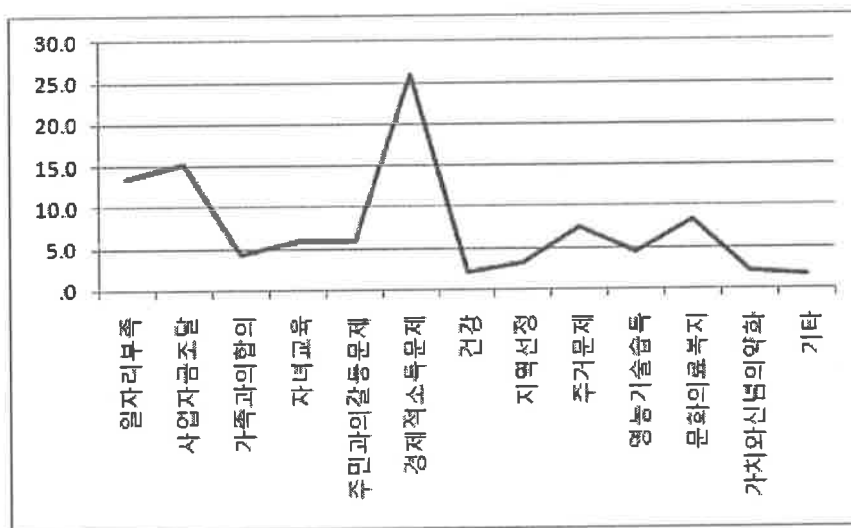
- 진안군 귀농귀촌인은 대부분 자신들의 귀농귀촌 생활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6> 귀농귀촌 성공도 종합평가

귀농 성공도 자기평가		실패	보통	성공	평균
귀농귀촌 전반적인 성공도 인식	% (N=354)	9.9 (35)	53.7 (190)	36.4 (129)	3.2994

- 아래 <그림>은 귀농귀촌 정착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을 나타낸 도표이다. '경제적 소득문제'를 지적한 귀농귀촌인이 전체의 2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업자금조달'(15.1%)이나 '일자리부족'(13.4%)이 귀농귀촌 후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안겨주는 문제로 나타났다. 상위 세 항목이 모두 경제적 문제를 함축하는 것으로서 진안군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가장 커다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8> 귀농귀촌 정착과정의 어려움(1순위)



-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농촌에서의 삶의 질 문제가 귀농생활의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귀농귀촌 후 정착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2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문화의료복지의 문제(11.7%)가 경제문제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자녀교육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8.0%).
- 귀농 정착과정에서 빚어지는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해 귀농귀촌인들은 주로 마을 이웃주민의 도움에 크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0.4% 정도가 마을이장이나 지도자들을 포함한 마을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가족들이 귀농생활의 조력자로 확인되었으며(24.7%),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해결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20.5%나 되었다.

- 귀농귀촌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주변의 귀농귀촌인이 정착에 실패하는 이유를 질문했다. 무엇보다도 귀농귀촌에 앞서 충분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귀농 이전에 가졌던 목표와 실제 귀농한 삶의 괴리가 큰 경우에 성공적인 정착이 불가능할 것이다. 앞선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평균적으로 1년 남짓의 귀농 준비기간으로는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나 경제적 생활에 대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 2순위 응답에서 주목한 점은 마을주민과의 불화이다. 소득원 확보문제, 자금부족 등의 경제적 문제 외에 마을주민과의 불편한 관계가 귀농에 실패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성공적 귀농 정착을 위해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실제로 마을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귀농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난 사례들을 경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4-27> 귀농 실패 이유 (1순위)

	빈도(명)	비율(%)
사전준비부족	124	35.6
자금부족	64	18.4
정부와지자체에의존적태도	12	3.4
마을주민과의불화	26	7.5
귀농귀촌의철학부재	34	9.8
소득원확보문제	65	18.7
문화의료복지문제	3	.9
귀농정책문제	1	.3
가족의분리문제	13	3.7
귀농귀촌관련사회교육부족	3	.9
기타	3	.9
합계	348	100.0

- 진안에 계속 거주할 의향은 높게 나왔다. 조사용답자의 81%(286명)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귀농귀촌인들이 향후에도 진안에서 귀농인의 삶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른 마을과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이가 9.3%이고, 도시로 환류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아예 포기하고 싶은 의사를 밝힌 비율이 9.6%(33명) 정도로 나타났다.

<표 4-28> 향후 귀농귀촌 지속의향

	빈도	유효 퍼센트
계속지금처럼현지역에서살고싶다	286	81.0
다른마을과지역으로이주할생각이다	33	9.3
기회가된다면도시로돌아갈것이다	29	8.2
빠른시일내에도시로가고싶다	5	1.4
합계	353	100.0

○ 귀농귀촌 이전과 비교하여 귀농귀촌이후의 삶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귀농귀촌 이후 가족가치, 자아 존중감과 열정, 농업 농촌과 생태 가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아졌다.

<표 4-29> 귀농 후의 인식 변화

항 목	부정	보통	긍정	평균
자연과 생태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5.7	25.6	68.7	3.8775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4.8	26.3	68.9	3.8177
진안 지역 먹거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6.8	34.4	48.8	3.3846
농(農) 가치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7.1	28.1	64.8	3.7736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3.5	25.3	71.2	3.9171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8.3	32.6	59.1	3.6762
나의 선택을 믿는 자신감과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다	4.0	30.4	65.6	3.8006

○ 그러나 귀농귀촌인 응답자의 43.3%는 귀농귀촌 이전의 목표와 실제생활과의 괴리가 크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4-30> 귀농 전 목표와 실제생활 차이 인식

항 목	아니다	보통	그렇다	평균
귀농귀촌 이전에 가졌던 목표와 현재의 실제생활은 차이가 크다	13.1	43.6	43.3	3.4416

(2) 집단별(독립변인) 성공도 인식의 차이

가. 인구통계적 요인

- 인구통계적 요인들, 즉 연령, 학력, 소득별 차이는 귀농귀촌 성공도의 인식의 차이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귀농귀촌의 성공도 인식을 분류해서 살펴보면, 젊은층과 노년층 귀농귀촌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40대와 50대 중장년층에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조금 더 높다. 특히 40대 귀농귀촌인들은 전반적으로 성공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실패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6%로 다른 연령대의 실패 인식 비율보다 높았다.

<표 4-31> 연령별 귀농성공도 인식 차이

		귀농성공도			계	유의 확률*
		실패	보통	성공		
연령	20-30대	3	31	20	54	.087
		5.6%	57.4%	37.0%	100.0%	
	40대	17	47	42	106	
		16.0%	44.3%	39.6%	100.0%	
	50대	10	60	38	108	
		9.3%	55.6%	35.2%	100.0%	
	60대 이상	4	52	28	84	
		4.8%	61.9%	33.3%	100.0%	
계	34	190	128	352		
	9.7%	54.0%	36.4%	100.0%		

* Chi-Square 검증

<표 4-32> 학력별 귀농성공도 인식 차이

		귀농성공도			소계	유의 확률
		실패	보통	성공		
학력	중졸이하	10	43	27	80	.800
		12.5%	53.8%	33.8%	100.0%	
	고졸	14	73	45	132	
		10.6%	55.3%	34.1%	100.0%	
	초대졸 이상	11	73	53	137	
		8.0%	53.3%	38.7%	100.0%	
총계		35	189	125	349	
		10.0%	54.2%	35.8%	100.0%	

- 소득수준별로 귀농귀촌에 대한 성공도 인식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확률은 아니지만,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3천만원 이상)에서 성공했다고 보는 비율이 높게 나오고,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1천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성공도 인식은 낮고, 실패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소득수준별 귀농성공도 인식 차이

		귀농성공도			계	유의 확률
		실패	보통	성공		
소득	1000만원 미만	8	36	19	63	.109
		12.7%	57.1%	30.2%	100.0%	
	1000만원~3000만원	19	77	60	156	
		12.2%	49.4%	38.5%	100.0%	
	3000만원이상	3	47	39	89	
		3.4%	52.8%	43.8%	100.0%	
계		30	160	118	308	
		9.7%	51.9%	38.3%	100.0%	

나. 귀농행태요인

- 먼저, 귀농동기별로 귀농성공도를 다르게 인식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가치 추구형 귀농귀촌 동기를 갖는 집단이 다른 유형보다 귀농귀촌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42.2%), 실패로 평가하는 부정적인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 가족과 개인의 건강이나,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귀농귀촌한 생활형 귀농귀촌인 집단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성공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24.2%).

<표 4-34> 귀농동기별 귀농성공도 인식

	귀농성공도 인식			전체
	부정 (매우실패+실패)	보통	긍정 (성공+매우성공)	
귀농동기	빈도			
경제형	8.0	36	29	73
%	11.0%	49.3%	39.7%	100%
가치추구형	13	74	66	153
%	8.5%	48.4%	43.1%	100%
생활형	12	69	27	108
%	11.1%	63.9%	25.0%	100%
전체	33	179	122	334
%	9.9%	53.6%	36.5%	100%

*주) Pearson 카이제곱 유의확률(양측검정)=.046

- 귀농동기별로 구분한 세 집단 사이에 귀농성공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귀농동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추구형 귀농동기를 갖는 귀농귀촌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귀농성공도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35> 귀농동기별 귀농성공도 인식 차이의 평균비교(분산분석)

귀농동기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경제적동기	73	3.32	0.09	집단간=2 집단내=331 합계=333	3.28	0.039
가치추구형	153	3.40	0.06			
생활효용형	108	3.16	0.07			
합계	334	3.30	0.04			

주) 종속변수 : 귀농성공도 (최소값, 매우부정=1, 최대값, 매우긍정=5)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기간에 따라라도 자신들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성공도 평가가 달라졌다.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이유로 사전준비 부족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던 점과 관련시켜 볼 때,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에 귀농귀촌 이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표 4-36> 귀농귀촌 준비기간에 따른 귀농성공도 인식 비교(분산분석)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준비 기간	1년 미만	137	3.17	0.06	2.993	0.031**
	1년이상-2년미만	76	3.36	0.08		
	2년이상-3년 미만	75	3.40	0.09		
	3년 이상	61	3.46	0.10		
	계	349	3.31	0.04		

주) 종속변수 : 귀농성공도 (최소값=1, 최대값=5)

- 귀농귀촌인 행태요인의 세 번째 변인으로 귀농형태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귀농성공도 인식과 귀농형태별 유형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귀농귀촌 성공도를 인식하는 비율이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I턴형 귀농귀촌인, 즉 도시출신으로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귀촌한 사람들 가운데 귀농귀촌에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비중이 다른 집단보다 조금 낮았다.

<표 4-37> 귀농귀촌형태별 귀농성공도 인식

		귀농성공도			계	유의 확률
		실패	보통	성공		
귀농 귀촌 형태	U턴형	16	74	53	143	.453
		11.2%	51.7%	37.1%	100.0%	
	J턴형	8	25	21	54	
		14.8%	46.3%	38.9%	100.0%	
	I턴형	11	86	53	150	
		7.3%	57.3%	35.3%	100.0%	
총계		35	185	127	347	
		10.1%	53.3%	36.6%	100.0%	

- 귀농귀촌 기간에 따른 귀농성공도의 인식은 별다른 차이 없이 비슷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는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에 귀농귀촌한 3년 미만의 집단이 더 오랜 기간 귀농귀촌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성공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낮았다.

<표 4-38> 귀농기간에 따른 귀농성공도 인식

		귀농성공도			계	유의 확률
		실패	보통	성공		
귀농 기간	3년 이내	14	74	40	128	.590
		10.9%	57.8%	31.3%	100.0%	
	4년-6년	7	54	36	97	
		7.2%	55.7%	37.1%	100.0%	
	7년-9년	6	26	22	54	
		11.1%	48.1%	40.7%	100.0%	
	10년이상	5	30	28	63	
		7.9%	47.6%	44.4%	100.0%	

- 귀농귀촌 후 농업 활동을 기준으로 직업유형을 구분한 집단별로 귀농성공도 인식을 비교하였다. 전업농에 비해 겸업농 형태의 귀농귀촌인들이 성공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갖고 귀농귀촌해 있는 사람들 내에서 귀농성공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조금 높았다.

<표 4-39> 현재직업형태별 귀농성공도 인식

		귀농성공도			계	유의 확률
		실패	보통	성공		
현재 직업 형태	무직	3	46	15	64	.087
		4.7%	71.9%	23.4%	100.0%	
	전업농	15	71	51	137	
		10.9%	51.8%	37.2%	100.0%	
	겸업농	7	34	30	71	
		9.9%	47.9%	42.3%	100.0%	
	비농업인	10	39	31	80	
		12.5%	48.8%	38.8%	100.0%	

- 영농규모와 귀농성공도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논과 밭을 합친 영농규모가 1000평 미만으로 영농규모별로 비교했을 때 규모가 적은 집단에서 귀농실패를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다. 상대적으로 3000평 이상의 영농규모를 갖고 경작하고 있는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귀농성공도에 대한 인식 평가가 높게 나타난다.

<표 4-40> 영농규모별 귀농성공도 인식

		귀농성공도			계	유의 확률
		실패	보통	성공		
경작 면적	1000평미만	14	102	69	185	.217
		7.6%	55.1%	37.3%	100.0%	
	1000평-3000평	13	54	28	95	
		13.7%	56.8%	29.5%	100.0%	
	3000평이상	8	34	32	74	
		10.8%	45.9%	43.2%	100.0%	

다. 사회적 관계 요인

-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사회적 관계를 세 가지 범주, 즉 친밀도, 고립도, 결속도의 차이에 따라 구분해서 귀농성공도의 인식과 비교 분석하였다.
- 귀농귀촌인간의 친밀도, 마을주민과 지도자들과의 친밀도, 그리고 행정 공무원과의 친밀도를 묶어서 지역사회 대인관계의 친밀도를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이를 귀농성공도 인식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 친밀도는 귀농성공도 인식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와 마을 내 주요한 행위자들과의 친밀도가 높은 집단이 귀농성공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 귀농귀촌 지역사회와 마을 구성원들과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귀농귀촌 생활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데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41> 지역사회친밀도와 귀농성공도 인식 비교

		귀농성공도			Total	유의 확률
		실패	보통	성공		
지역사회 친밀도	낮음	2	10	8	20	.000
		10.0%	50.0%	40.0%	100.0%	
	보통	17	75	21	113	
		15.0%	66.4%	18.6%	100.0%	
	높음	16	105	100	221	
		7.2%	47.5%	45.2%	100.0%	

- 다음으로 지역사회에 결속도가 높고, 지역과 주민에 융화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귀농귀촌인이 귀농성공도 인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 의식이 높고, 애착심과 애향심이 높으며,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에 융화되려고 노력하는 귀농귀촌인일수록 자신의 귀농귀촌 생활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표 4-42> 지역사회 결속도와 귀농성공도 인식 비교

		귀농성공도			소계	유의 확률
		실패	보통	성공		
지역사회 융화도	낮음	2	9	3	14	.007
		14.3%	64.3%	21.4%	100.0%	
	보통	12	52	18	82	
		14.6%	63.4%	22.0%	100.0%	
	높음	19	128	108	255	
		7.5%	50.2%	42.4%	100.0%	

- 지역사회와 마을주민과 거리를 두고 사는 고립생활도가 높은 귀농귀촌인도 귀농성공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이 많았다.

<표 4-43> 지역사회 고립도별 귀농성공도 인식 비교

		귀농성공도			계	유의 확률
		실패	보통	성공		
지역사회 고립도	낮음	16	90	73	179	.471
		8.9%	50.3%	40.8%	100.0%	
	보통	12	58	30	100	
		12.0%	58.0%	30.0%	100.0%	
	높음	6	39	26	71	
		8.5%	54.9%	36.6%	100.0%	

- 다음은 사회적 관계 가운데 갈등관계를 조사하였다. 마을주민이나 지도자와 갈등관계가 귀농성공도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갈등경험도에 따라서 귀농성공도를 인식하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값을 갖지는 못했다. 지역 토착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하지 않은 귀농귀촌인들이 귀농 성공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빈번한 갈등을 경험한 집단보다 조금 높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았다. 주민들과 갈등한 경험이 있더라도 귀농 성공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갈등 경험의 차이가 귀농성공도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표 4-44> 갈등경험도의 차이와 귀농성공도 인식

	귀농성공도			계	유의 확률
	실패	보통	성공		
갈등경험없음	20	103	61	184	.600
	10.9%	56.0%	33.2%	100.0%	
드문편이다	9	64	48	121	
	7.4%	52.9%	39.7%	100.0%	
갈등빈번	6	23	19	48	
	12.5%	47.9%	39.6%	100.0%	

라. 가족관계 요인

- 배우자의 지지는 귀농성공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현재의 귀농귀촌 생활에 반대하는

경우에 귀농성공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4-45> 배우자지지도별 귀농성공도 인식 비교

		귀농성공도			계	유의 확률
		실패	보통	성공		
배우자 지지도	지지함	10	102	91	203	.000
		4.9%	50.2%	44.8%	100.0%	
	보통	15	56	25	96	
		15.6%	58.3%	26.0%	100.0%	
	반대함	9	7	3	19	
		47.4%	36.8%	15.8%	100.0%	
계		34	165	119	318	
		10.7%	51.9%	37.4%	100.0%	

- 가족동거여부, 특히 귀농귀촌해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와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는 귀농성공도 인식의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가족과 함께 귀농귀촌한 경우가 성공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46> 가족동거여부와 귀농성공도 인식 비교

		귀농성공도			계	유의 확률
		실패	보통	성공		
가족동거 여부	혼자살고있음	7	44	17	68	.086
		10.3%	64.7%	25.0%	100.0%	
	가족과 함께살고 있음	28	145	111	284	
		9.9%	51.1%	39.1%	100.0%	
계		35	189	128	352	
		9.9%	53.7%	36.4%	100.0%	

2) 귀농귀촌 생활 성취도 인식 - 항목별 평가

- 귀농 성공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뒤이어 항목별 성취도를 조사하였다. 귀농 귀촌을 통해 경제적 소득과 안정을 얻는데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조사자의 43.9%가 귀농귀촌 후 예상했던 경제적 소득에 못미치는 결과를 얻거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려준다.

○ 귀농 전 경험과 전문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자의 38.7%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부정적 응답을 함으로써 긍정적 응답을 앞질렀다.

○ 귀농귀촌해서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것'과 '마을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다른 항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47> 귀농성공도 항목별 평가 (단위:%, 점)

	부정 (매우실패+실패)	보통	긍정 (성공+매우성공)	평균*
성취도-행복만족	10.5	36.5	53	3.5241
성취도-경제소득	43.9	38.8	17.3	2.6572
성취도-가족관계	10.9	41.3	47.9	3.4212
성취도-주민화합	7.7	39.2	53.1	3.5284
성취도-공동체생태가치	21.8	45.3	32.9	3.1501
성취도-귀농전경험활용	38.7	39.3	22.0	2.7966

* 주) 평균값은 매우실패를 1점으로 매우성공을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산정

○ 귀농 후 항목별 성취도는 각각의 상관성이 매우 높아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다. 아래 <표>는 요인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로서 첫 번째 범주를 귀농 성공도의 개인적 차원의 변수로 묶을 수 있다면, 두 번째 범주는 귀농 성공도의 공동체형 또는 사회적 차원으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48> 귀농귀촌 성취도 요인분석

	성분	
	1	2
성취도-행복만족	.837	.175
성취도-경제소득	.702	.243
성취도-가족관계	.813	.240
성취도-주민화합	.232	.752
성취도-공동체생태가치	.309	.808
성취도-귀농전경험활용	.141	.779

(1) 개인 행복과 만족감 성취도

<표 4-49> 귀농 후 개인 행복 성취도

귀농 성공도 항목별 자기평가		부정	보통	긍정	평균
개인의 행복과 만족감 성취	% (N=353)	10.5 (37)	36.6 (129)	52.9 (187)	3.2994

- 귀농귀촌 후 개인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에 인구통계적 변수들(성별, 연령, 학력,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50> 인구통계적 요인별 귀농성취도(행복과 만족)

		귀농성취도-행복과 만족			계	유의 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연령	20-30대	5	22	27	54	.607
		9.3%	40.7%	50.0%	100.0%	
	40대	15	37	55	107	
		14.0%	34.6%	51.4%	100.0%	
	50대	11	35	62	108	
		10.2%	32.4%	57.4%	100.0%	
	60대 이상	6	35	41	82	
		7.3%	42.7%	50.0%	100.0%	
소득	1000만원 미만	6	25	31	62	.502
		9.7%	40.3%	50.0%	100.0%	
	1000만원 -3000만원	20	55	81	156	
		12.8%	35.3%	51.9%	100.0%	
	3000만원이상	6	30	53	89	
	6.7%	33.7%	59.6%	100.0%		
학력	중졸이하	10	33	37	80	.537
		12.5%	41.3%	46.3%	100.0%	
	고졸	11	51	68	130	
		8.5%	39.2%	52.3%	100.0%	
	초대졸 이상	16	45	77	138	
11.6%		32.6%	55.8%	100.0%		

- 귀농행태 요인변수들 가운데에는 귀농동기별로 귀농성공도 인식에 차이를 드러냈다. 귀농동기가 가치추구형인 귀농귀촌인들이 다른 동기를 갖는 유형과 비교해서 개인적 행복과 만족을 얻는데 성공적이었다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4-51> 귀농동기별 개인 행복 성취도 비교

	개인 행복 만족 성취도			전체	
	부정	보통	긍정		
귀 농 동 기	경제생계형 빈도	12	29	32	73
	경제생계형 %	16.4%	39.7%	43.8%	100%
	가치추구형 빈도	11.0	47	95	153
	가치추구형 %	7.2%	30.7%	62.1%	100%
	생활효용형 빈도	13	43	51	107
	생활효용형 %	12.1%	40.2%	47.7%	100%
	전체 빈도	36	119	178	333
	전체 %	10.8%	35.7%	53.5%	100%

주> 카이제곱검정(Pearson) : 값=10.238 / 자유도=4 / 유의확률=.037

<표 4-52> 귀농행태요인별 귀농성취도(행복과 만족) 비교

		귀농성취도-행복과 만족			계	유의 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귀농유형	U턴형	16	48	79	143	.134
		11.2%	33.6%	55.2%	100.0%	
	J턴형	9	14	30	53	
		17.0%	26.4%	56.6%	100.0%	
I턴형	12	64	74	150	100.0%	
	8.0%	42.7%	49.3%			
귀농기간	3년 이내	13	50	64	127	.968
		10.2%	39.4%	50.4%	100.0%	
	4년-6년	10	34	53	97	
		10.3%	35.1%	54.6%	100.0%	
	7년-9년	6	21	27	54	
11.1%		38.9%	50.0%	100.0%		
10년이상	7	20	36	63		
		11.1%	31.7%	57.1%	100.0%	
귀농 후 직업	무직	8	26	29	63	.286
		12.7%	41.3%	46.0%	100.0%	
	전업농	12	53	73	138	
		8.7%	38.4%	52.9%	100.0%	
	겸업농	7	30	34	71	
9.9%		42.3%	47.9%	100.0%		
비농업인	10	20	50	80		
		12.5%	25.0%	62.5%	100.0%	
영농 규모	1000평 미만	16	59	108	183	.146
		8.7%	32.2%	59.0%	100.0%	
	1000평 -3000평	14	39	43	96	
		14.6%	40.6%	44.8%	100.0%	
3000평 이상	7	31	36	74		
	9.5%	41.9%	48.6%	100.0%		

- 이 외에도 귀농 준비기간이 길수록 개인적 행복감을 얻는데 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카이제곱 검정 통계적 유의확률=0.009).
- 귀농귀촌의 사회적 관계 변수들 가운데 지역사회 친밀도와 융화도는 귀농성공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 적응도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관계가 긴밀한 집단(고립도가 낮은 집단)에서 귀농성공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통계적 유의미도가 나타났다.

<표 4-53>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관계 요인별 귀농성취도(행복과 만족)

		귀농성취도-행복과 만족			계	유의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갈등 관계	갈등 경험 없음	17	68	98	183	.355
		9.3%	37.2%	53.6%	100.0%	
	드문 편이다	11	44	67	122	
		9.0%	36.1%	54.9%	100.0%	
	갈등 빈번	9	16	22	47	
		19.1%	34.0%	46.8%	100.0%	
친밀도	낮음	4	6	11	21	.000
		19.0%	28.6%	52.4%	100.0%	
	보통	17	60	36	113	
		15.0%	53.1%	31.9%	100.0%	
	높음	16	63	140	219	
		7.3%	28.8%	63.9%	100.0%	
고립도	낮음	19	62	97	178	.809
		10.7%	34.8%	54.5%	100.0%	
	보통	10	41	49	100	
		10.0%	41.0%	49.0%	100.0%	
	높음	8	23	40	71	
		11.3%	32.4%	56.3%	100.0%	
결속도	낮음	4	5	5	14	.027
		28.6%	35.7%	35.7%	100.0%	
	보통	11	36	34	81	
		13.6%	44.4%	42.0%	100.0%	
	높음	22	88	145	255	
		8.6%	34.5%	56.9%	100.0%	
동거 가족	혼자 살고 있음	6	28	33	67	.589
		9.0%	41.8%	49.3%	100.0%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31	100	153	284	
		10.9%	35.2%	53.9%	100.0%	
배우자 지지도	지지함	15	64	124	203	.000
		7.4%	31.5%	61.1%	100.0%	
	보통	11	43	41	95	
		11.6%	45.3%	43.2%	100.0%	
	반대함	8	7	5	20	
		40.0%	35.0%	25.0%	100.0%	

(2) 경제적 소득 안정 성공도

- '귀농귀촌 후 경제적 소득과 안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다. 경제적 소득 성공도를 긍정하는 비율이 17.1%인데 반해서, 경제적 안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응답은 전체의 43.9%나 되었다. 귀농귀촌인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고 평가하고 있다.

<표 4-54> 귀농귀촌 후 경제적 소득 성공도 인식

귀농 성공도 항목별 자기평가		부정	보통	긍정	평균
경제적 소득과 안정에 성공적	% (N=353)	43.9 (155)	38.8 (137)	17.3 (61)	3.2994

- 경제적 소득 안정의 성공도는 귀농준비 정도를 묻는 모든 항목과 상관성을 지닌다.

<표 4-55> 경제소득 성공도 vs. 귀농준비 상관관계

	귀농준비 -철학	귀농준비 -돈	귀농준비 -주거	귀농준비 -영농기술	귀농준비 -지지	귀농준비 -주민관계	귀농준비 -지역이해
경제 소득 성공	.244	.302	.295	.293	.315	.201	.298
유의 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345	347	351	348	347	345	349

- 인구통계적 요인들 가운데 성별, 학력,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경제적 성공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표 4-56> 인구통계적 요인 * 귀농성취도(경제적 소득과 안정)

		귀농성취도-경제적 소득과 안정			계	유의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연령	20-30대	21	23	10	54	.149
		38.9%	42.6%	18.5%	100.0%	
	40대	54	38	15	107	
		50.5%	35.5%	14.0%	100.0%	
	50대	43	38	27	108	
		39.8%	35.2%	25.0%	100.0%	
	60대 이상	37	36	9	82	
		45.1%	43.9%	11.0%	100.0%	
소득	1000만원 미만	32	24	6	62	.002
		51.6%	38.7%	9.7%	100.0%	
	1000만원 -3000만원	72	62	22	156	
		46.2%	39.7%	14.1%	100.0%	
	3000만원 이상	25	37	27	89	
		28.1%	41.6%	30.3%	100.0%	
학력	중졸이하	35	31	14	80	.990
		43.8%	38.8%	17.5%	100.0%	
	고졸	60	48	22	130	
		46.2%	36.9%	16.9%	100.0%	
	초대졸 이상	60	55	23	138	
		43.5%	39.9%	16.7%	100.0%	

○ 귀농귀촌 행태 요인 중에서는 귀농귀촌유형별로 경제적 소득의 성공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U턴형 그룹에서 경제적 소득의 성취 여부를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J턴형 그룹에서 다른 집단보다 경제적 소득 성공도의 자기평가가 낮게 평가되었다.

<표 4-57> 귀농형태별 경제소득 성공도 인식 교차표

		빈도	성취도-경제소득					전체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농귀촌 형태	진안출신으로고향이나	빈도	9	42	61	26	5	143
	인접마을로귀농했다	%	6.3%	29.4%	42.7%	18.2%	3.5%	100.0%
	타지역농촌출신으로진안귀농귀촌했다	빈도	3	26	17	6	1	53
	%	5.7%	49.1%	32.1%	11.3%	1.9%	100.0%	
전체	도시출신으로진안으로귀농귀촌했다	빈도	26	48	57	16	3	150
	%	17.3%	32.0%	38.0%	10.7%	2.0%	100.0%	
전체		빈도	38	116	135	48	9	346
		%	11.0%	33.5%	39.0%	13.9%	2.6%	100.0%

Pearson 카이제곱 값=19.599 / 자유도=8 / 유의확률= .012

- 귀농기간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귀농기간이 짧은 집단에서 경제적 소득 안정에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귀농연도별 경제적 성공도를 살펴보더라도 2008년 이후 최근 까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경제적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8> 귀농연도별 경제소득 성공도 인식 교차표

	성취도-경제소득					전체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농 연도 별	1990 빈도	0	2	9	2	0	13
	~1997 %	.0%	15.4%	69.2%	15.4%	.0%	100.0%
	1998 빈도	2	9	15	8	2	36
	~2000 %	5.6%	25.0%	41.7%	22.2%	5.6%	100.0%
	2001 빈도	17	55	59	27	7	165
	~2007 %	10.3%	33.3%	35.8%	16.4%	4.2%	100.0%
전체	2008 빈도	19	48	47	11	2	127
	~2010 %	15.0%	37.8%	37.0%	8.7%	1.6%	100.0%
	빈도	38	114	130	48	11	341
	%	11.1%	33.4%	38.1%	14.1%	3.2%	100.0%

* Pearson 카이제곱유의확률 .001

<표 4-59> 귀농행태요인 * 귀농성취도(경제적 소득)

		귀농성취도-경제적 소득과 안정			계	유의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귀농동기	경제생계형	28	32	13	73	.533
		38.4%	43.8%	17.8%	100%	
	가치추구형	66	63	24	153	
		43.1%	41.2%	15.7%	100%	
생활효용형	51	35	21	107		
	47.7%	32.7%	19.6%	100%		
귀농기간	3년 이내	67	47	13	127	.053
		52.8%	37.0%	10.2%	100.0%	
	4년-6년	37	39	21	97	
		38.1%	40.2%	21.6%	100.0%	
	7년-9년	27	17	10	54	
10년이상	21	27	15	63		
귀농 후 직업	무직	36	22	5	63	.293
		57.1%	34.9%	7.9%	100.0%	
	전업농	57	55	26	138	
		41.3%	39.9%	18.8%	100.0%	
	겸업농	30	27	14	71	
42.3%		38.0%	19.7%	100.0%		
비농업인	32	32	16	80		
영농 규모	1000평 미만	81	70	32	183	.609
		44.3%	38.3%	17.5%	100.0%	
	1000평- 3000평	47	34	15	96	
		49.0%	35.4%	15.6%	100.0%	
	3000평 이상	27	33	14	74	
		36.5%	44.6%	18.9%	100.0%	

○ 귀농귀촌인의 거주지역, 즉 거주면에 따라 경제소득 성공도의 인식이 차이가 있는데, 특히 동향면과 백운면 등 귀농귀촌인 밀집지역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소득에 대한 성취도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용담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60> 거주면별 경제소득 성공도 인식 교차표

		성취도-경제소득					전체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거주면	진안읍	빈도	1	11	15	7	0	34
		%	2.9%	32.4%	44.1%	20.6%	.0%	100.0%
	동향면	빈도	5	14	17	3	0	39
		%	12.8%	35.9%	43.6%	7.7%	.0%	100.0%
	미령면	빈도	2	9	6	4	3	24
		%	8.3%	37.5%	25.0%	16.7%	12.5%	100.0%
	정천면	빈도	7	8	11	0	1	27
		%	25.9%	29.6%	40.7%	.0%	3.7%	100.0%
	주천면	빈도	4	11	13	8	0	36
		%	11.1%	30.6%	36.1%	22.2%	.0%	100.0%
	백운면	빈도	4	30	21	6	1	62
		%	6.5%	48.4%	33.9%	9.7%	1.6%	100.0%
	성수면	빈도	5	7	12	2	1	27
		%	18.5%	25.9%	44.4%	7.4%	3.7%	100.0%
부귀면	빈도	3	14	15	6	0	38	
	%	7.9%	36.8%	39.5%	15.8%	.0%	100.0%	
용담면	빈도	0	1	4	5	5	15	
	%	.0%	6.7%	26.7%	33.3%	33.3%	100.0%	
상전면	빈도	2	3	6	2	0	13	
	%	15.4%	23.1%	46.2%	15.4%	.0%	100.0%	
안천면	빈도	5	9	16	7	0	37	
	%	13.5%	24.3%	43.2%	18.9%	.0%	100.0%	
전체	빈도	38	117	136	50	11	352	
	%	10.8%	33.2%	38.6%	14.2%	3.1%	100.0%	

* Pearson 카이제곱 값=97.233 / 자유도=40 / 점근유의확률(양측검정)=.000

(3) 가족관계의 화합 성취도

-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은 가족관계의 원만함과 화합을 이루는 데 별다른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표 4-61> 인구통계적 요인 * 귀농성취도(가족관계와 화합)

		귀농성취도-가족관계와 화합			계	유의 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연령	20-30대	3	24	27	54	.727
		5.6%	44.4%	50.0%	100.0%	
	40대	13	41	52	106	
		12.3%	38.7%	49.1%	100.0%	
	50대	10	46	50	106	
		9.4%	43.4%	47.2%	100.0%	
60대 이상	12	31	38	81		
	14.8%	38.3%	46.9%	100.0%		
소득	1000만원 미만	9	29	24	62	.603
		14.5%	46.8%	38.7%	100.0%	
	1000만원 -3000만원	15	62	76	153	
	9.8%	40.5%	49.7%	100.0%		
	3000만원 이상	9	35	44	88	
10.2%	39.8%	50.0%	100.0%			
학력	중졸이하	10	34	35	79	.897
		12.7%	43.0%	44.3%	100.0%	
	고졸	14	49	65	128	
		10.9%	38.3%	50.8%	100.0%	
	초대졸 이상	14	58	65	137	
10.2%		42.3%	47.4%	100.0%		

- 귀농귀촌행태를 나타내는 변인들도 가족관계의 성취의 차이를 인식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62> 귀농행태요인 * 귀농성취도(가족관계와 화합)

		귀농성취도-가족관계와 화합			계	유의 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귀농동기	경제생계형	8	34	31	73	.422
		11.0%	46.6%	42.5%	100.0%	
	가치추구형	15	56	80	151	
		9.9%	37.1%	53.0%	100.0%	
	생활효용형	14	47	45	106	
		13.2%	44.3%	42.5%	100.0%	
귀농유형	U턴형	11	59	70	140	.395
		7.9%	42.1%	50.0%	100.0%	
	J턴형	9	19	26	54	
		16.7%	35.2%	48.1%	100.0%	
	I턴형	17	65	66	148	
		11.5%	43.9%	44.6%	100.0%	
귀농기간	3년 이내	12	59	54	125	.540
		9.6%	47.2%	43.2%	100.0%	
	4년-6년	12	33	50	95	
		12.6%	34.7%	52.6%	100.0%	
	7년-9년	6	19	30	55	
		10.9%	34.5%	54.5%	100.0%	
10년이상	6	28	28	62		
	9.7%	45.2%	45.2%	100.0%		
귀농 후 직업	무직	9	32	23	64	.125
		14.1%	50.0%	35.9%	100.0%	
	전업농	15	61	59	135	
		11.1%	45.2%	43.7%	100.0%	
	겸업농	5	26	38	69	
		7.2%	37.7%	55.1%	100.0%	
비농업인	9	25	46	80		
	11.3%	31.3%	57.5%	100.0%		
영농 규모	1000평 미만	17	71	95	183	.458
		9.3%	38.8%	51.9%	100.0%	
	1000평- 3000평	13	43	38	94	
		13.8%	45.7%	40.4%	100.0%	
3000평 이상	8	30	34	72		
	11.1%	41.7%	47.2%	100.0%		

○ 사회적 관계 요인은 지역사회 대인적 친밀도와 지역사회 결속도가 높은 귀농 귀촌인에게서 원만한 가족관계를 이루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혼자 귀농귀촌해서 살고 있는 이들에 비해 가족이 함께 귀농귀촌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관계의 성공적 변화에 더욱 동의하고 있다.

<표 4-63> 사회적 관계 * 귀농성취도(가족관계와 화합)

		귀농성취도-가족관계와 화합			계	유의 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갈등 관계	갈등 경험 없음	17	74	89	180	.759
		9.4%	41.1%	49.4%	100.0%	
	드문 편이다	14	49	58	121	
		11.6%	40.5%	47.9%	100.0%	
	갈등빈번	7	21	19	47	
14.9%		44.7%	40.4%	100.0%		
친밀도	낮음	4	9	8	21	.000
		19.0%	42.9%	38.1%	100.0%	
	보통	14	65	33	112	
		12.5%	58.0%	29.5%	100.0%	
높음	20	70	126	216		
	9.3%	32.4%	58.3%	100.0%		
고립도	낮음	18	70	87	175	.951
		10.3%	40.0%	49.7%	100.0%	
	보통	12	43	45	100	
		12.0%	43.0%	45.0%	100.0%	
높음	7	30	33	70		
	10.0%	42.9%	47.1%	100.0%		
결속도	낮음	3	6	5	14	.011
		21.4%	42.9%	35.7%	100.0%	
	보통	9	46	27	82	
		11.0%	56.1%	32.9%	100.0%	
높음	26	91	133	250		
	10.4%	36.4%	53.2%	100.0%		
동거 가족	혼자	11	32	21	64	.019
	살고 있음	17.2%	50.0%	32.8%	100.0%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27	111	145	283	
	9.5%	39.2%	51.2%	100.0%		
배우자 지지도	지지함	9	70	123	202	.000
		4.5%	34.7%	60.9%	100.0%	
	보통	15	55	26	96	
		15.6%	57.3%	27.1%	100.0%	
	반대함	11	6	2	19	
57.9%	31.6%	10.5%	100.0%			

(4)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공동체적 관계

- 학력, 연령, 소득 변수들은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주민들과 화합하고 어울려 사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 4-64> 인구통계적 요인 * 귀농성취도(주민화합)

		귀농성취도-주민화합			계	유의 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연령	20-30대	2	23	29	54	.528
		3.7%	42.6%	53.7%	100.0%	
	40대	11	38	58	107	
		10.3%	35.5%	54.2%	100.0%	
	50대	6	48	53	107	
		5.6%	44.9%	49.5%	100.0%	
60대 이상	8	29	45	82		
	9.8%	35.4%	54.9%	100.0%		
소득	1000만원 미만	5	24	33	62	.952
		8.1%	38.7%	53.2%	100.0%	
	1000만원 -3000만원	10	65	81	156	
	3000만원 이상	6	33	50	89	
		6.7%	37.1%	56.2%	100.0%	
학력	중졸이하	3	28	49	80	.382
		3.8%	35.0%	61.3%	100.0%	
	고졸	12	53	64	129	
		9.3%	41.1%	49.6%	100.0%	
초대졸 이상	12	56	70	138		
	8.7%	40.6%	50.7%	100.0%		

- 귀농귀촌형태별로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융화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U턴형 귀농귀촌 집단에서 마을주민과 어울리는 정도가 높았고, J턴형 집단에서 주민과 화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65> 귀농행태요인 * 귀농성취도(주민화합)

		귀농성취도-주민화합			계	유의 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귀농동기	경제생계형	6	29	38	73	.520
		8.2%	39.7%	52.1%	100.0%	
	가치추구형	11	53	88	152	
		7.2%	34.9%	57.9%	100.0%	
생활효용형	9	48	50	107		
	8.4%	44.9%	46.7%	100.0%		
귀농유형	U턴형	7	47	89	143	.012
		4.9%	32.9%	62.2%	100.0%	
	J턴형	7	17	29	53	
		13.2%	32.1%	54.7%	100.0%	
I턴형	12	71	66	149		
	8.1%	47.7%	44.3%	100.0%		
귀농기간	3년 이내	8	58	60	126	.338
		6.3%	46.0%	47.6%	100.0%	
	4년-6년	6	36	55	97	
		6.2%	37.1%	56.7%	100.0%	
7년-9년	5	22	27	54		
	9.3%	40.7%	50.0%	100.0%		
10년이상	7	18	38	63		
	11.1%	28.6%	60.3%	100.0%		
귀농 후 직업	무직	6	31	25	62	.248
		9.7%	50.0%	40.3%	100.0%	
	전업농	7	48	83	138	
		5.1%	34.8%	60.1%	100.0%	
겸업농	7	27	37	71		
	9.9%	38.0%	52.1%	100.0%		
비농업인	7	31	42	80		
	8.8%	38.8%	52.5%	100.0%		
영농 규모	1000평 미만	15	74	93	182	.513
		8.2%	40.7%	51.1%	100.0%	
	1000평- 3000평	7	41	48	96	
		7.3%	42.7%	50.0%	100.0%	
3000평 이상	5	23	46	74		
	6.8%	31.1%	62.2%	100.0%		

○ 마을주민과 친밀도가 높고, 고립도가 낮으며, 결속도가 높은 귀농귀촌인들이
주민과 어울려 사는데 성공적인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 마을주민과의 갈등 경험이 낮을수록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융화되어 살
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표 4-66> 사회적 관계 * 귀농성취도(주민화합)

		귀농성취도-주민화합			계	유의 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갈등 관계	갈등 경험 없음	9	65	108	182	.006
		4.9%	35.7%	59.3%	100.0%	
	드문 편이다	9	54	59	122	
		7.4%	44.3%	48.4%	100.0%	
	갈등반반	9	19	19	47	
19.1%		40.4%	40.4%	100.0%		
친밀도	낮음	7	11	3	21	.000
		33.3%	52.4%	14.3%	100.0%	
	보통	15	73	24	112	
		13.4%	65.2%	21.4%	100.0%	
	높음	5	54	160	219	
2.3%		24.7%	73.1%	100.0%		
고립도	낮음	7	47	124	178	.000
		3.9%	26.4%	69.7%	100.0%	
	보통	8	54	38	100	
		8.0%	54.0%	38.0%	100.0%	
	높음	12	35	23	70	
17.1%		50.0%	32.9%	100.0%		
결속도	낮음	5	9	0	14	.000
		35.7%	64.3%	.0%	100.0%	
	보통	11	48	22	81	
		13.6%	59.3%	27.2%	100.0%	
	높음	11	80	163	254	
4.3%		31.5%	64.2%	100.0%		
동거 가족	혼자	5	27	35	67	.976
	살고 있음	7.5%	40.3%	52.2%	100.0%	
	가족과 함께	22	110	151	283	
	살고 있음	7.8%	38.9%	53.4%	100.0%	
배우자 지지도	지지함	14	69	119	202	.029
		6.9%	34.2%	58.9%	100.0%	
	보통	8	50	37	95	
		8.4%	52.6%	38.9%	100.0%	
	반대함	2	8	10	20	
		10.0%	40.0%	50.0%	100.0%	

(5) 생태적 가치 실현

- 학력, 연령, 소득 변인은 귀농귀촌인들이 공동체와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7> 인구통계적 요인 * 귀농성취도(공동체와 생태적 가치)

		귀농성취도-공동체와 생태적 가치			계	유의 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연령	20-30대	12	21	21	54	.573
		22.2%	38.9%	38.9%	100.0%	
	40대	28	51	28	107	
		26.2%	47.7%	26.2%	100.0%	
	50대	20	48	40	108	
		18.5%	44.4%	37.0%	100.0%	
60대 이상	17	38	27	82		
	20.7%	46.3%	32.9%	100.0%		
소득	1000만원 미만	13	32	17	62	.345
		21.0%	51.6%	27.4%	100.0%	
	1000만원 -3000만원	31	77	48	156	
		19.9%	49.4%	30.8%	100.0%	
	3000만원 이상	23	33	33	89	
25.8%		37.1%	37.1%	100.0%		
학력	중졸이하	13	41	26	80	.360
		16.3%	51.3%	32.5%	100.0%	
	고졸	27	61	42	130	
		20.8%	46.9%	32.3%	100.0%	
	초대졸 이상	37	55	46	138	
26.8%		39.9%	33.3%	100.0%		

- 귀농기간이 긴 집단에서 공동체와 생태적 가치를 획득하였다는 점에 긍정적인 비율이 높았다.
- 현재 직업 형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농사를 짓고 귀농귀촌인들이 그렇지 않은 비농업인들에 비해서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다.

<표 4-68> 귀농행태요인 * 귀농성취도(공동체와 생태적 가치)

		귀농성취도-공동체와 생태적 가치			계	유의 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귀농동기	경제생계형	12	39	22	73	.305
		16.4%	53.4%	30.1%	100.0%	
	가치추구형	38	61	54	153	
		24.8%	39.9%	35.3%	100.0%	
생활효용형	22	53	32	107		
	20.6%	49.5%	29.9%	100.0%		
귀농유형	U턴형	19	68	56	143	.004
		13.3%	47.6%	39.2%	100.0%	
	J턴형	10	26	17	53	
		18.9%	49.1%	32.1%	100.0%	
I턴형	47	63	40	150		
	31.3%	42.0%	26.7%	100.0%		
귀농기간	3년 이내	40	58	29	127	.016
		31.5%	45.7%	22.8%	100.0%	
	4년-6년	16	42	39	97	
		16.5%	43.3%	40.2%	100.0%	
7년-9년	9	27	18	54		
	16.7%	50.0%	33.3%	100.0%		
10년이상	10	27	26	63		
	15.9%	42.9%	41.3%	100.0%		
귀농 후 직업	무직	21	27	15	63	.058
		33.3%	42.9%	23.8%	100.0%	
	전업농	24	59	55	138	
		17.4%	42.8%	39.9%	100.0%	
겸업농	12	39	20	71		
	16.9%	54.9%	28.2%	100.0%		
비농업인	20	34	26	80		
	25.0%	42.5%	32.5%	100.0%		
영농 규모	1000평 미만	44	85	54	183	.172
		24.0%	46.4%	29.5%	100.0%	
	1000평- 3000평	24	40	32	96	
		25.0%	41.7%	33.3%	100.0%	
3000평 이상	9	35	30	74		
	12.2%	47.3%	40.5%	100.0%		

- 지역사회 적응도(친밀도, 고립도, 결속도)가 높은 귀농귀촌인 집단이 귀농귀촌을 통해 공동체와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다.

<표 4-69> 사회적 관계 * 귀농성취도(공동체와 생태적 가치)

		귀농성취도-공동체와 생태적 가치			계	유의 확률
		아니다	보통	그렇다		
갈등 관계	갈등 경험 없음	38	82	63	183	.442
		20.8%	44.8%	34.4%	100.0%	
	드문 편이다	31	58	33	122	
		25.4%	47.5%	27.0%	100.0%	
	갈등빈번	8	20	19	47	
		17.0%	42.6%	40.4%	100.0%	
친밀도	낮음	9	7	5	21	.000
		42.9%	33.3%	23.8%	100.0%	
	보통	36	63	14	113	
		31.9%	55.8%	12.4%	100.0%	
	높음	32	90	97	219	
		14.6%	41.1%	44.3%	100.0%	
고립도	낮음	30	77	71	178	.016
		16.9%	43.3%	39.9%	100.0%	
	보통	31	44	25	100	
		31.0%	44.0%	25.0%	100.0%	
	높음	15	37	19	71	
		21.1%	52.1%	26.8%	100.0%	
결속도	낮음	9	4	1	14	.000
		64.3%	28.6%	7.1%	100.0%	
	보통	28	37	16	81	
		34.6%	45.7%	19.8%	100.0%	
	높음	40	118	97	255	
		15.7%	46.3%	38.0%	100.0%	
동거 가족	혼자	11	34	22	67	.429
	살고 있음	16.4%	50.7%	32.8%	100.0%	
	가족과 함께	66	125	93	284	
	살고 있음	23.2%	44.0%	32.7%	100.0%	
배우자 지지도	지지함	42	83	78	203	.011
		20.7%	40.9%	38.4%	100.0%	
	보통	23	52	20	95	
		24.2%	54.7%	21.1%	100.0%	
	반대함	8	8	4	20	
		40.0%	40.0%	20.0%	100.0%	

3) 귀농귀촌 성공요인의 중요도 인식

- 귀농귀촌인 당사자들은 성공적인 귀농귀촌 요인으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을까? 성공적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요인별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나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성공적 귀농을 결

정하는데 매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를 5점 척도로 묻고 평균값을 계산하였을 때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왔다(M=4.228 점). 배우자와 자녀의 이해와 지지가 성공적 귀농에 매우 필수적인 사항임으로 알 수 있다.

<표 4-70> 성공요인 중요도 인식 평균값

	평균	표준편차
성공요인-사전농촌이해	3.8864	.81204
성공요인-가치신념	4.0258	.78924
성공요인-경제적여유	4.0997	.86108
성공요인-지자체공무원지원	3.9133	.97118
성공요인-주민관계	4.0171	.78540
성공요인-가족관계	4.2277	.72728
성공요인-전문능력	3.5242	.99361

- 귀농귀촌인 스스로 평가하는 성공적 정착요인으로 가족관계 다음으로 '귀농귀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와 신념'과 '경제적 여유자금과 안정적 소득'의 순으로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중요도 평가가 높게 나왔다. 경제적 안정이 귀농귀촌 성공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긍정의 비율이 가치와 신념 요인보다 높았지만, 귀농귀촌의 삶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의 비중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전체 평균값에서 가치와 신념 요인의 중요도 인식 평가의 평균값이 조금 높게 나온 것이다. 다른 요인들에 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귀농귀촌 이전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71> 귀농귀촌인의 성공요인 중요도 평가 (단위:%)

항목	부정	보통	긍정	평균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 이해와 교육	5.4	16.2	78.4	3.8864
경제적인 여유자금과 안정적 소득	4.2	16.2	79.6	4.0258
행복과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1.7	22.9	75.4	4.0997
정부정책이나 귀농지역의 지자체와 공무원의 지원	7.2	23.2	69.6	3.9133
마을주민과 지도자들과의 화합하고 어울리는 관계	2.6	19.6	77.8	4.0171
배우자나 자녀와의 가족관계	0.9	14.1	85.0	4.2277
귀농귀촌 이전에 갖고 있던 전문적인 경험, 지식, 능력	14.2	30.5	55.3	3.5242

- 한편, 귀농 성공도에 대한 종합적 자기평가와 성공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행복과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성공적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는 것과 귀농 성공도 인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2> 귀농성공도와 성공요인 중요도 간의 상관분석

	사전농 촌이해	가치 신념	경제적 여유	지자체 지원	주민 관계	가족 관계	전문 능력
귀농 성공 도	Pearson계수 .025	.121	.008	-.065	.043	.000	.002
	유의확률 .645	.024	.888	.231	.419	.995	.965
	N 351	348	350	345	350	346	350

- 다시 말해서, 다른 성공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보다 귀농귀촌해서 행복과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귀농귀촌 후 정착생활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으며, 역으로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가치와 신념의 요인을 중요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73> 귀농귀촌의 가치와 신념의 중요도 인식이 귀농성공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β	t	유의확률
독립변수- 가치와신념	.116	.121	2.269*	.024
F=5.150* / R2=.015				

- 다음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와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귀농귀촌의 성공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 여부를 측정하였다. “나는 가급적 마을주민이나 마을 일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설문을 지역사회 고립도 지표로 활용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0.2%가 마을주민과 지역사회와 피리된 채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74> 지역사회와의 고립도 평가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관계		부정	보통	긍정	평균
마을주민과 마을 일과 고립도	% (N=351)	51.0 (179)	28.8 (101)	20.2 (71)	2.5185

- 귀농귀촌 생활에서 지역사회와의 고립도 정도에 따라 귀농귀촌의 성공요인 중요도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을 통한 평균값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래 표와 같이 귀농귀촌 생활의 성공적 정착요인으로 ‘주민과의 친화적 관계’를 중요하게 꼽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귀농생활의 성공적 정착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75>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성공요인 인지도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성공요인 -사전농촌이해	고립감 낮음	177	3.9661	.79700	.174
	보통	100	3.8700	.84871	
	고립감 높음	71	3.7606	.72634	
	합계	348	3.8966	.80035	
성공요인 -경제적여유	고립감 낮음	175	4.1143	.81549	.992
	보통	101	4.1089	.95813	
	고립감 높음	71	4.0986	.83075	
	합계	347	4.1095	.85989	
성공요인 -가치신념	고립감 낮음	175	4.0343	.77235	.333
	보통	100	4.1100	.77714	
	고립감 높음	70	3.9286	.82218	
	합계	345	4.0348	.78426	
성공요인-지자체 공무원지원	고립감 낮음	173	3.9191	.99085	.875
	보통	100	3.9700	.92611	
	고립감 높음	69	3.8986	.95709	
	합계	342	3.9298	.96313	
성공요인 -주민관계	고립감 낮음	176	4.1250	.72997	.021*
	보통	100	3.9900	.75872	
	고립감 높음	71	3.8310	.84492	
	합계	347	4.0259	.76929	
성공요인 -가족관계	고립감 낮음	173	4.2254	.70796	.167
	보통	99	4.3131	.72346	
	고립감 높음	71	4.0986	.77745	
	합계	343	4.2245	.72892	
성공요인 -전문능력	고립감 낮음	176	3.4659	1.00796	.573
	보통	100	3.5800	1.00685	
	고립감 높음	71	3.5775	.95112	
	합계	347	3.5216	.99506	

5. 농촌사회발전에 대한 의견

1) 귀농귀촌과 농촌사회발전

- “일반적으로 귀농귀촌이 농촌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가”를 물었다. 조사 응답자의 약 60%에 해당하는 귀농귀촌인들이 자신들의 귀농귀촌이 농촌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4-76> 귀농귀촌의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 인식

		부정	보통	긍정	평균
농촌사회발전 기여도 평가	% (N=353)	11.9 (42)	27.5 (97)	60.6 (214)	3.6459

- 귀농귀촌이 농촌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학력, 귀농귀촌 동기유형, 귀농 후 직업, 배우자의 지지도 요인이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 수준에서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들의 귀농귀촌이 농촌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69.9%).
- 귀농귀촌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들이 농촌발전 기여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67.9%). 개인생활효용형 귀농귀촌인 집단이 대안가치추구형이나 경제생계형 유형(61.6%)보다 상대적으로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정도가 낮았다(46.3%).
- 귀농귀촌 후 농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일하는 형태를 구분하였을 때, 직업 형태별로 농촌발전 기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귀농귀촌 생활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매우 많았다는 점이다. 비농업인 응답자의 81.3%가 자신들이 농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전업농 귀농귀촌인의 51.8%가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다음으로 겸업농 귀농귀촌인의 64.3%가 자신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비농업인의 기여도 인식이 높은 이유로 여기에 마을간사 등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귀농귀촌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 학력이 높은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으로,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후

직업형태가 비농업인 경우, 즉 전업농이나 겸업농과 같은 농업 종사자가 아닌 이른바 귀촌인들에게서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4-77> 요인별 농촌발전 기여도 비교

		농촌발전 기여도			계	유의 확률
		도움된다	보통	도움안된다		
학력	중졸이하	43	23	14	80	.042
		53.8%	28.8%	17.5%	100.0%	
	고졸	72	43	17	132	
		54.5%	32.6%	12.9%	100.0%	
초대졸 이상	95	30	11	136		
	69.9%	22.1%	8.1%	100.0%		
귀농동기	경제생계형	45	23	5	73	.000
		61.6%	31.5%	6.8%	100.0%	
	가치추구형	107	31	14	152	
		70.4%	20.4%	9.2%	100.0%	
생활효용형	49	37	22	108		
	45.4%	34.3%	20.4%	100.0%		
귀농 후 직업	무직	32	22	10	64	.001
		50.0%	34.4%	15.6%	100.0%	
	전업농	71	44	22	137	
		51.8%	32.1%	16.1%	100.0%	
	겸업농	45	20	5	70	
		64.3%	28.6%	7.1%	100.0%	
비농업인	65	10	5	80		
	81.3%	12.5%	6.3%	100.0%		
배우자지 지도	지지함	134	46	22	202	.009
		66.3%	22.8%	10.9%	100.0%	
	보통	50	35	10	95	
		52.6%	36.8%	10.5%	100.0%	
반대함	9	5	6	20		
	45.0%	25.0%	30.0%	100.0%		

○ 마을 발전에 귀농귀촌인이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48%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귀농귀촌인 스스로 자신들이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19% 정도에 이른다.

<표4-69

<표 4-78> 귀농귀촌의 마을 발전 기여도 인식

		부정	보통	긍정	평균
마을 발전 기여도 평가	% (N=348)	18.7 (65)	33.6 (117)	47.7 (166)	3.3649

- 귀농귀촌이 마을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사회적 관계, 귀농귀촌기간, 귀농귀촌 후 직업, 배우자 지지도 요인에서 마을 발전 기여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자의 지지를 받는 사람과 귀농귀촌 후 비농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귀농귀촌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마을 일과 주민들과 고립적이지 않고, 친밀도와 결속감이 높은 귀농귀촌인일수록 자신들이 마을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친밀도가 높은 귀농귀촌인일수록 자신들이 마을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애郷심을 갖으며, 지역에 융화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자신들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마을 일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고 평가한 귀농귀촌인들도 고립도가 낮은 사람이 마을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마을발전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47.8%), 기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18.8%)보다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 귀농귀촌 동기 유형별로 마을발전 기여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교차분석(유의확률=0.068)과 분산분석(유의확률=0.062)의 통계적 유의도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생활효용형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마을발전 기여도 평가가 낮았다(39.6%). 경제생계형과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들의 약 50%가 자신들이 마을발전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표 4-79> 요인별 마을발전 기여도 비교

		마을발전 기여도			계	유의 확률
		기여한다	보통	기여하지 않음		
귀농기간	3년 이내	50	43	33	126	.007
		39.7%	34.1%	26.2%	100.0%	
	4년-6년	57	32	6	95	
		60.0%	33.7%	6.3%	100.0%	
	7년-9년	25	16	13	54	
		46.3%	29.6%	24.1%	100.0%	
	10년이상	30	21	10	61	
		49.2%	34.4%	16.4%	100.0%	
귀농 후 직업	무직	19	24	20	63	.015
		30.2%	38.1%	31.7%	100.0%	
	전업농	64	46	26	136	
		47.1%	33.8%	19.1%	100.0%	
	겸업농	37	21	11	69	
		53.6%	30.4%	15.9%	100.0%	
	비농업인	45	25	8	78	
		57.7%	32.1%	10.3%	100.0%	
지역주민 친화도	낮음	6	5	9	20	.001
		30.0%	25.0%	45.0%	100.0%	
	보통	43	40	27	110	
		39.1%	36.4%	24.5%	100.0%	
	높음	117	72	29	218	
		53.7%	33.0%	13.3%	100.0%	
지역사회 고립도	낮음	92	63	21	176	.007
		52.3%	35.8%	11.9%	100.0%	
	보통	40	29	30	99	
		40.4%	29.3%	30.3%	100.0%	
	높음	33	23	13	69	
		47.8%	33.3%	18.8%	100.0%	
지역사회 결속도	낮음	2	3	7	12	.000
		16.7%	25.0%	58.3%	100.0%	
	보통	25	30	25	80	
		31.3%	37.5%	31.3%	100.0%	
	높음	138	82	33	253	
		54.5%	32.4%	13.0%	100.0%	
배우자 지지도	지지함	107	58	34	199	.010
		53.8%	29.1%	17.1%	100.0%	
	보통	34	43	18	95	
		35.8%	45.3%	18.9%	100.0%	
	반대함	7	6	7	20	
		35.0%	30.0%	35.0%	100.0%	

2) 귀농귀촌과 영역별 농촌사회발전

- 세부 항목별로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조사했다. 분석 결과,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 들어옴으로써 농촌 인구증가를 통한 마을의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평가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연 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한다는 인식과, 농산물 가공 및 유통을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많았다.

<표 4-80> 귀농귀촌의 영역별 농촌사회발전 기여도 인식

영역별 농촌사회발전 기여도	부정	보통	긍정	평균값
농촌 인구증가를 통한 마을의 유지	6.8	28.1	65.1	3.7429
영농 인력의 증가	20.0	35.6	44.4	3.2722
농산물 가공/ 유통 등 농업 부가가치 증대	20.3	33.4	46.3	3.3229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24.3	40.2	35.5	3.1272
농촌의 문화, 복지 삶의 질 증진	19.0	37.6	43.4	3.2601
농촌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25.2	36.5	38.3	3.1111
행정 및 단체 실무 인력 보완	22.7	44.7	32.6	3.0836
마을 공동체(신뢰, 협력, 연대)의 회복	17.6	43.6	38.8	3.2299
마을 내 소통과 의사결정의 합리화	16.9	42.4	40.7	3.2436
도농교류의 확대	19.1	34.6	46.3	3.3092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과 문화	23.7	41.2	35.1	3.1239
농업 농촌정책의 개발과 발전	19.6	37.3	43.1	3.2701
자연생태환경의 보존	16.2	35.6	48.2	3.4103

3) 신뢰와 사회발전 평가

(1) 귀농귀촌 관련 대인 및 기관 신뢰도

- 귀농귀촌인은 마을주민들과 지도자 귀농인들을 대부분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마을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 반면에 기관 신뢰도는 대인 신뢰도에 비해 낮게 나왔다. 특히 지자체와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다. 상대적으로 귀농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38.6%로 높게 나왔다.

<표 4-81> 귀농귀촌인의 신뢰도

평가항목	부정	보통	긍정	평균값
마을 이장 및 지도자	10.4	35.1	54.5	3.5311
마을 주민	5.7	40.8	53.5	3.5524
주변 귀농인	9.7	46.1	44.2	3.4017
민간 귀농지원단체(뿌리협회)	21.9	50.8	27.3	3.0426
진안군 귀농귀촌 행정	29.0	47.2	23.8	2.8750
귀농정책 담당 중앙 정부	38.5	48.0	13.5	2.6343

(2) 귀농귀촌 마을 신뢰도

- 귀농귀촌인들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 일에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규범을 준수하고, 신뢰하다고 평가하는 쪽이 많았다. 귀농귀촌해서 살고 있는 마을의 사회적 자본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82> 지역사회 신뢰도 평가

지역 주민 평가	부정	보통	긍정	평균값
마을 주민들은 마을일에 협력과 소통을 잘 한다	12.7	39.4	47.8	3.4023
마을 주민들은 마을 자치 규범과 규칙을 잘 지킨다	11.6	42.8	45.6	3.3824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한다	19.6	46.7	33.7	3.1756

4) 귀농귀촌 성공도와 농촌사회(마을) 발전 기여도 인식의 관계

-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과 농촌사회 및 마을발전 기여도 인식은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 귀농귀촌에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높다는 점을 통계적 검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과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교차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귀농귀촌을 성공적으로 인식하는 귀농귀촌인의 73.6%는 자신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대로 귀농귀촌에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질수록 자신들의 귀농귀촌이 농촌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4-83> 귀농귀촌 성공도와 농촌발전 기여도 관계

		농촌사회발전 기여도			전체
		도움된다	보통	도움안된다	
귀농 귀촌 성공도	실패	빈도 15	12	7	34
		% 44.1%	35.3%	20.6%	100.0%
	보통	빈도 104	62	23	189
	% 55.0%	32.8%	12.2%	100.0%	
	성공	빈도 95	23	11	129
	% 73.6%	17.8%	8.5%	100.0%	
전체	빈도	214	97	41	352
	%	60.8%	27.6%	11.6%	100.0%

Pearson 카이제곱값=16.605 유의확률=0.002

-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은 마을발전 기여도에 대한 인식과도 유의미한 통계적 상관성을 갖는다. 귀농귀촌 성공도와 마을발전 기여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귀농귀촌을 성공적으로 인식하는 귀농귀촌인이 마을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68%). 귀농귀촌에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44%는 자신들의 귀농귀촌이 마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84> 귀농귀촌 성공도와 마을발전 기여도 관계

		마을발전 기여도			전체
		도움된다	보통	도움안된다	
귀농 귀촌 성공도	실패	빈도 10	9	15	34
		% 29.4%	26.5%	44.1%	100.0%
	보통	빈도 69	79	37	185
		% 37.3%	42.7%	20.0%	100.0%
	성공	빈도 87	29	12	129
		% 68.0%	22.7%	9.4%	100.0%
전체		빈도 166	117	64	347
		% 47.8%	33.7%	18.4%	100.0%

- 귀농귀촌의 성공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농촌사회 및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집단별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검증되었다. 귀농귀촌 성공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를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분석을 했을 때, 모형적합도의 R값이 .228, 수정된 R제곱값이 .049로, 표준화된 β값이.228인 유의도(유의확률0.000)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85> 귀농성공도에 따른 농촌발전 기여도 인식 회귀분석

모형	B	β	t	유의확률
독립변수 -귀농성공도	.383	.302	5.881***	.000
상수 3.897 / F=34.581*** / R2=.091				

- 이러한 발견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논지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을 높일수록 이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과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귀농귀촌인들을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과 사회적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과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된다.

6. 귀농정책

1) 귀농정책의 효과

(1) 귀농귀촌 정책의 효용

- 지자체와 정부의 귀농지원 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귀농귀촌인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평가한 결과는 긍정적인 응답(16.2%)보다 부정적인 응답(66.1%)이 훨씬 많았다. 민간 귀농귀촌 지원조직인 뿌리협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86> 귀농귀촌 지원정책 효용성 평가

평가 항목	부정	보통	긍정	평균
현재 정부의 귀농지원정책이 귀농귀촌생활에 도움이 된다	56.1	27.5	16.4	2.3116
현재 진안군의 귀농지원정책이 귀농귀촌생활에 도움이 된다	51.5	29.6	18.9	2.4314
뿌리협회의 귀농지원사업과 활동이 도움이 된다	51.2	34.5	14.3	2.4000

- 정부의 귀농정책에 대한 평가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유일하게 연령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보다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귀농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은 점이 시사적이다.

<표 4-87> 연령별 정부의 귀농정책 평가 비교

		정부정책평가			계	유의 확률
		부정	보통	긍정		
연령	20-30대	21	20	13	54	.043
		38.9%	37.0%	24.1%	100.0%	
	40대	59	35	13	107	
		55.1%	32.7%	12.1%	100.0%	
	50대	64	22	20	106	
		60.4%	20.8%	18.9%	100.0%	
60대 이상	53	19	12	84		
	63.1%	22.6%	14.3%	100.0%		

- 진안군의 귀농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평가하는데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귀농귀촌 동기별 유형 분류에서 개인생활효용형 집단, 즉 건강이나 교육 등을 목적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지원 정책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지역사회 친밀도가 높은 귀농귀촌인 집단에서 지자체 정책에 대한 효용성을 긍정하는 편이 많았다.

<표 4-88> 요인별 진안군 귀농정책 평가 비교

		진안군정책평가			계	유의 확률
		부정	보통	긍정		
귀농 동기	경제생계형	34	21	15	70	.001
		48.6%	30.0%	21.4%	100.0%	
	가치추구형	75	37	41	153	
	49.0%	24.2%	26.8%	100.0%		
생활효용형	61	39	7	107		
	57.0%	36.4%	6.5%	100.0%		
지역사회 친밀도	낮음	13	6	2	21	.049
		61.9%	28.6%	9.5%	100.0%	
	보통	69	26	17	112	
		61.6%	23.2%	15.2%	100.0%	
높음	98	72	47	217		
	45.2%	33.2%	21.7%	100.0%		

2) 진안군의 귀농귀촌정책에 대한 평가

- 진안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평가하도록 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효용도가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귀농귀촌 행사와 홍보활동에 대한 효용도 평가가 높았다.

<표 4-89>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항목별 평가 (단위: %)

평가항목	부정	보통	긍정	처음 들어서 알지 못함
마을 간사제도(사무장, 산촌 매니저 포함)	49.7	23.4	18.6	8.3
귀농 귀촌 상담과 안내	48.9	28.0	16.8	6.3
사회적 일자리 소개와 알선	54.7	23.5	14.6	7.2
귀농귀촌 체험 교육 프로그램	47.1	29.4	16.9	6.6
귀농귀촌 행사(문화제, 읍면 모임)	38.5	37.2	20.0	4.3
집들이 비용 지원	54.1	23.1	17.4	5.4
귀농귀촌 자금 지원과 융자	53.7	17.6	21.9	6.8
문자 서비스, 소식지 발송	39.4	30.0	26.9	3.7

3) 정부의 귀농종합대책 평가

- 정부의 귀농종합대책이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귀농정착 자금지원이나 융자 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표 4-90> 정부의 귀농종합대책 효용성 평가

평가항목	부정	보통	긍정	평균
귀농정착 자금지원·융자 (빈집수리/농가구입/귀농인의 집)	11.5	12.6	75.9	3.9771
귀농귀촌 정보서비스 및 교육시스템 (온라인교육)	11.5	18.3	70.2	3.7931
귀농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 (농산업 인턴제도)	12.7	19.0	68.3	3.7522
귀농귀촌 홍보	14.7	20.3	65.0	3.6638

V.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진안군 11개 읍면 295개 행정리 마을 주민들을 모집단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마을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 응답지는 총 512부였으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 설문지 468부를 조사 분석에 활용하였다.
- 귀농귀촌에 대한 마을주민 설문조사의 분석에 활용된 진안군 마을주민 468명의 조사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5-1> 원주민 조사응답자의 특성

		빈도(명)	비율(%)
연령	20-30대	33	7.2
	40대	72	15.8
	50대	144	31.6
	60대이상	207	45.4
	소계	456	100.0
학력	중졸이하	276	61.5
	고졸	131	29.2
	초대졸이상	42	9.4
	소계	449	100.0
	이장	58	13.6
마을내지위	노인회장	30	7.0
	부녀회장	46	10.8
	새마을지도자	45	10.5
	개발위원장	43	10.1
	주민	205	48.0
소득	소계	427	100.0
	1000만원미만	97	24.1
	1000만원-3000만원	170	42.2
	3000만원이상	136	33.7
	소계	403	100.0
영농면적	1000평미만	157	33.5
	1000평-3000평	125	26.7
	3000평이상	186	39.7
	소계	468	100.0

- 마을주민 조사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60대 이상이 전체 조사자의 45.4%로 가

장 많았고, 50대가 31.6%, 40대 이하가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 마을 내에서 응답자의 지위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52%인 222명이 마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마을 5대 지도자(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였고, 나머지 48%가 마을 주민들로 표집되었다.
- 원주민 조사결과 분석에서는 원주민을 마을리더 그룹(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과 주민으로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계, 성공적 정착요인과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 마을특성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 진안군 11개 읍면별 지역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마을이 귀농귀촌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40%는 귀농귀촌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8.2%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표 5-2> 귀농마을적합도

		부정	보통	긍정	평균
귀농귀촌 마을적합도	%	18.2	42.9	38.9	3.2704
	(N=429)	78	184	167	

- 진안군 지역주민들은 마을 발전에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구증가, 소득증대, 젊은 층 유입 등이 마을 발전의 필요조건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3> 마을발전에 필요한 요인 (1순위)

	빈도	비율	
주민참여	126	27.3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교육	43	9.3	
마을리더 육성	35	7.6	
마을 문화전통보전	14	3.0	
정부, 지자체지원 확대	48	10.4	
마을 발전 필요 요인	정보화	19	4.1
도시민과의 교류	6	1.3	
인구증가	55	11.9	
소득증대	54	11.7	
젊은층 유입	54	11.7	
경관보전 및 환경문제해결	5	1.1	
기타	2	0.4	
Total	461	100.0	

- 마을발전을 위해 두 번째 중요한 요인들을 묻은 2순위 응답에서는 소득증대를 꼽은 주민들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젊은 층을 유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5-4> 마을발전에 필요한 요인 (2순위)

	Frequency	Valid Percent	
주민참여	33	7.2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교육	49	10.7	
마을리더 육성	43	9.4	
마을 문화전통보전	20	4.4	
마을 발전 필요 요인	정부, 지자체지원 확대	34	7.4
정보화	25	5.5	
도시민과의 교류	18	3.9	
인구증가	41	9.0	
소득증대	95	20.7	
젊은층유입	82	17.9	
경관보전 및 환경문제해결	14	3.1	
기타	4	0.9	
Total	458	100.0	

-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들어와 거주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 대다수는 매우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응답자의 88%가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에서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귀농귀촌인의 마을거주 호감도

		긍정	부정	평균
귀농귀촌인 마을거주 평가	% (N=461)	405 87.8	56 12.2	1.8980

- 현재 응답자의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생활태도와 방식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만족한다'라는 의견이 '불만이다'라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마을주민 조사응답자들의 14.5%가 귀농귀촌인들의 생활태도를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귀농귀촌인의 생활태도 만족도

		부정	보통	긍정	평균
귀농귀촌인 생활방식 만족도	% (N=453)	66 14.5	212 46.8	175 38.7	3.2649

- 마을주민들의 귀농귀촌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세부항목별로 귀농귀촌인들의 행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평가하는 세 가지 항목들 중에서는 '귀농귀촌인이 마을주민의 한 사람'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53%로 나타나 지역사회 융화도나 마을문화의 존중도에 동의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주민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융화되려고 노력한다고 보는 사람은 응답자의 41.3%였고, 마을주민 응답자의 16.7%는 귀농귀촌인들이 주민과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귀농귀촌인들이 농촌마을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41.6%가 동의하고, 16.8%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귀농귀촌인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부정	보통 이다	긍정	평균
귀농인들은 마을주민들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화합하려고 노력한다	16.7	42.0	41.3	3.2955
귀농인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농촌 마을 고유의 전통 문화를 존중한다	16.8	41.6	41.6	3.2716
귀농인은 마을주민(공동체)의 한 사람이다	15.4	31.6	53.0	3.4208
귀농인들은 마을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곧 떠날 사람들이다	43.4	34.7	21.9	2.7289
귀농인들은 마을주민들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행동한다	37.9	32.8	29.3	2.8939
귀농인들은 화합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고집만 내세운다	45.2	34.8	20.0	2.6848
귀농인들은 마을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귀농해 살고있다	37.6	34.1	28.3	2.8747

○ 반면에,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부정적 평가 항목들 가운데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우월의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자의 약 29% 정도에 해당하는 마을주민들이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주민들보다 자신들의 우월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귀농귀촌인들의 우월적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 다음으로 귀농귀촌인들의 대인관계에 관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5-8>은 귀농귀촌인들의 마을 내 사회적 관계를 주민들의 시각에서 평가한 것이다.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마을지도자, 행정 공무원과의 관계를 비교할 때, 귀농귀촌인들은 마을지도자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귀농귀촌인과 공무원과의 친밀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표 5-8> 귀농귀촌인들의 사회적 관계 평가 (단위:%)

항 목	부정	보통	긍정	평균
귀농인들은 살고 있는 지역의 귀농귀촌인과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	14.5	46.5	39.0	3.3168
귀농인들은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주민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16.3	47.7	36.0	3.2731
귀농인들은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지도자(이장)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13.7	46.1	40.2	3.3801
귀농인들은 진안군 행정 및 공무원과 친하게 지낸다	17.1	47.9	35.0	3.2619

- 마을주민들이 보기에 귀농귀촌인들은 마을회의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을 일에 참여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33.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21.5%보다 더 높게 나왔다. 마을주민들과 관련된 관혼상제 의례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귀농귀촌인의 마을 참여도 평가

항 목	부정	보통	긍정	평균
마을회의나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33.4	44.1	22.5	2.8473
마을 경제활동(영농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29.3	38.8	31.9	3.0630
마을주민들과 관련된 의례(결혼식)에 참여	35.8	40.3	23.9	2.8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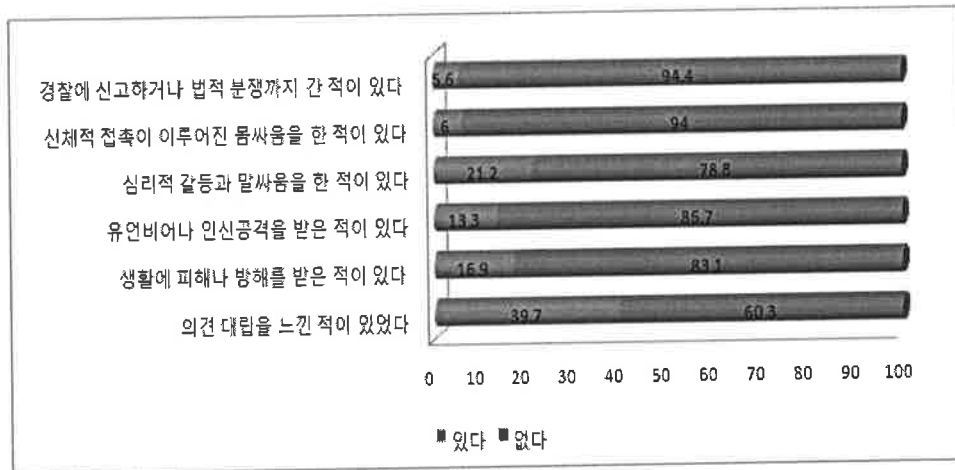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마을리더와 주민의 인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평가에서 마을 내 리더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도자 집단이 일반주민에 비해 귀농귀촌인을 마을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에, 귀농귀촌인이 마을회의나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 마을리더보다 귀농귀촌인들의 참여도를 더 높게 인정하였다.
-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일환으로 갈등 관계를 파악하였다. 마을주민 응답자의 39.7%는 귀농귀촌인과 의견대립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귀농귀촌인과 말싸움을 경험한 마을주민도

21.2%에 달했다.

<표 5-10> 귀농귀촌인과의 갈등 경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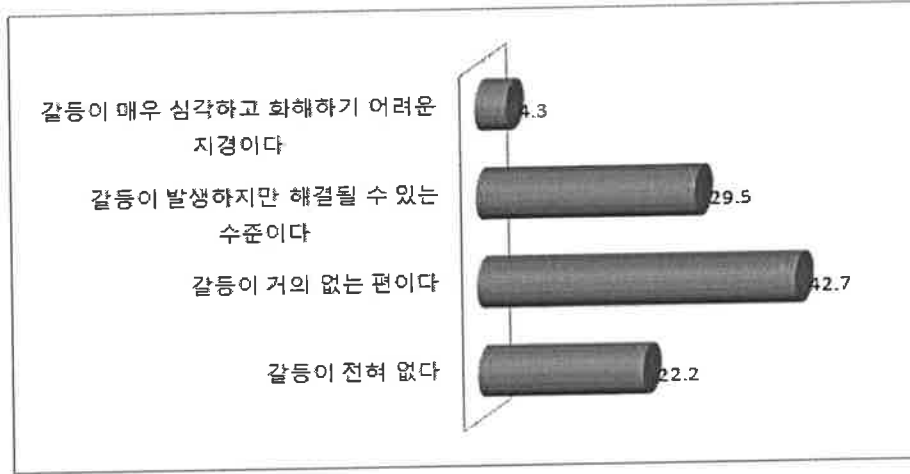
평가항목	있다		없다		N
	%	(명)	%	(명)	
의견 대립을 느낀 적이 있었다	39.7	(186)	60.3	(282)	468
생활에 피해나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16.9	(78)	83.1	(384)	462
유언비어나 인신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13.3	(62)	86.7	(405)	467
심리적 갈등과 말싸움을 한 적이 있다	21.2	(99)	78.8	(369)	468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몸싸움을 한 적이 있다	6.0	(28)	94.0	(440)	468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분쟁까지 간 적이 있다	5.6	(26)	94.4	(442)	468

<그림 5-1> 귀농귀촌인과의 갈등 경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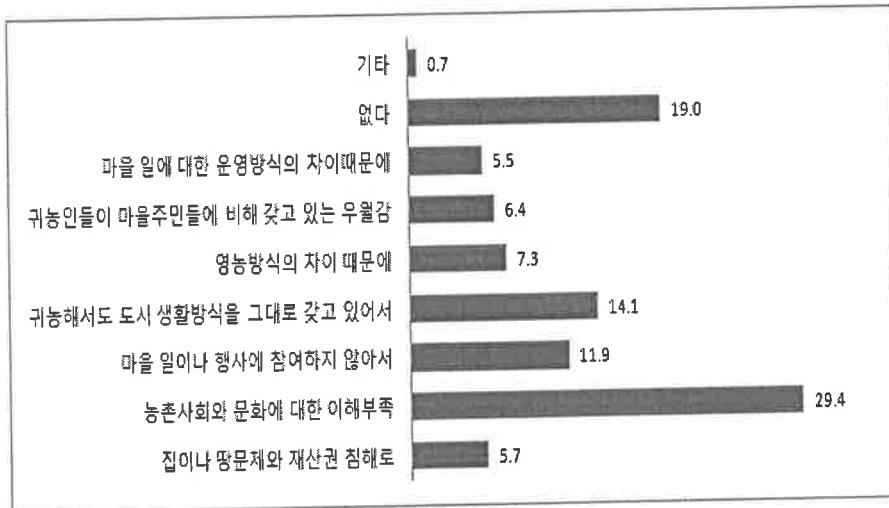
- 마을 내에서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간의 갈등의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갈등이 거의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42.7%). 전체 응답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마을주민들은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5-2> 귀농귀촌인과의 갈등정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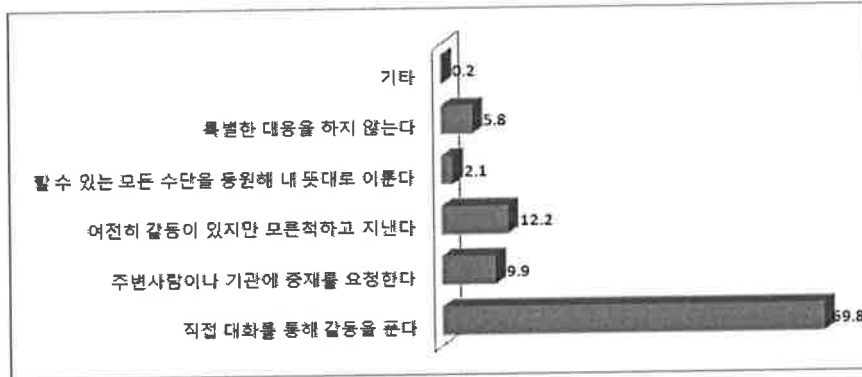
- 마을주민들은 귀농귀촌인과의 갈등발생 요인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꼽았다. 마을주민들은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농촌 주민들의 정서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이 후에도 도시에서의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5-3> 갈등발생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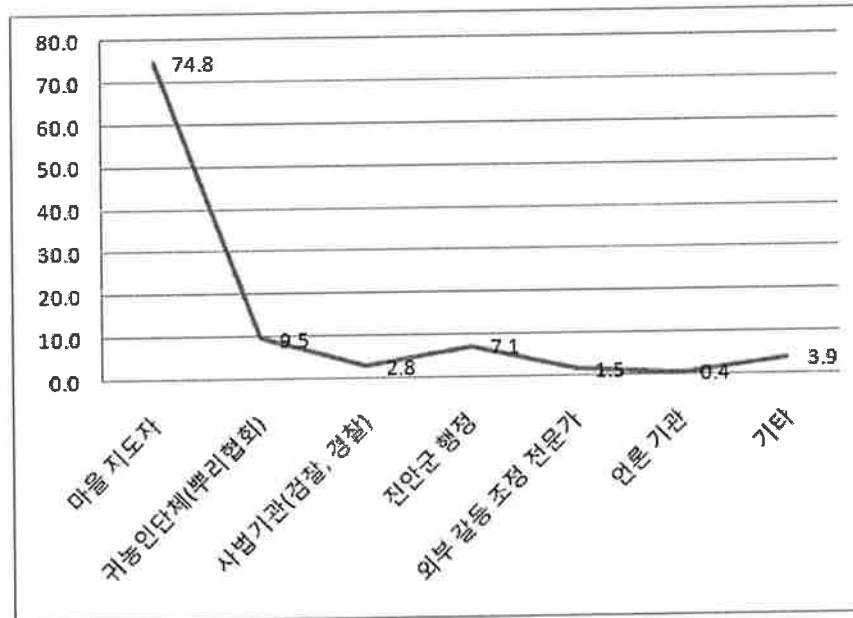
-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는 역시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 5-4> 갈등 대응 양식



- 갈등이 생겼을 때, 마을주민들은 마을지도자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응답자의 74.8%에 이르는 마을주민들이 갈등 해결의 주체로 마을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그림 5-5> 갈등해결 주체



- 갈등발생 요인에 대한 마을리더들과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마을리더들은 집이나 토지의 재산권 침해 문제, 마을 운영방식의 차이,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는 항목에서 마을주민들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마을주민들은 영농방식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항목에서 마을리더보다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마을리더들은 농촌사회 내부의 기득권을 둘러싼 갈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마을주민들은 영농방식과 같이 일상적인 갈등에 주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을리더들은 귀농귀촌인과 심리적 갈등이나 말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에서 일반주민들보다 갈등 경험도가 더 많았다.

3. 귀농귀촌 성공요인

-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의 성공요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물질적 지원보다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다.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이 정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이해와 교육, 그리고 마을주민과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 귀농귀촌인 조사에서 적용하였던 동일한 질문을 사용해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의 성공요인을 파악하였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성공요인들을 비교할 때, 마을주민들은 '마을주민과 지도자들과의 화합하고 어울리는 관계를 귀농귀촌에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와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 및 경제적 안정이 귀농귀촌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11> 원주민의 귀농귀촌 성공요인 평가

항목	부정	보통	긍정	평균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 이해와 교육	4.7	24.7	70.6	3.8391
경제적인 여유자금과 안정적 소득	6.0	24.9	69.0	3.8182
행복과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5.1	29.3	65.6	3.7866
정부정책이나 귀농지역의 지자체와 공무원의 지원	9.0	34.0	57.0	3.6156
마을주민과 지도자들과의 화합하고 어울리는 관계	4.5	25.9	69.6	3.9122
배우자나 자녀와의 가족관계	4.5	27.5	68.0	3.8609
귀농귀촌 이전에 갖고 있던 전문적인 경험, 지식, 능력	7.3	31.8	60.9	3.7183

4. 귀농귀촌 실패요인

- 주변의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에 실패하고 떠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은 사전 준비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경제적 이유를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요인으로 꼽은 주민들이 많았는데, 자금부족 이유가 13%,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문제가 11.4%를 차지했다.
- 마을 원주민들이 보기에 귀농귀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하기 이전에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와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가족의 지지와 농촌생활에 대한 신념 등의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귀농귀촌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과 친화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표 5-12> 원주민의 귀농귀촌 실패요인 평가

항목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사전 준비부족	220	47.5	36	8.0
자금부족	60	13.0	75	16.7
정부와 지자체에 의존적 태도	28	6.0	46	10.3
마을주민과의 불화	42	9.1	32	7.1
귀농귀촌의 철학부재	17	3.7	39	8.7
소득원확보문제	53	11.4	104	23.2
문화, 의료, 복지문제	12	2.6	29	6.5
귀농정책 문제	12	2.6	19	4.2
가족의 분리문제	4	0.9	28	6.3
귀농귀촌관련 사회교육부족	7	1.5	37	8.3
기타	8	1.7	3	0.7
계	463	100.0	448	100.0

5. 농촌사회발전에 대한 의견

1) 귀농귀촌인과 사회발전

- 귀농귀촌인이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주민들이 더 많았다. 귀농귀촌인의 마을 발전 기여도를 묻는 항목에서 주민들의 43.6%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응답했고, 도움이 안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18.1%였다.

<표 5-13> 귀농귀촌인의 마을발전 기여도

항 목		긍정	보통	부정	평균
귀농인의 마을 발전 기여도	%	197	173	82	2.7168
	(N=452)	43.6	38.3	18.1	

2) 귀농귀촌인과 영역별 사회발전

○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세부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마을주민들의 응답을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비교해보면 농촌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마을 유지에 기여한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귀농귀촌인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는 응답과 도농교류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는 응답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귀농귀촌인이 농산물 가공 유통을 통한 농업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한다는 항목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24.2%)보다 동의한다는 의견(29.3%)이 조금 많았으나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표 5-14>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발전 기여도 (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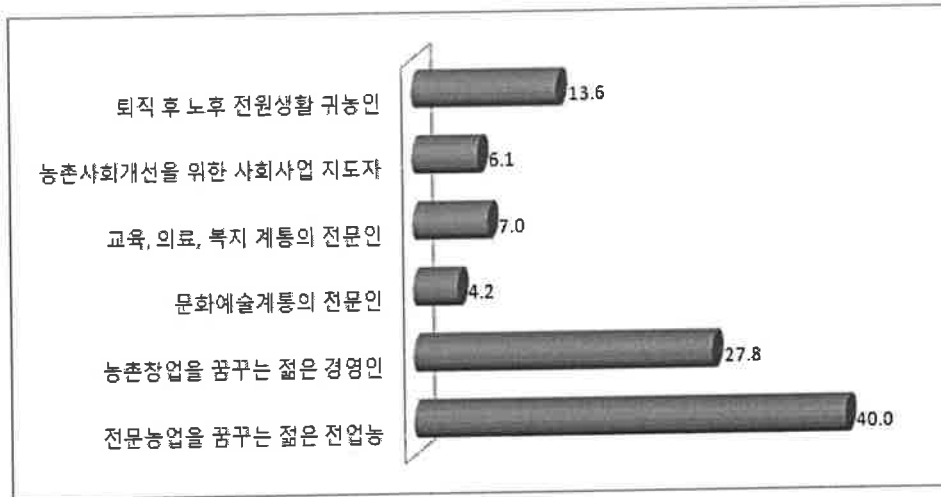
기여도	부정	보통	긍정	평균
농촌인구를 늘려 마을을 유지	16.1	41.3	42.6	3.3105
영농 후계자 인력의 확보	20.9	43.4	35.7	3.1775
농산물 가공/유통 농업 부가가치 증대	24.2	47.0	28.8	3.0628
농촌의 문화, 복지 삶의 질 증진	21.8	48.8	29.4	3.0753
농촌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24.5	45.8	29.7	3.0452
행정 및 단체 실무 인력 보완	23.3	46.7	30.0	3.0475
마을 공동체(신뢰, 협력)의 회복	17.9	45.8	36.3	3.2052
마을 내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	19.9	49.4	30.7	3.1231
도농교류의 확대	19.1	42.7	38.2	3.2061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과 문화	21.9	45.3	32.8	3.1215
자연생태환경의 보존	21.7	47.1	31.2	3.1032

○ 마을 지도자들은 마을 주민들에 비해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세부 항목별로 물은 질문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소통 및 합리적 의사결정, 혁신적 리더십의 형성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주민들보다 마을 지도자들이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 마을주민들은 전문 농업을 주업으로 갖는 젊은 전업농을 마을 발전에 가장 필요한 귀농귀촌인으로 선호했다(40%). 다음으로 농촌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 경영인이 마을 발전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27.8%).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귀농귀촌인을 마을에 유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교육, 복지, 문화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나 농촌 사회 개선을 위한 활동가들이 마을 발전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는 적었다.

<그림 5-6> 마을 발전에 필요한 귀농귀촌인 선호도



- 요약하면,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세부 항목별 평가에서 경제적 기여와 삶의 질 증진에 대한 기여도는 다른 기여도에 비해 미세하지만 낮은 평가를 받았다. 농산물 가공 유통을 통한 농업 부가가치 증대의 기여도 항목을 보면, 기여한다는 의견(29.3%)이 기여하는 게 없다는 의견(24.2%)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 반면에, 마을 발전에 필요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수요는 젊은 전업농이나 젊은 농촌창업 경영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이 농촌의 문화, 복지, 삶의 질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였고, 교육, 문화, 복지 및 농촌사회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에 대한 수요는 낮았다. 귀농귀촌인들이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서비스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보다 지

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귀농귀촌인과 마을의 부정적 변화

- 귀농귀촌인이 마을 발전과 주민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만 갖는 것은 아니다. 세부 내용별로 귀농귀촌인이 농촌마을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그다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표 5-15> 귀농귀촌인의 부정적 영향

농촌마을에 미친 부정적 영향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평균
경제적인 피해(땅값상승, 영역침범)를 보았다	60.3	27.3	12.4	2.3803
마을 내부의 분쟁과 갈등이 심해졌다	57.6	30.1	12.3	2.3961
마을 토착주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다	57.8	31.2	11.0	2.3723
전반적으로 마을 공동체적 성격이 약해졌다	56.6	29.2	14.2	2.4366
마을 주민들간에 불신이 커졌다	61.4	26.3	12.3	2.3190
전체적으로 마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64.9	25.8	9.3	2.2511

-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마을 리더보다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귀농귀촌인의 부정적 효과를 평가하는 모든 항목에서(경제적 피해, 마을 공동체의 분쟁, 자존심에 상처, 공동체적 성격의 약화와 불신, 전반적인 나쁜 영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마을리더와 주민들간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고, 주민들이 리더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원주민들 가운데 마을 리더들은 귀농귀촌인이 마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마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마을 내의 기득권과 리더십에 도전받을 입장에서 귀

농귀촌인과 갈등의 발생 소지를 안고 있다. 마을 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마을 주민들은 보다 일상적인 생활방식(영농)에서 귀농귀촌인과 마찰을 빚으며 귀농귀촌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주시하고 있다.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들 모두 양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로 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처럼, 귀농귀촌인이 마을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착에 성공하고 농촌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마을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6. 귀농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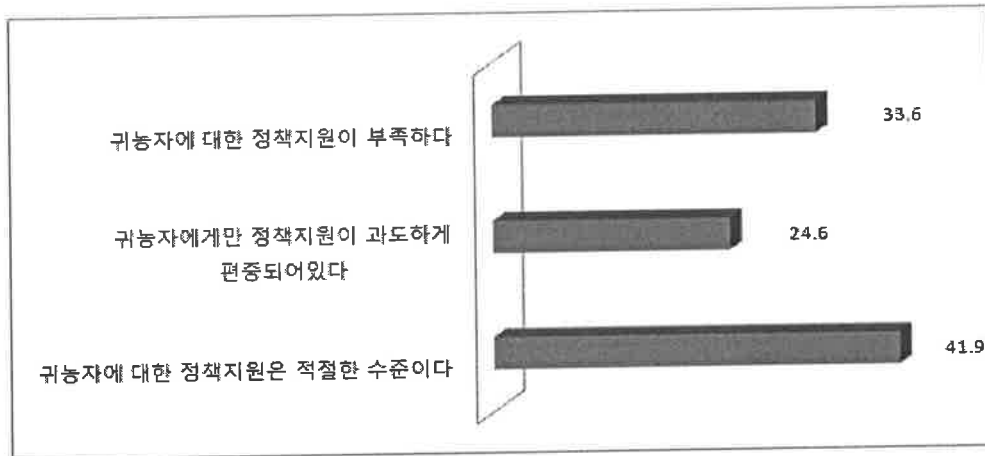
-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민간지원단체 등 귀농귀촌 지원정책 주체를 나누어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마을주민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정책 주체별 평가에 큰 차이는 없었다. 정부, 지자체, 민간귀농단체(뿌리협회)의 귀농지원 정책이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 원주민들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지원단체의 귀농귀촌 정책지원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각 지원 주체별 정책효과의 평가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간의 차이가 약 10%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농촌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들이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표 5-16> 마을주민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평가

평가 항목	부정	보통	긍정	평균
현재 정부의 귀농지원정책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발전에 도움이 된다	18.6	52.4	29.0	3.0644
현재 진안군의 귀농지원정책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	20.0	50.1	29.9	3.0707
현재 민간귀농인단체(뿌리협회)의 귀농지원정책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	17.5	52.2	30.3	3.0948

-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토착주민과의 정책과 비교하여 형평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24.6%가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림 5-7> 진안군 귀농정책의 형평성



VI.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1) 귀농귀촌인 조사결과와 시사점

(1) 귀농귀촌인의 특성과 유형

- 진안군 귀농귀촌인의 이전 직업은 사무/서비스/기술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31.8%). 귀농귀촌 이전 거주지역으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였던 사람들이 38.8%(138명)로 가장 많았다. 조사응답자의 92%가 진안이 최초 귀농지라고 응답했으며, 진안군을 귀농귀촌지로 선택한 이유로는 고향이나 친척이 있는 연고지란 점과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 귀농귀촌 경로를 기준으로 파악한 유형으로 분류하면, 조사 응답자 가운데 U턴형이 41.1%, J턴형이 15.5%, I턴형이 43.4%였다. I턴형 귀농귀촌인이 가장 많은 점과 U턴형 비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진안군 귀농귀촌인들의 가족과의 동거현황을 살펴본 결과, 혼자 살고 있는 귀농귀촌인이 전체의 19.3%, 1인 가족이 34.8%, 2인 이상이 45.9%였다. 동거가족 형태는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대부분(80.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귀농귀촌을 결정한 이후 귀농귀촌을 준비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조사자의 39.1%가 준비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3년 이상 준비한 귀농인은 61명으로서 전체의 1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응답자를 기준으로 진안군 귀농귀촌인의 평균 귀농준비 기간은 25.3개월, 즉 1년가량 인 것으로 파악된다.
- 귀농귀촌 준비과정 평가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와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다른 항목과 비교해서 준비가 잘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영농기술과 경험에 대한 준비와 정착기반이 되는 자금이나 토지를 준비하는데 소홀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동기와 행태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의 유형을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귀농귀촌 유형별로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첫째, '경제생계형'은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귀농귀촌한 집단으로 가업을 이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관련 사업 및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설문항에서 집안의 영농승계,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위해, 농촌이 향후 투자가치가 높아서, 도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에 경제생계형으로 유형화시켜 재분류하였다.
- 둘째, '대안가치추구형'은 경제적 목적과 개인적인 효용을 넘어서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과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이들은 귀농귀촌의 동기와 생활방식에서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며, 나아가 농촌공동체의 의의와 자연생태계의 보존을 중시하는 귀농귀촌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농(農)의 가치를 실현하고 농촌의 자연 생태적 삶 속에서 마을 발전과 자신의 귀농귀촌의 삶을 연결짓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을 갖는 귀농귀촌동기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문항에서 생태·공동체·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서, 농사일이 좋아서, 도시적 삶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하고자,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안가치추구형'에 포함시켰다.
- 마지막으로 '개인생활효용형'은 귀농귀촌의 동기와 귀농귀촌한 이후의 삶의 목적이 주로 자신과 가족 개인의 생활상의 편의나 효용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건강, 여가, 가족과 같이 생활 속의 개인적 효용을 위해서 귀농귀촌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의 아토피 치유를 위해 한시적인 기간 동안 농촌마을에 내려와 있는 경우나, 인생 휴가형이라 부르는 것처럼 노후의 삶을 농촌에서의 여가활동을 통해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설문항에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 때문에,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가족 친지와 가깝게 살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귀농귀촌인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 귀농귀촌 동기유형을 이주패턴별 유형(U턴, J턴, I턴형)과 교차 비교한 결과,

대안가치추구형은 I턴형이 가장 많았으며(57.5%), 경제생계형(63.4%)과 개인생활효용형(51.4%)은 U턴형이 많았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공동체적 가치를 찾아 귀농귀촌한 대안가치추구형은 주로 대도시에서 태어나 농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경제적 목적이나 생활상의 효용을 위해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로 돌아온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귀농귀촌 동기 유형별로 비교할 때,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들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생활효용형은 은퇴 후 여가생활을 귀농귀촌의 동기로 포함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다. 경제생계형은 전업농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53.4%). 개인생활효용형도 전업농이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30.5%). 대안가치추구형은 다른 동기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2중결업(농업외소득이 많음)이나 비농업직 종사자가 많았다.
- 귀농귀촌 시기별로 귀농귀촌 유형의 변화 추세도 나타났다. 최근에 들어 경제생계형 귀농귀촌인은 줄고, 개인생활효용형과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이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2002년 이후 경제생계형이 줄고 대안가치추구형이 증가했다. 본 연구 역시 다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2)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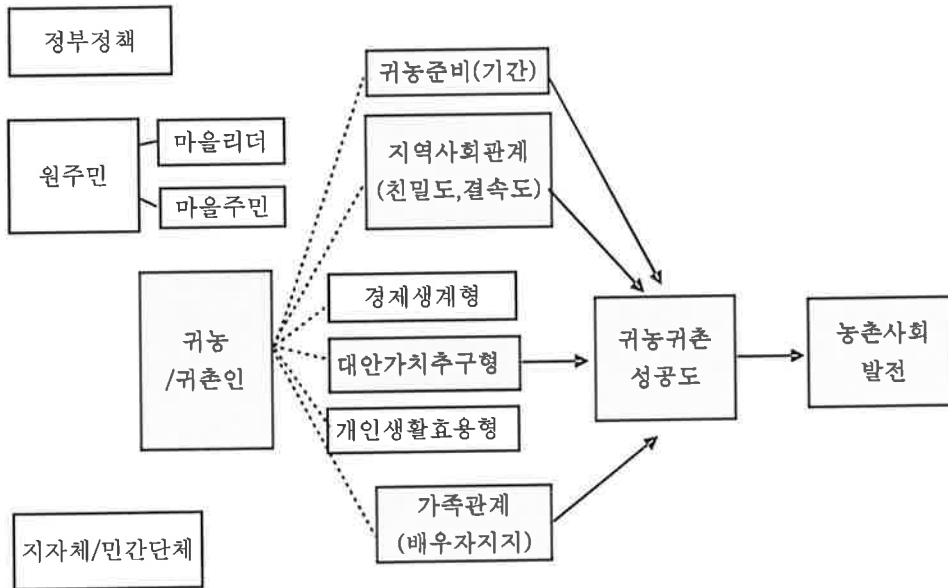
- 진안군의 귀농귀촌인들은 귀농귀촌 성공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었다. 실패했다는 응답률(9.9%)보다 성공적이라는 응답률(36.4%)이 더 많았다.
- 귀농귀촌인의 특성을 구분하여 집단별로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 평가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관계 요인들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와 마을주민과의 친밀도, 결속도, 고립도에 따라 성공도 인식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서, 귀농귀촌 이후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주민, 지도자, 공무원, 귀농인)과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마을과 지역사회에 소속감과 융화도가 높을수록, 고립도가 낮을수록 귀농귀촌에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친밀도와, 지역사회 공동체로의 결속도

와 같은 사회적 관계 요인이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 가족관계 요인 중에서는 특히 배우자가 귀농귀촌 생활을 지지할수록 귀농귀촌의 성공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에,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연령, 학력, 소득)과 귀농귀촌 행태 요인들(귀농기간, 귀농 유형, 직업, 경작규모)은 귀농귀촌의 성공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귀농귀촌 후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성공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계적 유의도 범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도 성공적 정착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 집단이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을 성공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한편, 귀농귀촌 동기를 크게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으로 구분했을 때, 귀농귀촌 동기에 따라 성공도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 집단이 경제생계형과 개인효용형 귀농귀촌인들보다 자신들의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은퇴 후 전원생활이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귀농귀촌한 개인생활효용형 귀농귀촌인 집단에서 성공도 여부를 낮게 평가하였다.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기간에 따라서도 자신들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성공도 평가가 달라졌다.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이유로 사전준비 부족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던 점과 관련시켜 볼 때,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에 귀농귀촌 이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 귀농귀촌 성공도를 종속변인으로 삼아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추출한 결과, 지역사회, 가족관계, 귀농동기, 귀농준비 변수들이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들이 밝혀졌다. 종합하면, 충분한 귀농준비 기간을 갖고, 지역사회에 융화되려고 노력하면서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배우자의 지지를 얻고, 농촌사회가 갖는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귀농귀촌인일수록 자신들의 귀농귀촌 생활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가족관계, 귀농귀촌의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 귀농귀촌 생활의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5-8 > 귀농귀촌 성공도 요인과 농촌발전



(3)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마을) 발전 기여도 인식

- 귀농귀촌인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귀농귀촌이 농촌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보통이다'라는 응답을 포함하면 88.1%).
-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차이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력, 귀농동기, 귀농후 직업, 배우자의 지지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이 높은 대안

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이며,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후 직업형태가 비농업인 경우, 즉 전업농이나 겸업농과 같은 농업 종사자가 아닌 이른바 귀촌인들에게서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마을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배우자의 지지를 받는 사람과 귀농귀촌 후 비농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귀농귀촌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마을 일과 주민들과 고립적이지 않고, 친밀도와 결속감이 높은 귀농귀촌인일수록 자신들이 마을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과 농촌사회 및 마을발전 기여도 인식은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 귀농귀촌에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높다는 점을 통계적 검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이러한 발견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논지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을 높일수록 이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과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귀농귀촌인들을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과 사회적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과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된다.

2) 원주민 조사결과와 시사점

(1)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 진안군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들어와 거주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반면에, 귀농귀촌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항목들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우월의식을 지적하는 비율이 많았다(29%).

- 마을주민들은 귀농귀촌인들이 마을 일에 참여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귀농귀촌인들이 마을회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33.4%)이 긍정적인 응답(21.5%)보다 더 높게 나온 점이 주목된다.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과의 갈등이 거의 없거나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응답했다.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갈등발생 요인으로는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귀농귀촌 이후에도 도시에서의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간의 갈등을 줄이고 공생하는 관계를 위해서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촌사회의 고유한 생활방식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과 귀농귀촌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2) 귀농귀촌 성공요인에 대한 평가

-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의 성공요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물질적 지원보다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다.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이 정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이해와 교육, 그리고 마을주민과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 원주민들이 보기에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전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47.5%). 귀농귀촌하기 이전에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와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가족의 지지와 농촌생활에 대한 신념 등의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귀농귀촌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과 친화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3) 농촌사회 발전에 대한 의견

-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이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편이었다. 원주민 응답자의 43.6%가 귀농귀촌인이 마을 발전에 기여한다고 응답했고, 18.1%

는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세부 항목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에서는 농촌인구가 늘어나 마을 유지에 기여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귀농귀촌인이 영농후계 인력을 확보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농교류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세부 항목별 평가에서 경제적 기여와 삶의 질 증진에 대한 기여도는 다른 기여도에 비해 미세하지만 낮은 평가를 받았다. 농산물 가공 유통을 통한 농업 부가가치 증대의 기여도 항목을 보면, 기여한다는 의견(29.3%)이 기여하는 게 없다는 의견(24.2%)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
- 반면에, 마을 발전에 필요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수요는 젊은 전업농이나 젊은 농촌창업 경영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이 농촌의 문화, 복지, 삶의 질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였고, 교육, 문화, 복지 및 농촌사회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에 대한 수요는 낮았다. 귀농귀촌인들이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서비스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귀농귀촌 정책 평가

- 원주민들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지원단체의 귀농귀촌 정책지원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원주민 지원과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지원의 형평성 인식을 확인하였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1.9%), 귀농귀촌인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33.6%, 그리고 응답자의 24.6%가 귀농귀촌인에게만 정책지원이 편중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5) 마을 리더와 주민의 인식의 차이

- 원주민을 마을리더 그룹(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과 주민으로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계, 성공적 정착요인과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귀농귀촌인에 대한 평가에서 마을 내 리더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도자 집단이 일반주민에 비해 귀농귀촌인을 마을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에, 귀농귀촌인이 마을회의나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 마을리더보다 귀농귀촌인들의 참여도를 더 높게 인정하였다.
- 갈등발생 요인에 대한 마을리더들과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마을리더들은 집이나 토지의 재산권 침해 문제, 마을 운영방식의 차이,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는 항목에서 마을주민들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마을주민들은 영농방식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항목에서 마을리더보다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마을리더들은 농촌사회 내부의 기득권을 둘러싼 갈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마을주민들은 영농방식과 같이 일상적인 갈등에 주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을리더들은 귀농귀촌인과 심리적 갈등이나 말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에서 일반주민들보다 갈등 경험도가 더 많았다.
- 마을 지도자들은 마을 주민들에 비해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세부 항목별로 물은 질문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소통 및 합리적 의사결정, 혁신적 리더십의 형성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주민들보다 마을 지도자들이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마을 리더보다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귀농귀촌인의 부정적 효과를 평가하는 모든 항목에서(경제적 피해, 마을 공동체의 분쟁, 자존심에 상처, 공동체적 성격의 약화와 불신, 전반적인 나쁜 영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마을리더와 주민들간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고, 주민들이 리더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원주민들 가운데 마을 리더들은 귀농귀촌인이 마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마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마을 내의 기득권과 리더십에 도전을 받는 입장에서 귀농귀촌인과 갈등의 발생 소지를 안고 있다. 마을 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마을 주민들은 보다 일상적인 생활방식(영농)에서 귀농귀촌인과 마찰을 빚으며 귀농귀촌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주시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인과 마을주민들 모두 양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로 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처럼, 귀농귀촌인이 마을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착에 성공하고 농촌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마을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3)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조사결과의 비교

(1)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 귀농귀촌인들은 자신들이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융화되려고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72.8%),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41.3%). 귀농귀촌인들이 자신들을 마을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갖는 것에 비해서(66.2%), 원주민들이 공동체 성원의 한 사람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53%).
- 귀농귀촌인 조사와 원주민 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들과 어느 정도로 친화력을 갖고 지낸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동일 항목을 비교해보니, 행정 공무원과의 친밀도를 제외한 주민, 지도자, 귀농귀촌인과의 친밀도에서 마을 원주민들의 평가가 귀농귀촌인의 자기평가보다 낮았다.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주민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긍정적인 비율이 62.2%였던 것에 반해서, 원주민들이 보기에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주민들과 친하게 지낸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은 36%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만,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귀농귀촌인들이 행정 공무원과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 귀농귀촌의 마을 일 참여도에 대한 평가도 귀농귀촌인 당사자와 마을 주민들

의 평가가 엇갈렸다. 귀농귀촌인 조사 응답자의 62.1%가 자신들이 마을 회의나 행사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원주민들은 22.5%만이 참여도를 긍정하고 오히려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33.4%).

- 종합하면,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와 마을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귀농귀촌인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원주민들은 그러한 노력이 훨씬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고립형 귀농귀촌자에 대한 원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귀농귀촌인들은 “고립적으로 생활하고 마을에 무관심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귀농인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라고 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 당사자들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자체와 민간부문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관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양자가 모두 갈등이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원주민들이 갈등의 정도를 비교적 낮게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모두 마을 지도자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의 차이

- 귀농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인식에서, 귀농귀촌인은 가족관계(배우자의 지지)의 중요도를 가장 중시했고, 원주민들은 지역주민과의 관계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했다. 평균값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귀농귀촌인들에 비해 원주민들이 사전 농촌사회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나 경제적 소득보다 마을주민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원주민들이 귀농귀촌인보다 사전 준비부족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귀농귀촌인들의 경우 응답자의 35.6%가 준비부족을 실패요인으로 꼽고, 자금부족(18.4%)이나 소득원확보문제(18.7%) 등의 경제적 이유를 꼽은 반면에, 원주민들은 응답자의 47.5%가 사전 준비부족을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주민과의 불화로 인해 귀농귀촌에 실패

패한다고 보는 견해도 원주민(9.1%)이 귀농귀촌인보다(7.5%) 조금 많았다.

(3)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 인식의 차이

- 귀농귀촌인이 마을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귀농귀촌인 조사에서는 47.7%가 긍정하고, 원주민 조사에서는 43.6%가 긍정했다.
- 세부 영역별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집단 모두 긍정적이 평가가 많았다. 두 집단 공통적으로 귀농귀촌인들로 인해 농촌인구가 늘고 마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마을공동체의 회복, 영농후계 인력의 확보, 도농교류의 확대 항목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농가공유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농촌 문화, 복지, 삶의 질 증진,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에 못 미칠 정도로 원주민들의 평가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비교할 때, 귀농귀촌인 당사자들은 정책지원 효용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던 것에 비해서 원주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4)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 서론에서 제시했듯, 이 연구는 성공적인 귀농·귀촌이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귀농귀촌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였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귀농귀촌을 위기에 처한 농촌사회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했다.
- 이러한 작업은 귀농귀촌의 선도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진안 귀농귀촌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국내 최초로 이뤄진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 의식조사, 그리고 양적 조사를 보완하는 질적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우리 연구는 진안 지역의 귀농귀촌을 둘러

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안은 600가구에 가까운 귀농귀촌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귀농귀촌인의 현실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특히 지자체장, 공무원, 지역 민간조직 등이 함께 지역발전의 틀 속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경험적 연구는 앞으로 전국 차원이나 다른 지자체 차원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촌인의 특성과 유형화

- 귀농귀촌인은 동질적이고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귀농귀촌의 동기와 목표 및 생활방식에서 다양한 욕구와 가치지향을 갖는 이질적이고 다층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밝혔다.
-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귀농귀촌해서 농촌마을에서 살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이 서로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삶의 형태와 지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이라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한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귀농귀촌한 이후 농촌사회에서 원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현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귀농귀촌인들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와 개념화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인, 원주민, 전문가, 연구자들과의 사전 면접과 문헌연구 등의 질적 자료와 연구를 활용하여 귀농귀촌인들의 실제 모습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경험적인 논거를 확보하였다.
- 본 연구에서 분류한 귀농귀촌 유형화는 기존 논의에서 살피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인 유형화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

을 모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현장 일선에서 제기되었던 논의들을 이론적인 유형화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던 경제적 동기의 귀농귀촌인들은 경제생계형에 포함된다. 정부 출연기관이나 연구자들이 향후 귀농귀촌의 수요에서 주목해 왔던 은퇴형 귀농귀촌자들도 개인생활효용형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개발해 이에 포함시켰다. 이는 은퇴형 귀농귀촌자들이 '인생휴가형'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정년퇴임 후 노후의 여가생활의 전원에서 지내며 주로 자신의 개인적 만족과 효용을 중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귀농귀촌한 집단도 늘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농촌마을에 거주하지만 귀농귀촌의 동기와 지향이 주로 개인의 생활적 효용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생활효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화의 기준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및 원주민간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특히, 대안가치추구형은 본 연구에서 그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고 이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던 유형이다. 이들은 귀농귀촌 생활과 성공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농촌사회 및 마을발전 기여도에서 다른 집단과 차별적인 특징을 보여 주었다.
- 귀농귀촌의 유형에 따라 시기별로 귀농귀촌인 집단의 귀농귀촌 추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진안군의 경우, 최근 들어 경제생계형 귀농귀촌인이 줄고,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이 늘고 있는 경향성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는 전국적인 귀농귀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귀농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과도기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촌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귀촌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 본 연구는 이처럼 귀농귀촌인의 특성과 유형화를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향후 귀농귀촌인 유형별 연구와 각각의 유형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2)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와 정책의 초점이 귀농귀촌인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영농인력 및 기술의 지원이나 농촌인구의 양적 증대에만 주목하였던 것에 반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와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가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에 중요한 요인임을 부각시켰다.
-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경제적인 요인이 귀농귀촌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우리는 먼저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주민과의 관계를 친밀도, 결속도, 고립도로 구분하였고 지역사회와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부부관계가 성공적인 귀농귀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관련 자체 조례를 보면 '가족'을 동반한 귀농인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환경에 오고 지난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에 도전하는 만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기반조차 사회적 관계가 안정적일 때 가능하다. 진안으로 귀농한 후 다시 도시로 돌아간 사람을 추적한 결과 작목반에 소속되는 것이 정부의 지원과 이웃 농민들의 도움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법임을 말해준다. 이 측면에서 '원자화된 개인'이 아닌 '지역 사회와 경제 조직의 일원'이 되었을 때 경제적인 기반도 더 잘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관계는 분리된 요인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 무엇보다 이 성공의 요인은 귀농동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지만 대안가치추구형이나 개인효용형에게는 그 중요성이 경제생계형보다 적다. 대안가치추구형은 소박한 삶, 생태지향적인 삶, 지역사회

발전 등에 큰 비중을 두었고, 개인생활효용형은 그들이 생각하는 뚜렷한 개별적 목표가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3) 귀농귀촌과 농촌사회 및 마을발전과의 관계

- 성공적인 귀농귀촌이 개인적인 차원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귀농귀촌이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일관되게 서술하였다.
- 이 관점 하에서 귀농귀촌인을 정의했다. 기존 연구는 귀농귀촌인을 도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적 관점으로 보거나, 도시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귀농귀촌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안적 관점으로 귀농귀촌인을 서술했다. 자립 가능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에 중사할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얻고, '농'의 가치를 현재의 생태·경제·문화위기를 돌파하는 하나의 대안적 동력으로 보는 관점이다.
- 또한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귀농귀촌연구와 농촌발전 논의가 각각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두 논의가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신내생적 발전 모델 아래에서 농촌 사회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외부에서 온 내부인'인 귀농귀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밝혔다.
-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경험적으로도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과 농촌사회 및 마을발전 기여도 인식은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 귀농귀촌에 성공적이라고 평가할수록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높다는 점을 통계적 검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이러한 발견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논지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을 높일수록 이들이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과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귀농귀촌인들을 농촌사회와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

과 사회적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과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된다.

(4) 귀농귀촌인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비교

- 귀농귀촌인 연구에서 본 연구는 최초로 원주민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주민 조사 분석을 통해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인식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상호이해를 통해서 좁혀 나가고, 갈등의 발생을 지역사회 내에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정책과 연구가 귀농귀촌인에게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에서 함께 공생하고 있는 마을 주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 귀농귀촌인, 마을 원주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 지역사회의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대안적 발전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자체와 정부를 포함한 협치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귀농귀촌인 유형과 성공도 및 농촌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

- 귀농귀촌의 유형에 따라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역할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촌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며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생활공간이다. 그러기에 농촌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과 전문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외부의존적인 지역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내외부인의 연대와 협력으로 자립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먼저, 경제생계형 귀농귀촌자들에게는 농촌사회의 자립적 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활동에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 예컨대 농촌형 사회적기업, 즉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공동체 회사 등을 창업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경제생계형 젊은 귀농귀촌자에게 농업을 기반으로 한 가공, 유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로컬푸드나 유기농 농산물을 가공, 유통하는 소규모 창업을 지원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지역만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의 대안 먹거리 사업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만들고 나아가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경제적 협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에서 지역경제의 순환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농촌사회의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 둘째, 개인생활효용형은 이들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개인생활효용형을 대표하는 은퇴형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와 거리를 둔 고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자율적이고 개성적인 삶, 자연 친화적인 삶, 풍요로운 농생활을 기대하는데 농촌 마을의 공동체적 규범과 농촌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의외의 압력을 받는다. 그러한 압력과 경험으로 때문에 농촌 주민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은퇴형 귀농귀촌인의 경우, 특히 이중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례들이 지역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비교적 풍부한 인적자본(높은 학력, 지식)과 사회자본(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을 갖고 있음에도 농촌마을의 강한 연고의식이나 폐쇄적인 분위기, 전통적 의식 등에 얽매인 관행 등으로 힘들어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인적·사회자본이 농촌사회의 발전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그러나 개인생활효용형, 특히 은퇴형도 그 안에 구분된 층이 있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읍면별로 귀농귀촌인 모임을 조직하고 귀농귀촌인에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형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며, 다양한 문화, 연대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진안군과 뿌리협회의 역할이 은퇴형 귀농귀촌자들을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고 생각된다.
- 은퇴해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여건과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형 중 고립한 사람들을 보아

도, 지역사회에 융화되지 않으려는 감정과 외로운 감정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오히려 수준 높은 문화에 대한 욕구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생활, 기회를 보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화되고 고립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문화 이벤트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될 때 공존 공생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대안가치추구형은 농촌발전을 위한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지향 가치를 근거로 농촌을 현대사회의 생태·경제·문화위기를 해소하는 대안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집단이다. 생명농업을 지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촌 사회 내 의료, 복지, 교육, 생태 등 그동안 농촌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그룹이다.
- 그러나 실제 결과에서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들이 이 부분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성취하였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 이 현실적 괴리를 채우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한 귀농귀촌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자체 역시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얻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정책제언

1. 농촌사회 발전 방안으로서의 귀농귀촌 정책의 적극적 추진

○ 연구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인들은 자신들이 농촌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60.6%) 이를 부정하는 비율은 11.9%에 불과했다. 원주민의 경우,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43.6%가 긍정했으며, 부정했던 비율은 18.1%였다. 따라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모두 귀농귀촌인이 농촌이나 마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 두 집단 공통적으로 귀농귀촌인들로 인해 농촌인구가 늘어 마을을 유지할 수 있고, 공동체 회복, 영농후계 인력 확보, 도농교류의 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귀농귀촌은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사회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 귀농귀촌의 이런 의미를 고려할 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촌의 부활 방안으로서 귀농귀촌에 대한 포괄적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 이처럼 귀농귀촌의 의미를 농촌사회의 부활과 연계시키는 새로운 농촌사회 발전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귀농귀촌인들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인들은 대체로 귀농귀촌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귀농귀촌인이 보다 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2. 지방자치단체, 지역민간단체,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간 협치기구 필요

○ 진안이 귀농1번지로 기반을 다지고,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헌신적인 공무원, 귀농인 민간기구인 뿌리협회, 그리고 마을지도자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진안의 마실길 프로젝트, 백운면 손내옹기와 마령면 공동체박물관 등과 같이 마을의 문화적·생태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문화적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협조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조를 제도화하고, 귀농·귀촌 후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치기구가 필요하다.

○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지자체 단위에서 협치기구를 만들고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컨대,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별적이고 선도적인 귀농귀촌 지원사업들을 정리하고 연구하여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보급하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유형화하고 모델화함으로써 비교와 벤치마킹의 준거로 삼을 수 있다.

3. '성공적 귀농·귀촌'의 다차원성에 주목할 필요

○ 성공적인 귀농·귀촌이란 단순히 소득이나 경제적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 가족 관계, 주민화합, 공동체 가치, 귀농 전 경

협 활용 등의 다차원적인 조합으로 귀농이 성공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층위에서 균형적인 만족이 이뤄질 때 귀농귀촌의 삶에 대한 전 반적이고 장기 지속적인 성공적 정착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관계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학적 요인의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걸맞는 사회 정책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귀농귀촌인이 자신들이 정착한 지역 공동체와 마을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갖고 융화되려고 노력했을 때 귀농귀촌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귀농귀촌의 정책패러다임을 단순히 농촌인구의 증대나 영농후계 인력의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농촌사회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컨대, 농촌인구의 유입을 강조하여 조성되고 있는 규모화 된 집단 귀농귀촌타운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진안 새울터마을의 경우 30가구 이상으로 조성된 사례인데 이에 대해 심층면접 등에서 우려가 많았다. 인위적 마을조성은 문제가 오히려 많을 수 있다.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인위적 마을조정보다 기존 마을을 적절히 개발하고 같은 공간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

4. 공적 귀농·귀촌 초기 정착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

○ 농업 외의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등을 마련하여 특히 귀농귀촌 초기의 안착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예컨대 산림관리원, 마을간사 등). 특히 '경제생계형'의 경우에 귀농귀촌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경제적 소득 문제로 인식하고, 귀농귀촌의 성공도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귀농귀촌인에게 적용하는 정책적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재생산이 안되는 소모적 일자리보다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공동체회사 등을 통한 일자리가 있게 되면 30~50대의 귀농귀촌인들이 보다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삶도 계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단체, 기관, 기업체 등에 귀농

귀촌인을 고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안도 필요하다.

○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들은 대부분 I턴(대도시에서 귀농귀촌한 집단) 유형으로 도시에서 전문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들이 귀농귀촌한 지역 농촌마을에서 자신들의 경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서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들이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낫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귀촌 개념에 가까운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농촌사회의 필요(needs)와 발전에 부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촌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역사회 화합 프로그램의 개발

○ 진안의 마을만들기 축제와 같은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여,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의 사회적 친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만들기는 마을을 테마로 한 마을에서 열리는 ‘마을축제’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한여름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여 출향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30개 마을의 소박한 마을잔치와 회혼례, 시골학교, 동창회, 미니FM방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결국 농촌 내부 역량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6. 귀농·귀촌에 대한 배우자 지지도 제고 방안 모색

- 귀농귀촌에 대한 부부의 의견 일치를 귀농귀촌의 조건으로 강조해야 한다.
- 귀농귀촌인 배우자를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과 부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실행이 도움이 될 것이다.

7. 귀농·귀촌인 관련 원주민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실시

○ 특히 진안을 떠난 귀농귀촌 이탈자를 심층면접 하는 가운데 이들이 원주민과 관계가 어려웠음을 확인했다. 귀농귀촌자들이 농촌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지만, 성공적인 귀농귀촌과 귀농귀촌인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 따라서 원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교육 홍보해야 한다.

○ 또한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귀농귀촌인들은 귀농귀촌 초기에 행정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 크고, 그만큼 생활상의 편의나 이해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많다. 귀농귀촌인들은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새로운 자원이다. 특히, 대안가치 추구형 귀농귀촌인들은 대안적 농촌발전을 위해 기여할 의향과 역량을 갖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의 구성원이며 이들이 궁극적으로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조정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자신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인의 가치를 확인시키고 이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8. 귀농·귀촌 집단별 맞춤형 정책의 수립

○ 이 연구에 의하면 귀농·귀촌인은 동기에 의해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즉 '경제생계형', '대안가치 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 등으로 분류된다. 각 집단은 상이한 특성을 지니므로 각각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경제생계형'의 경우 주로 농업을 위해 이주한 귀농인으로 가장 적극적인 농업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개인생활효용형에 비해 귀농성공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가치추구형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친밀도(귀농귀촌인, 마을 주민, 지도자, 행정공무원)에서는 귀농귀촌 유형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통계적 차이는 아니지만 경제생계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대부분 고향으로 귀향한 U턴형 귀농인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집단의 경우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나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도농교류나 산촌유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인하는 경제적인 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대안가치추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귀농성공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생태적 가치, 농촌발전,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 등을 귀농동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농촌발전의 주요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 '개인생활효용형'은 개인의 건강, 은퇴 등을 귀농귀촌 동기로 밝힌 집단으로 상대적으로 귀농귀촌 성공도에 대한 자기평가가 가장 낮았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인생휴가형 귀농을 한 사람들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보다 개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지역사회와 주민과 괴리된 채 외딴 곳에서 홀로 고립된 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해당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진안군의 경우 어린이들의 아토피 치유를 위해 자녀와 엄마로만 구성된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있다. 이들에게 역지로 지역사회의 사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도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 귀농귀촌하였다고 응답한 이들이 대부분 지역사회와의 친밀도가 높고, 마을주민과 적극적으로 융화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높고, 인적자본이 많은 사람들이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 농민시장의 적극적 구매자, 방과후 교사활동, 이들이 지닌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농산물 판매 허브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9. 새로운 농촌발전을 주도할 리더의 양성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을 아우르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비전과 능력을 가진 리더를 발굴, 양성해야 한다. 전통적인 마을 리더들과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들은 기득권과 마을 운영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이들은 농촌사회 발전에 필요한 신규 리더들인 셈이다. 신규 리더십의 조화와 상생을 통해 새로운 농촌사회 발전의 주체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안적인 농촌 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전통적인 리더십과 귀농귀촌인의 리더십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마을 지도자(이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간의 사회적 신뢰와 소통을 증진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크가 제도화된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 귀농귀촌인의 유입, 정착, 유출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

○ 귀농귀촌인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정책 평가 및 개발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 특히 귀농귀촌을 포기하거나 귀농귀촌 목적지를 바꾼 사람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그들이 진안(1차 귀농귀촌지)을 떠난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추후 귀농귀촌 정책의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 또한, 귀농귀촌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도시 거주 귀농귀촌 희망자들부터 현재 귀농귀촌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수요조사 및 자료를 축적하고, 홍보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사회에 정착하는 동시에 농촌사회의 지속적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농림수산물부 내에서 여러 부서가 귀농귀촌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을 분담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인의 현실과 농촌사회 발전과의 연계라는 틀에 바탕을 둔 새로운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11. 농업 중심의 귀농 정책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귀촌 정책으로 전환

○ 귀농귀촌인 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 후 직업형태가 비농업인 경우 농촌사회 발전 기여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즉 귀촌인들이 농촌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원주민들은 농촌 발전을 위해 젊은 전업농이나 젊은 농촌창업 경영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이 농촌의 문화, 복지, 삶의 질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2. 귀농귀촌인 사전 준비 교육 강화

○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이 정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이해와 교육, 마을주민 및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실패 이유가 사전 준비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 교육프로그램 실시와 병행하여 결국은 농촌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재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 따라서 귀농귀촌 이전에 농촌 일반 및 귀농귀촌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관계 등을 강조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13. 지역사회 통합적 귀농귀촌인 정주 모델의 개발

○ 귀농귀촌인의 거주지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때에도 지역 주민들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교류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규모 집단이주와 과도하게 도시적 주거시설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양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소규모 집단 주거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4.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에게 삶의 질과 필요를 충족하는 문화 행사 시행

○ 귀농귀촌인들은 농촌 생활을 하면서도 도시의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원주민 역시 농촌의 열악한 문화생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귀농귀촌인 및 원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두 집단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장성 아카

데미와 같은 최고 수준의 교양 강의, 영화 상연, 음악회 등의 문화 이벤트를 기획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5.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통한 지역 창업 유도

○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로컬푸드의 개념에 입각하여 농산물 가공 및 유통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고, 그들이 가진 인적자본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귀농귀촌 정책과 농촌정책 및 농촌사회 발전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을 농촌사회 발전의 새로운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주체적 역량을 활용해서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농촌형 공동체 회사와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경하·윤순덕·조영숙·황대용·고정숙·최윤지. 2008. “귀농지원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일고”.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 자료집』 104.
- 강대구. 2005.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농림부정책과제보고서
- _____. 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 38(2): 23-53.
- _____.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 39(1): 59-98.
- _____. 2009. “농촌개발사업 실행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21(3): 103 ~ 122.
- 고정준. 2007. “귀농자의 실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전라북도 귀농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곽동원. 2008.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와 행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인. 2010. “진안군 마을만들기 10년의 성과와 반성, 각오”. 『뿌리협회지』 2011년 1월호.
- 김동근. 1998. “농업정책방향과 귀농대책”. 농촌회생과 자립적 농업을 위한 귀농정책세미나 자료. 전국 귀농운동본부
- 김성수·정지웅·임형백·고운미·김정태·이성. 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53-65.
- 김성원. 2009. “귀농·귀촌 종합대책.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지자체의 귀농·귀촌 대응 방안’ 토론회’ 자료집, 3-18. 전라북도·전북발전연구원
- 김재현. 2006. “농촌의 사회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진안군 마을간사 연간활동보고회 및 강연회. 2006.12.27. 진안문화의 집
-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개발』 16(3): 533-556.
- 김정원. 2008.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사례 연구.” 『지역사회연구』. 16(2)
- 김주현. 1999. “귀농인의 농업기술정보 획득과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연. 2006. “EU 농촌발전정책의 형성 및 개혁과정과 잉글랜드의 사례”. 『농업경영·정책연구』. 33(1): 242~274.
- 남정덕. 2000. “귀농형실버타운의 보급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2009. 내부자료.
- 마상진. 2009. “신규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야모토 RPS이치. 2009. “지속가능한 사회와 내발적 발전”. 『지역재단창립5주년 기념심포지엄 발표 원고』.

- 박 경. 2003. 「유럽의 농촌지역정책과 LEADER 프로그램」. 강현수 저.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한울아카데미: 87-118
- 박공주.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공주·김양희·박정윤. 2007.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농촌 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1): 9-21.
- 박공주·윤순덕·강경하.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 박덕병·이민수. 2009. “EU의 농촌개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 123~162
- 박문호, 김정섭, & 허주녕. 2008. “농어촌 뉴타운 공동체 조성·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영일. 1998. “성공적인귀농을위한연구-귀농사례중심으로”, 중앙대학교산업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진도. 2010. “한국농촌사회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내발적 발전전략과 농촌사회의 통합적 발전”. 『농촌사회』. 20(1) : 163~194
- 박찬은. 2006. “실상사 귀농학교의 귀농교육과 향후 과제” 『한국농업교육학회정기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39-246.
- 서규선·박병덕(1997), “U턴귀농자장·단기교육프로그램개발”, 대산논총5권
- 서규선, 변재면(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 서만용·구자인. 2005. “귀농자의 농촌 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관광연구』 12(2): 145-171.
- 소임령, 김정섭, 유학렬 & 조영재. 2007. 일본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꾸기: 경관관리와 인구유지 활동을 중심으로. 농림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충남 발전연구원
- 송미령 & 김정섭. 2008. 지자체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평가·모니터링 및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모형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김정섭, & 박주영. 2009. 농어촌 기초생활권의 전망과 정책 과제. 농업전망 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정규. 1998. “귀농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34: 23-41, 한국도시연구소
- 윤원근. 2010. “한국농촌개발정책의 시기별 전개와 구성요소의 변화”. 『농촌지도와 개발』. 17(2): 279~304
- 이민수. 구자인. 이상근. “농·귀촌을 통한 농촌발전”. 농민신문사.
- 이동고. 2006. “한 이상주의자의 세상 살기”. 『환경과생명』 47: 116-135.

- 이동하. 1998.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철. 2000. “귀농운동: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 삶을 위해 토착민으로 살기”. 『환경과생명』 25: 22-31.
- 이상용. 1999. “귀농인 의식실태 및 안정적 정착 방안”. 『연구와 지도』. 20(6): 35~41.
- 이상호. 2008. “경북지역 귀농인의 지역 및 지역주민과의 만족도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5(3): 551-565.
- 이시자. 2010.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곡성군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 이재철. 2007. “귀농 혹은 귀농촉진 마케팅”. 『한국마케팅연구』 41(3): 52-54.
- 이정관. 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변인 분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천. 2006. “귀농 자체가 대안이고 운동이고 희망이다”. 『환경과생명』 50: 41-46.
- 이해진. 2009.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농촌사회』. 19(1): 7~47
- 임혜영.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진라남도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동현. 2009.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귀농의 조례 및 규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7(3): 19-32.
- 전국귀농운동본부. 1999. 『귀농, 아름다운 삶을 찾아서』. 두레
- 정지용·김성수. 2000.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농림부
- 정한모. 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록환. 1998. “귀농자의 생활실태 분석”. 『도시와 빈곤』. 34: 42~47.
- 최운지·한송희·황정임·김영. 2009.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 조례 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인생2막 땅에서 꽃피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도시연구소. 1998. “귀농의 현황과 정책과제”. 『도시와 빈곤』. 통권 34호: 23~41
- Ida J. Terluin. 2003. *Differences in economic development in rural regions of advanced countries: an overview and critical analysis of theories*. Journal of Rural Studies 19: 327~344
-][Kenneth M. Johnson. 2000. *Continuity and Change in Rural Migration Patterns, 1950-1995*. Rural Sociology. 65(1): 27~49.
- T.N. Jenkins. 2000. *Putting postmodernity into practice: endogenous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raditional cultures in the rural development of marginal regions*. Ecological Economics 34: 301~314.

Philip Lowe. Christopher Ray. Neil Ward. David Wood. Rachel Woodward. 1999.
Participation in Rural Development.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부록1. 귀농귀촌인조사 설문지

ID			
----	--	--	--

성공적 귀농귀촌과 농촌사회발전을 위한 귀농귀촌인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사회학회·고려대학교 귀농·귀촌 연구팀은 '성공적인 귀농·귀촌과 농촌사회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진안군의 도움을 받아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을 설문지 순서대로 해당란에 표시해 주시고, 괄호가 있을 때는 답변을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3조 및 14조를 준수하여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협조는 귀하를 비롯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철규 교수
- 진안군 뿌리협회 서상진 대표이사

귀농준비와 동기

문 1> 귀하께서는 귀농귀촌을 결정한 이후,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년 ()개월 (*전혀 준비하지 못했으면 0개월)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관계 - 커뮤니티

문 5> 귀하의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귀농귀촌인과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지도자(이장 등)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진안군 행정 및 공무원과 소통이 잘 되고 협조를 잘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가급적 마을주민이나 마을 일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마을주민과 지역에 괴리감(서로 달라 통하지 않는 느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 주민(공동체)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거주하는 마을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애郷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융화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6>귀하는 아래와 같은 지역의 모임이나 활동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항 목	←-----→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마을회의나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마을 내 경제활동(영농조합, 작목반)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 교회에 다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일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자활기관, 공부방, 도서관)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 문화활동(동호회, 산악회, 감계)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 농민단체(농민회, 한농연 등)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 외부의 사회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읍면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진안군 귀농귀촌인 모임(뿌리협회 포함)이나 행사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7> 귀하는 마을주민이나 지도자들이 귀농귀촌인을 대하는 다음 태도와 행동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평가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마을의 지도자들은 나를 차별적이고 부당하게 대우한다					
마을 주민들은 귀농귀촌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텃세가 심하다					
마을 주민들은 귀농귀촌인에게 우호적이고 환대하는 분위기다					
마을 주민들은 나를 마을주민(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사회적 관계_주민/가족 간 갈등

문 8> 귀하께서는 귀농귀촌 후 누구와 갈등이 가장 심했습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마을 주민 ② 마을 지도자(이장, 위원장 등) ③ 귀농인
 ④ 공무원 ⑤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⑥ 없다
 ⑦ 기타()

문 9> 귀하는 귀농 후 마을주민들과 갈등(말다툼, 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드문 편이다 ③ 보통 ④ 잦은 편이다 ⑤ 매우 잦은 편이다

문 10> 마을주민들과 아래 갈등의 경험들이 있으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 ① 의견 차이를 느낀 적이 있었다
 ② 생활에 피해나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③ 유언비어나 인신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④ 심리적 갈등과 말싸움을 한 적이 있다
 ⑤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몸싸움을 한 적이 있다
 ⑥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분쟁까지 간 적이 있다
 ⑦ 갈등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다.

문 18> 다음 항목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스스로 얼마나 성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도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농귀촌해서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얻는데 성공했다					
경제적 소득과 안정에 성공했다					
귀농 후 원만한 가족관계와 화합을 얻는데 성공했다					
마을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성공했다					
공동체와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성공했다					
귀농 전 경험과 전문역량을 활용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데 성공했다					

문 19>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성공적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하 지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 이해와 교육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인 여유자금과 안정적 소득	①	②	③	④	⑤
행복과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①	②	③	④	⑤
정부정책이나 귀농지역의 지자체와 공무원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귀농지역 마을주민과 지도자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배우자나 자녀와의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귀농귀촌 이전에 갖고 있던 전문적인 경험, 지식, 능력	①	②	③	④	⑤

문 20> 귀하가 귀농귀촌 정착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을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해 주
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일자리부족 ② 사업자금조달 ③ 가족과의 합의
- ④ 자녀 교육 ⑤ 주민과의 갈등문제 ⑥ 경제적 소득문제
- ⑦ 건강 ⑧ 지역 선정 ⑨ 주거문제
- ⑩ 영농기술습득 ⑪ 문화·의료·복지 ⑫ 가치와 신념의 약화
-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 29> 다른 마을에 비해 귀하가 거주하시는 마을과 주민들에 대해 느끼신 바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평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일에 협력과 소통을 잘 한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자치 규범과 규칙을 잘 지킨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한다					

귀농정책 평가

문 30> 본인에게 아래의 귀농귀촌정책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귀하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세요.

평가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농귀촌 결정을 하는데 정부의 귀농지원정책이 영향을 주었다					
귀농귀촌 결정을 하는데 진안군의 귀농지원정책이 영향을 주었다					
귀농을 하고 농촌에 정착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정부의 귀농지원정책이 귀농귀촌생활에 도움이 된다					
현재 진안군의 귀농지원정책이 귀농귀촌생활에 도움이 된다					
뿌리협회의 귀농지원사업과 활동이 도움이 된다					

문 31>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진안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평가항목	전혀 도움안됨	거의 도움안됨	보통	도움	매우 큰 도움	처음들어서 알지 못한
마을 간사제도(사무장, 산촌 매니저 포함)						
귀농 귀촌 상담과 안내						
사회적 일자리 소개와 알선						
귀농귀촌 체험 교육 프로그램						
귀농귀촌 행사(문화제, 읍면 모임 등)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 자금 지원과 융자						
문자 서비스, 소식지 발송 등 정보 제공						

문 3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평가항목	전혀 필요없음	거의 필요없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함
귀농정착 자금지원용자 (빈집수리/농기구입/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정보서비스 및 교육시스템 (온라인교육)					
귀농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 (농산업 인턴제도)					
귀농귀촌 홍보					

귀농인 개인적 특성

문 33> 귀하의 성별은?

- ①남 ②여

문 34>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 _____ 세)

문 35>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문 36> 진안이 최초 귀농지입니까? ① 맞다 ② 아니다

문 37> 진안 오기 전 살던 두 곳을 최근 순서대로 적어 주세요
(최근 _____ / 그전 _____)

문 38> 귀하의 귀농귀촌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진안 출신으로 고향이나 인접마을로 귀농 귀촌했다. (U턴)
② 타지역 농촌 출신으로 진안으로 귀농 귀촌했다. (J턴)
③ 도시출신으로 진안으로 귀농귀촌했다. (I턴)

문 39> 귀하의 종교는?

- ① 유교 ② 개신교 ③ 가톨릭 ④ 불교 ⑤ 원불교 ⑥ 없음 ⑦ 기타()

문 40> 진안으로 귀농한 연도 및 당시 연령은? (귀농연도: _____ 년) (당시연령: _____ 세)

문 41> 현재 함께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다음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십시오.

관계	연령	직업 또는 학교	위치	※ <보기> ○관계 : 부모, 남편 또는 아내, 자녀 등 ○직업 : 농림업, 회사원, 자영업, 학생 등 ○위치 : 직장이나 학교의 위치로 진안군이 아닐 경우 전주 등 기초지체로 표기
(예) 처	42세	회사(생명보험)	전주시	

문 42> 귀농 전 같이 살고 있던 가족 중에 현재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없다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부모님 ⑤ 기타()

문 43> 귀농귀촌 이전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이 무엇입니까?

- ① 농어민
 ② 자영업자(종업원 9명 이하, 개인택시운전사)
 ③ 노동자(공장, 건설현장, 단순 노무직, 종업원)
 ④ 판매서비스직(점원, 외판원, 보험설계사)
 ⑤ 기능·숙련공(중장비·트럭 운전사,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숙련공)
 ⑥ 사무직·일반기술직
 ⑦ 전문직(유치원, 초·중·고 교사, 관광 통역, 간호사, 학원 강사)
 ⑧ 경영·관리·행정직(5급 이상 공무원, 교감 및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
 ⑨ 전문직(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인, 언론인, 프로그래머, 고소득 프리랜서, 종교인)
 ⑩ 전업주부
 ⑪ 기타()

문 44> 귀하의 현재 직업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무직 ② 전업농
 ③ 농업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 소득이 더 크다.
 ④ 농업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직업 소득이 더 크다.
 ⑤ 농업 외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문 45> 귀농 귀촌 후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을 순서대로 세가지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농업·농촌 관련 회사(농산물 가공·유통)
 ② 사회적 일자리(공공 근로, 사회 서비스, 마을간사 등)
 ③ 자영업 및 개인사업 ④ 일반 회사원
 ⑤ 공무원(기간제 포함) ⑥ 토목, 건축 등의 일용직
 ⑦ 문화 예술 관련 직업 ⑧ 산불 감시원
 ⑨ 방과후 학교 교사 ⑩ 평생학습 강사
 ⑪ 통계 조사원 ⑫ 기타()

문 46> 귀하의 가구 현재 영농(텃밭농사 포함) 면적은?

- ① 논 ()평 ② 밭 ()평 ③ 기타 ()

문 47> 귀농 후 귀하의 현금 수입원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국민연금 ② 농업수입 ③ 가족지원 ④ 개인저축
⑤ 금융권대출 ⑥ 월급여 ⑦ 임대 소득 ⑧ 기타()

문 48 > 귀하의 가구가 농촌에서 안정된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1달 평균 얼마 정도의 소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월()원)

문 49> 귀하의 가구 현재 소득은 연간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년간()만원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 원주민조사 설문지

ID			
----	--	--	--

성공적 귀농귀촌과 농촌사회발전을 위한 마을주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사회학회·고려대학교 귀농·귀촌 연구팀은 '성공적인 귀농·귀촌과 농촌사회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진안군의 도움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을 설문지 순서대로 해당란에 표시해 주시고, 괄호가 있을 때는 답변을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협조는 진안군의 발전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철규 교수
◦ 진안군수 송영선

마을의 특성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문 > 귀하의 마을은 전반적으로 귀농귀촌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좋지 않음 ② 좋지 않은 편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 ⑤ 매우 좋음

문 > 귀하의 마을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 | | |
|-------------|------------------|---------------|
| ① 주민참여 | ②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교육 | ③ 마을리더 육성 |
| ④ 마을 문화전통보전 | ⑤ 정부·지자체지원 확대 | ⑥ 정보화 |
| ⑦ 도시민과의 교류 | ⑧ 인구증가 | ⑨ 소득증대 |
| ⑩ 젊은층 유입 | ⑪ 경관보전 및 환경문제해결 | ⑫ 기타(_____) |

문> 귀하께서는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에 들어와 거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게 생각한다 ② 좋게 생각하는 편이다
 ③ 반대하는 편이다 ④ 적극 반대한다

문> 귀하께서는 현재 귀하의 마을에 귀농·귀촌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생활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스럽다 ② 불만스러운 편 ③ 보통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문> 귀하는 평소에 귀농·귀촌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평가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농인들은 마을주민들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화합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농촌 마을 고유의 전통 문화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은 마을주민(공동체)의 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들은 마을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곧 떠날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들은 마을주민들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들은 화합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고집만 내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들은 마을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귀농해 살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마을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관계 - 커뮤니티

문 > 귀하께서는 귀농·귀촌인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농인들은 살고 있는 지역의 귀농·귀촌인과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들은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주민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들은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지도자(이장)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들은 진안군 행정 및 공무원과 친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문 >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귀농귀촌인은 아래의 모임에 얼마나 참여합니까?

항 목	자주 참여 ← 보통 → 참여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마을회의나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마을 내 경제활동(영농조합, 작목반)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마을주민들과 관련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을 때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관계_주민/가족 간 갈등

문> 귀하께서는 귀농귀촌인과 다음과 같은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평가항목	① 있다	② 없다
의견 대립을 느낀 적이 있었다	①	②
생활에 피해나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유언비어나 인신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심리적 갈등과 말싸움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몸싸움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분쟁까지 간 적이 있다	①	②

문> 귀하의 마을에서 귀농인과 마을주민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갈등이 전혀 없다
- ② 갈등이 거의 없는 편이다
- ③ 갈등이 발생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다
- ④ 갈등이 매우 심각하고 화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문 > 귀농귀촌인들과 마을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일 때문입니까?

- ① 집이나 땅문제와 재산권 침해로
- ②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 ③ 마을 일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 ④ 귀농해서도 도시 생활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 ⑤ 영농방식의 차이 때문에
- ⑥ 귀농인들이 마을주민들에 비해 갖고 있는 우월감
- ⑦ 마을 일에 대한 운영방식의 차이 때문에
- ⑧ 없다
- ⑨ 기타()

문 > 귀농귀촌인과 갈등이 생긴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 ① 직접 대화를 통해 갈등을 푼다. ② 주변사람이나 기관에 중재를 요청한다
- ③ 여전히 갈등이 있지만 모른척하고 지낸다
- ④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 뜻대로 이룬다
- ⑤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 ⑥ 기타()

문 > 마을주민과 귀농인간 갈등이 발생할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마을 지도자 ② 귀농인단체(뿌리협회) ③ 사법기관(검찰, 경찰)
- ④ 진안군 행정 ⑤ 외부 갈등 조정 전문가 ⑥ 언론 기관
- ⑦ 기타()

귀농귀촌인이 성공하기 위한 조언

문 > 귀농귀촌에 성공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 지않음	중요하 지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 이해와 교육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인 여유자금과 안정적 소득	①	②	③	④	⑤
행복과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①	②	③	④	⑤
정부정책이나 귀농지역의 지자체와 공무원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귀농지역 마을주민과 지도자들과의 화합하고 어울리는 관계	①	②	③	④	⑤
배우자나 자녀와의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귀농귀촌 이전에 갖고 있던 전문적인 경험, 지식, 능력	①	②	③	④	⑤

문 > 주변의 귀농-귀촌인이 정착에 실패하고 떠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이내에서 응답) (1순위 :) (2순위 :)

- ① 사전 준비부족 ② 자금부족 ③ 정부와 지자체에 의존적 태도
- ④ 마을주민과의 불화 ⑤ 귀농귀촌의 철학부재 ⑥ 소득원 확보문제
- ⑦ 문화·의료·복지문제 ⑧ 귀농정책 문제 ⑨ 가족의 분리문제
- ⑩ 귀농귀촌관련 사회교육부족 ⑪ 기타()

귀농귀촌과 농촌사회발전

문 > 귀농·귀촌인이 현재 마을의 발전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문 > 귀하는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여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농촌인구를 늘려 마을을 유지	①	②	③	④	⑤
영농 후계자 인력의 확보	①	②	③	④	⑤
농산물 가공/직거래 유통 등 농업 부가가치 증대	①	②	③	④	⑤
농촌의 문화, 복지 삶의 질 증진	①	②	③	④	⑤
농촌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행정 및 단체 실무 인력 보완	①	②	③	④	⑤
마을 공동체(신뢰, 협력)의 회복	①	②	③	④	⑤
마을 내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	①	②	③	④	⑤
도농교류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과 문화	①	②	③	④	⑤
자연생태환경의 보존	①	②	③	④	⑤

문> 귀농인이 마을에 들어온 이후, 마을에 나타난 부정적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마을에 미친 영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농인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땅값상승, 영역침범)를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이 들어와서 마을 내부의 분쟁과 갈등이 심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은 마을 토착주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 때문에 전반적으로 마을 공동체적 성격이 약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 때문에 마을 주민들간에 불신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인은 전체적으로 마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문>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귀하의 마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귀농귀촌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 ① 전문 농업을 꿈꾸는 젊은 전업농
- ② 농촌 창업을 꿈꾸는 젊은 경영인
- ③ 문화 예술 계통의 전문가
- ④ 교육, 의료, 복지 계통의 전문가
- ⑤ 농촌사회 개선을 위한 사회사업 지도자
- ⑥ 퇴직 후 노후 전원생활 귀농인
- ⑦ 기타()

귀농정책 평가

문 > 귀농귀촌정책이 귀농인의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 주세요.

평가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현재 정부의 귀농지원정책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진안군의 귀농지원정책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민간귀농인단체(뿌리협회)의 귀농지원정책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귀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진안군의 정책지원이 토착주민에 대한 정책과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귀농자에 대한 정책지원은 적절한 수준이다
- ② 귀농자에게만 정책지원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
- ③ 귀농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부족하다

개인적 특성

문 >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문 >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_____세)

문 > 귀하께서 진안에서 실제로 거주하신 기간은 몇 년입니까? (_____년)

문 >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면) (_____리)

문 >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문 > 귀하는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 ① 이장 ② 노인회장 ③ 부녀회장 ④ 새마을지도자 ⑤ 개발위원장
⑥ 기타()

문 > 귀하의 가구 현재 소득은 연간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년간()만원

문 > 귀하의 가구 현재 영농(텃밭농사 포함) 면적은?

- ① 논()평 ② 밭()평 ③ 기타()

부록3. 심층면접조사요약

(1) 귀농귀촌인 심층 집단면접(FGI)

■ 귀농귀촌 후 차이점은?

【백운면 A씨·여】 지원정책이다 하면 ‘돈’과 연결시키는데 진안군은 돈을 안준다고 하니까 군의 여러 가지 시책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적은 게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받은 것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앙정부에서 뭘 해주는지 모른다. 백운면이 진안군에서 귀농귀촌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에도 허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잠깐 전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귀농인이 아닌데, 군에서 귀농인으로 분류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백운면 B씨·여】 귀농귀촌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른다. 어떤 정책이 진행됐고 어떻게 보완됐는지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 진안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과거와 어떻게 변화됐는지, 무엇이 개선됐는지 귀농귀촌인 대부분이 알지 못한다. 설명이 필요하다.

【부귀면 C씨·여】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면에서 주민과 직접 만나는 공무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의 경우 친인척 중 세 사람을 진안으로 오지 말고 입실로 가라고 소개를 해 줬다. 귀농귀촌한 후 면을 방문해 담당자를 만났을 때 욕박지르듯이 말을 들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입실군의 경우 귀농귀촌인들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안군의 경우 일선 공무원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공기 등 자연환경만을 보고 온 경우는 불만이 적지만, 지자체에 뭔가 기대를 하고 온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불만을 토로한다. 군의 지원책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안읍 D씨·여】 6년 전 귀농했을 때는 뿌리협회가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없었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한곳도 없었다. 혼자서 직접 쫓아다니면서 농지 알아보고 마을회관에서 월세를 내며 살아야 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것

이다. 군에서 빈집도 알아봐 주고, 땅도 알아봐 준다. 근데도 요즘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불만이 더 많다. 군에서도 점차 지원을 확대하고 뿌리협회도 나름대로 도움을 줄려고 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백운면 E씨·남】뿌리협회 용담면 지회에서 모씨가 있다. 그 분과 대화를 해 보면 뿌리협회가 얼마나 많은 협조를 해주는가 알 수 있다. 백운면에 귀농귀촌인이 112가구나 된다고 하지만 허수가 많다. U턴한 사람들은 주민들과 관계가 좋지만, 연고가 전혀 없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오기 전 하던 일도 다양하고 이질감도 큰 것 같다. 그야말로 다향에 왔기에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는데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귀농귀촌인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에 대해 보다 적극 알려야 한다. 이를 귀찮게 생각한다면 귀농귀촌인은 더 이상 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느 마을에서는 귀농귀촌인을 심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문나면 올 수도 없다. 만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 귀농귀촌인으로 받아들인다면 마을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사람들일수록 마을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에 도움이 안될 수 있다.

【마령면 F씨·여】현재 귀농해 살고 있는 마을이 집성촌이다. 거의 친척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이 마을의 첫 번째 귀농인 인데 지금은 좀 늘었다. 그런데 이 마을을 보면 주민들끼리 결집력이 대단하다. 이익이 되는 부분은 자기들끼리 철저히 뭉친다.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변화를 싫어한다. 물이 부족해 관정사업으로 1억 5,000만원짜리 사업을 받아 우물을 파기로 했는데 협조가 안돼 진척을 시키지 못했다.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도록 하려면 마을에 기득권을 가진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야 한다. 물론 귀농귀촌인들도 바뀌어야 한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주위에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결국 혼자서 하다가 안 되면 좌절되고 만다. 서로 의식이 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성촌'인 농촌마을의 경우 외지인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폐쇄적이 되어서는 희망이 없다.

【백운면 A씨·여】어느 마을은 벌 떼처럼 쏘고, 어떤 마을은 '그래, 그래'하며 덮어준다. 백운면에는 흰구름 박씨, 서씨, 신씨가 있다. 그런데 모두 사돈, 팔촌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막 육을 하는데 알고 보면 시동생이다. 거기 가서 말 끼면 안 되고 가만히 듣다가 빠져야 한다. 마치 다문화 가정에 시집 온 며느리와 같은 느낌이다. 어느 종가 택에 들어간 며느리 같다. 꼭 집성촌이 아니어도 넘어서지 못하는 선

들이 분명히 있다...무슨 일이 있어 경찰을 부르고, 이장을 찾아가도 조카고 큰 아버지다. 이장의 경우 그 집 몇 번째 자손이냐가 중요한 거다. 처음에 마을에 가서 면장, 파출소장, 농협 조합장으로부터 들은 말이 “여기서는 이마을 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뭔가 알지 못하는 벽이 있는데, 이곳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고 있다...오히려 타 지역에서 온 머느리들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마을에서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친척이다. 그래서 하다못해 선산이라도 있는 땅으로 가라고 아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거 누구 하는 것보다 누구네 집안의 누구 하면 농촌에서는 하면 훨씬 잘 통하는 게 현실이다. 이 곳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무 것도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 U턴 한 사람들은 별로 저항이 없다. 때문에 경제력이 있더라도 I턴 한 경우는 마을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경제력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그냥 인근 도시로 오가면서 일하는 데나 전념하고 있다.

【정촌면 F씨·남】 27가구의 설문지를 받았다. 이중 12가구가 아토피 때문에 들어온 경우다. 이들은 자신을 귀농귀촌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직접 본인이 설문에 응했지만 자신을 귀농귀촌인이라 생각하지 않다보니 성의가 없을 수 있고 이런 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나처럼 I턴한 경우는 4가구이고 대부분이 U턴이다. U턴의 경우 자신들을 귀농인이라 생각 안 하는 게 정촌면의 특징이다. 면 단위에 귀농귀촌인 모임도 결성이 되지 않았다. U턴한 경우는 그런 모임이 필요 없고, I턴의 경우도 숫자 자체가 적은데다 이런 모임을 위해 고민하는 경우도 적다 보니 모임이 결성되지 않았다...아토피 치료를 위해 모인 것은 이곳의 학교가 아토피 특성화 시범학교로 지정되면서 간호사가 배치되고 점심도 유기농산물로 제공되는 등 여러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아토피 치료를 위해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금 내는데 보람 느낀다 할 정도로 여러 혜택을 많이 받는다. 오면 반드시 약물 치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돌아갈 생각을 한다. 보통 3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드물다. 심지어는 6개월 정도 체류해 몸이 좋아지면 방심하고 금방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 갈등이 있을 때는 언제인가?

【백운면 B씨·여】 어느 마을이나 비슷할 텐데 70~80대 노인들이 많다. 특히 이 분

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장을 넘겨줬지만 지금도 마을의 주도권을 지려고 한다. 작년까지 3년동안 이장을 봤는데 지금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보고하길 바란다. 마을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꽃밭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다. 700m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협조를 안 해 줘서 포기했을 정도다...대부분 갈등이 없다고 하는데 맞긴 맞는 말이다. 일상생활에서는 갈등이 있을 일이 없다. 하지만, 뭔가 일을 시작하면 의견이 나뉘어 진다. 원주민 입장에서는 귀농귀촌인이 잘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귀농귀촌인은 원주민들이 끌어 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마을에는 혼사·상과 같은 일이 있을 경우 모두 참여하고 부조금도 내곤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내려온 한 분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사과과수원을 갖고 있는데 마을에는 별로 있지도 않는다. 당연히 마을 행사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니까, 실제 주민도 아니다. 이런 예들 때문에 귀농귀촌한 사람이 욕을 먹는다. 10명중 8~9명을 잘하는데 1~2명이 늘 문제다.

【진안읍 D씨·여】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소득을 어느 정도 올리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또 시골의 맑은 공기 때문에 온 사람들은 현 수준으로도 만족스러워 상대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폐쇄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공무원, 학교 선생님, 약사, 전역군인 등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폐쇄적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

【백운면 D씨·남】 보통은 갈등이 있다 하면 다 있고, 없다 하면 다 없다. 가치관의 차이 등 갈등은 모두 있는데 고소고발까지 가면 갈등이고 아니면 물어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시골 정서 자체가 명확하게 칼로 무 자르듯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 늘 여지로 남는다.

■ 도시적 생활방식이 갈등원인이라고 하는데?

【정촌면 F씨·남】 땅을 사서 컨테이너를 갖다 댔는데 마을 도로변의 나무가 크면서 가지가 자라 컨테이너를 가리게 됐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자르려고 했는데 마을에서는 반대하며 갈등이 생겼다. 나무를 잘라야 한다는 귀농귀촌인과 우리 마을이 대대로 나무를 키워왔기 때문에 자를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했다. 이런

것은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민감한 문제로 갈등원이 되기에 충분하다...갈등은 마을 주민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데 이 자체가 귀농귀촌인의 성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경제적인 부분이 귀농귀촌인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하는가도 중요하다. 생활비 자체가 적게 들지만 대중교통비나 난방비 부담은 도시보다 훨씬 많이 든다.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귀농귀촌 후 불만을 증대시키기에 충분하다.

■정부 정책면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은?

【진안읍 ?씨·여】 경제적 지원보다는 일자리가 귀농귀촌인들에게 더 필요하다.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경우 도회지 생활을 통해 나름대로 다방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는데 이를 마을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교육을 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이를 귀농귀촌인들에게 제공하면 아주 유용한데 그렇지 않고 전주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곤 한다. 귀농귀촌인들을 재교육한 뒤 이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매우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진안군청 구자인 박사】 사람을 마땅히 못 찾아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한다. 뿌리 협회에서 문자를 많이 보내는데, 주로 일자리 등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한 문자를 보낸다. 직접적인 돈을 주는 지원을 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기에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농촌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촌면 F씨·남】 경제적인 문제도 결국 본인의 책임 아닌가? 귀농귀촌 정책이라는 게 부스럼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 정부나 지자체, 단체, 모임 등에서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빈번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 귀농귀촌인들로 하여금 뭔가 기대심리를 갖게 하면서 이 자체가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백운면 D씨·남】 진안군 마을만들기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본인이 원해서 귀농귀촌한 뒤 무작정 뭔가 달라고 하면 안된다. 노력해서 일을 하다보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기회도 생기게 된다. 무작정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진안군청 구자인 박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책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원책에는 귀농귀촌인들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각종 정책적인 지원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경제적인 사업의 경우 엄청난 갈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의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다. 근데 언론에서는 그냥 주는 것처럼 보도하다 보니 오해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 귀농귀촌인에 대한 신뢰

【백운면 G이장】 귀농귀촌인만 갖는 모임이나 회의가 별로 없다. 실제로 귀농귀촌인 모임을 가지려고 3년째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면사무소에서 편지를 보내니까 처음에는 40명 정도가 나왔다. 뿌리협회가 주관해서 먼 단위로 친목계 형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무언가 지원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특별한 지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대부분 나오지 않고 있다. 갈수록 회원도 줄고 있다. 기대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귀농귀촌인이 자신들이나 마을주민보다 이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본다.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들은 물론, 귀농귀촌인들 사이에도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장은 나름대로 공인이다 보니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보니 이장과 더 많이 접촉하게 되는 것 같다.

■ 특별히 진안으로 귀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안읍 ?씨·여】 인근에 전주가 있어 출퇴근 가능한 게 선호하는 요인중 하나라고 본다. 이는 면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이 충족된 귀농귀촌인들은 진안의 경치와 공기 등 자연환경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진안은 공장이 없어 굉장히 청정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찌든 생활을 탈피하고자 계곡 등을 찾아 이곳을 오는 경우가 많다...고향이나 친척 등 연구가 있는 귀농귀촌인들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연고가 귀농귀촌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연히 손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마련이다. 최근에는 귀농귀촌 카페, 예를 들면 '시골기차'나 '귀농사모' 등에 가입해 회원이 된 뒤 이를 통해 정보를 얻어 귀농귀촌하는 사례도 있는데 새로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

(2) 전출한 귀농귀촌인과 고립형 귀농귀촌인

■ 귀농했다가 전출(탈귀농)한 귀농귀촌인 면접

【주천면 고모씨·남·56·현 충남 천안거주】

충남 천안에서 운수업을 하다가 2008년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기 위해 홀로 귀농했다. 아내와 아들·딸은 천안에 그대로 두고 단신 귀농을 했다. 귀농해서 정착하면 차후 가족 모두 진안으로 내려올 계획이었다. 건강이 불편한 부모님 대신 고향으로 들어와 인삼과 벼농사 각각 3,300㎡(1,000평)씩 2년여 동안 지었다. 하지만 농사는 그리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들어가는 것은 많은 데 나오는 소득이 불안정한데다 타산이 맞지 않았다.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돈은 일정한데 산출되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보니 오히려 빚을 지게 됐다. 결국 2년도 채 안 돼 귀농을 포기하고 천안으로 올라왔다. 다시 운수업을 하고 있다. 운수업은 들어가는 돈이 별도로 없더라도 한 달에 최소한 200여만원의 수입은 보장된다. 그래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막상 귀농을 하고 보니 고향마을은 옛날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노령화가 심각했다.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마을로 가면 할 일은 많이 있다. 맘이 맞는 젊은 동년배가 없다보니 참으로 적적했다. 귀농이 아니라 귀향은 느낌이였다. 특별히 고향 분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귀농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농촌에서 사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아무런 경제적 기반 없이, 준비 없이 빈털터리로 귀농하게 된다면 애로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서 귀농하는 것이라면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나의 경우도 수입이 보장된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

【진안읍 이모씨·남·59·현 강원 춘천거주】

직업군인으로 20년간 근무했고, 그 후 춘천에서 15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선천의 고향이고 4만㎡(1만2,000평)의 농지가 있어 5년 전 진안읍 물곡리라는 마을로 아내(58)와 아들(34)과 함께 귀농을 하게 됐다. 귀농당시에는 빚보증을 잘못 서 갖고 있던 돈을 다 까먹고 그나마 기반이 있는 곳을 찾아 간 것이다. 귀농 후 귀농인모임의 회장을 할 만큼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귀농인들에 대한 원주민들의 텃세와 지역공무원의 차별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원주민들은 대부분 아버지뻘 되

는 분들이어서 모두 안면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일정정도 경계선이 있어 이 선을 넘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귀농귀촌인이 탈농이론한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변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식이다...막상 귀농하고 보니 원주민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상당히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 공무원이나 원주민이나 관습에 젖어있기는 마찬가지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TV를 통해 귀농귀촌에 성공했다고 보도되는 사례는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사실 농촌에는 각종 형태의 보조금이 많이 있다. 물론 일부 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 법인이나 작목반에 우선 지원된다. 단독가구형태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어떻게 법인을 만들고 작목반을 조직하겠는가? 당연히 처음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자주 찾아다니고 방법을 배워 오미자 작목입식 지원금을 겨우 따냈다. 오미자를 심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이 80%이고 자부담 20%인 사업이다. 묘목을 심으려면 먼저 가뭄 등에 대비해 지중관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시설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순서상 지중관수시설을 먼저하고 나중에 묘목을 심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묘목을 심고 지중시설을 설치하도록 된 것이다. 쇠파이프 등 지중시설을 xx단체에서 일괄구매해 공급하는데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것이다. 이것은 뭔가 중간에 돈이 새지 않고는 불가능한 구조다. 나중에 군청에 알아보니 이미 xx단체에 일괄 지급했고 이게 관행이라는 것이었다. 부당거래되는 심증이 강했지만 물증이 없어 소송제기 등은 호지부지 될 수밖에 없었다...또 군청에서 10월말에 고사리를 심으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고사리를 심었다. 그런데 가을에 심은 고사리가 이듬해 봄에 고사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를 기술센터에 문의하니 '고사리를 가을에 심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군청에 가 따졌더니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는데 왜 당신만 따지느냐며 누구누구 그 당시 보조금을 함께 받았는데 가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가보니 네 사람 모두 고사리를 제대로 심지 않고 보조금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군청을 쫓아다니며 공무원들과 안면을 익힌 사람들이었다. 이를 따졌더니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이었다. 이를 언론입회하에 감사를 하자고 하면서 공무원들과 부딪힘이 계속 있었다...마을 주민들과도 계속 갈등이 있었다. 나의 경우 집이 마을에서 500여m 떨어진 외딴집이었다.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작은 부속 건물을 지었더니 무허가 건물이라고 신고가 들어갔다. 그래서 군청에서 나와 철거하라는 것이었다. 기가 막힐 노릇

이었다. 그래서 시골생활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질실히 느꼈다. 심지어 "시골로 귀농하고 후회막심하다"는 플래카드를 걸어두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나뿐만 아니라 농촌 원주민들은 대부분 몇 채씩 불법건물을 다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힘없는 귀농귀촌인들에게만 법을 적용한다면 누가 수공을 하겠는가...진안읍 정곡리에 한 자연학습장이 있는데 개인 땅에다 공공시설을 지어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라도 5년 후에는 소유권이 땅주인에게 넘어간다. 군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 그런데 왜 공공시설을 개인 땅에 지었느냐는 것을 따지면 바보가 되는 곳이 시골이다...귀농귀촌을 위해 군청과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두드렸다. 매실을 재배하려고 했는데 보조대상이 아니었다. 일체의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기술도 전남 광양농업기술센터를 10여 차례 이상 방문해 배웠다. 가내 수공업을 위해 저온창고가 필요해 신청을 했다. 다행히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480만원을 들여 조립식을 지었다. 그런데 나중에 군청에서 무허가 건물이라며 측량을 해 땅을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정식 허가건물로 등록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400만원이 소요된다. 80만원 받아먹자고 이 보조사업에 참여하느니 안받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었다. 철거해가라고 버텼다. 다른 지자체는 용인해주는데 진안군은 안 된다는 것뿐이었다. 사실 이런 게 법에 저촉이 된다고 미리 알려줬더라면 시행착오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귀농귀촌 1번지'라며 비디오 촬영이다, 영화제작이다, 노래자랑이다, 견학이다 추진하는데 전시행정이다. 실제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는 안되고 있다...귀농 후 집을 짓고 얼마 안 있어 식수가 필요해 지하수를 파야했다. 군청에 수질검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러면 허가 업체를 통해 지하수를 파라는 것이었다. 똑같은 장비를 쓰는 일인데 일반 업체에서는 100만원이면 지하수를 파고 군청 허가업체에서 파면 400만~500만원이 소요됐다. 어느 누가 많은 돈을 들여 허가업체에서 지하수를 파겠는가...힘없고 돈 없으면 농촌이 더 서러운 것이다. 만일 지역사회에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했다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쉽게 귀농귀촌인을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우축사를 지으면 보조금을 준다면서 정작 한우축사를 짓지 않고 보조금만 타먹는 사례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행정을 귀농 5년 동안 참 많이 봤다...사실 고향마을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포크레인과 소형트럭을 사는 등 5년 동안 1억 5,000여만 원을 들여 매실 700여주, 호두 100주, 대추 130주를 심었고 지난해부터 소득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해 4,000만~5,000만원 정도 소득은 가능하다. 그런데 인건비와 생산자재비 등으로 전부 투입된다. 남는 게 없다. 겨우 한사람 인건비 따먹기 식이다. 도저히 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귀농을 포기하기로 가족들이

결론을 내렸다. 2~3개월전 이전에 살던 강원 춘천으로 돌아와 아는 사람의 사업을 대신하고 있다. 월세로 아파트를 얻어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이 더 마음 편하다. 식당에서 쓰이는 물수건을 세탁해 공급하는 것인데 힘도 농사일보다 덜 들고 시골에서처럼 원주민과 공무원들의 텃세나 불합리 등에 신경 쓸 것 없고. 현재로서는 다시 농촌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인근 주민에게 땅을 임대하려고 사람을 수소문 중이다. 어렵게 가꿔 놓은 매실·호두·대추나무를 그대로 두면 1년도 못가 못 쓰게 될 것 같아 300만원 정도만 받고 임대를 계획하고 있다. 한테 농촌에는 노인들뿐이어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땅을 포함해 모두를 팔아야 할지도 고심 중이다.

■ 고립형의 귀농귀촌인

【주천면 강모씨·남·68】

학교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다가 정년 후 아내와 고향인 주천면 와룡리로 돌아왔다. 어렸을 적 고향의 푸근한 인심이 그리워 새집을 지어 귀촌을 하게 됐다. 하지만, 고향은 많이 변했다. 옛날의 정감어린 인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잘 안 맞는 느낌이었다. 와룡리에서 마을 주민들과 섞여 2~3년 살다 적응이 안 돼 집을 팔고 마을에서 3km 떨어져 다소 한적한 곳에 다시 집을 지어 산지 7~8년 됐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을에는 배타적이고 도시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왕따 시키는 게 있다. 경찰서장했던 친구가 있는데 같은 얘기를 한다...평생을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들어와 쉬면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와 아침에 눈만 뜨면 농사를 짓는 마을주민과는 생각하고 생활하는데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피해 일정을 짠다. 그렇다 보니 날씨가 안 좋아 일이 없을 때 공동작업을 하게 된다. 나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쉬고 싶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돈을 내라고 한다. 또 무슨 만남만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마시며 그러다가 나중에는 꼭 목소리를 높이고 싸움을 한다. 옛날의 순수함을 농촌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곳으로 이사 온 후 그래도 뭔가를 해볼까 해서 농작물 재배를 시작했는데 누구하나 찾아와 살갑게 씨앗은 이렇게 파종한다고 가르쳐 주는 이가 없다. 현재 2,000㎡(600평)에 자가 소비용 채소 등 20여 가지를 재배하는데 한번 당해보라는 식이었다. 수물지구에서 보상을 받아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는데 돈에 대해 상당히 집착을 많이 한다. 서로 먹을 것을 주고받아도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게 지금의 농촌이다. 호박 한 개를 주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고 나중에는 그만한 것을 돌려주기를 기대한다...정치 얘기 등을 하다가 좀 다른 의견을 내거나 세상이 변했다고 하면 '아는 체한다'고 오해한다. 처음 5년 동안은 입다물고 있으라는 정서다. 이거 뭐 깡패들도 아니고 참 기막힌 곳이다. 그래서 융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그렇다 보니 교제의 폭이 점점 제한됐다. 진안군이 귀농귀촌1번지라고 하는데 군에서도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별로 해주는 게 없다. 집을 지을 때 편의하나 봐주는 거 없다. 다 내가 좇아 다니면서 해결해야 한다. 하다못해 전화번호부 책이라도 주면 처음에 모든 게 생소한 귀농귀촌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거 하나 없다. 고향으로 와 줘고맙다라든가 하는 편지한통도 좋은데 일체 없다. 말만 귀농귀촌1번지지 특별한 것은 없다. 설문조사도 많이 해가는 데 끝난 후에는 어떻게 의견이 반영됐다든가 시정하겠다든가 하는 답이 없다. 지금까지는 설문조사에 잘 응했는데 앞으로는 해주고 싶지 않다...큰아들이 서울에 있고 전주에 둘째아들과 딸이 있는데 가끔 오가고 있다. 주위에 귀농귀촌하려는 친구들에게는 절대 오지 말라고 권유한다. 따스한 것도 없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없고. 사서 고생하는 꼴이다...정부나 지자체는 나이 먹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편한 도시생활을 접고 나이 들어서 은퇴해 농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주장이나 철학이 강한 사람들이다. 아내가 시골생활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내가 적극 주장해서 함께 왔다. 자유롭게 살고 싶고 강요받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촌 현실은 알게 모르게 구속하고 압박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은퇴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려고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숨 막혀 한다. 지역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맑은 공기, 깨끗한 자연과 어울려 사는 데 외로움이 크다. 그렇다고 지금 다시 도시로 나가기도 어렵다. 그냥 산다.

(3) 마을 지도자(박천창 능길마을 대표)와의 심층인터뷰

■ 사람의 중요성

【박천창 진안 능길마을 대표】 1997년 IMF전 귀농한 분들이 실제 5%도 안 된다. 마을 간사, 마을 사무장,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정착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귀농귀촌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도시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농촌에 와서 어떻게 접목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냐다. 8개 마을로 구성된 능

길권역 전체 300가구 중 80가구 정도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위원장인 나 자신도 여기로 U턴형 귀농이고,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귀농한지 7년 정도 된 사례다.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귀농한 지 6년 정도 된 경우다. 모두 지역주민들이 임기 2년으로 정해 선출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사무장도 마찬가지다...이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과 귀농한 사람들이 상호협조를 통해, 지역주민의 선출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 8개 마을 중 외금마을은 귀농인이 3년째 이장님을 보고 있다. 귀농한 사람이 이장을 하려면 10년을 지나야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5년 만에 이장이 됐다. 15년 이상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마을 간사와 마을 사무장으로 귀농귀촌인을 우선 뽑고 이들이 마을 권역신문을 발행해 소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에너지 문제

【박천창 진안 능길마을 대표】 도시에 비해 농촌의 에너지 비용이 3배가 더 든다. 농촌의 문제 중 하나는 에너지 비용이 도시와 비교해 점점 더 많이 드는데 있다. 에너지를 자립한 만큼 돈이 절약된다. 마을에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해결하면 그만큼 마을경제는 튼튼해진다. 2002년도 마을 사업을 하며 20년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2021년까지 에너지 자립 마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노력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일자리 문제

【박천창 진안 능길마을 대표】 예전에는 자기가 논을 갈고 벼 베기를 하거나 혹은 품앗이를 해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 지금은 기계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비용은 많이 들고 일할 기회는 적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농촌 사정을 감안할 때 농민들이 직접 출자를 하거나 영농조합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마을에 각종 지원사업을 끌어 들여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작목반 등을 구성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우리 권역에서는 지역 특산물로 배즙을 생산, 생협 icoop에다 납품한다. 배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생협과 계약을 체결해 생과를 공급받은 뒤 이를 가공해 납품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가공물량은 150t에 이른다. 올해는 200t 이상 가능하다. 지난해 유기농배즙, 호박배즙, 도라지배즙 등의 형태로 가공 판매한 매출액이 4억원 정도다.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5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 공장이 마을에서 운영된지는 8년이 된다. 올해는 야콘을 가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인슐린이 풍부해 당뇨에 좋다고 하는데, 성인 당뇨병보다 생협 회원 어린아이들을 위한 과자를 만들어 납품할 계획이다. 현재 이 권역에는 농촌종합개발사업 차원에서 지역특산물 가공공장을 짓고 있다. 660㎡(200평) 남짓한데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획득한 시설로 준비하고 있다. 마을단위에서 이런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이와 더불어 '지역특산물 가공공장',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하는 '슬로푸드 박물관' 까지 완성이 되면 30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가공되는 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하는 게 기본이다. 그 농산물을 가공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최선이다. 아울러 이를 마을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사업을 하며 발생한 소득은 정부 지원금의 3%씩 5년 동안 15%를 마을에 환원키로 했다. 이런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사람들이 귀농귀촌했다고 본다.

■ U턴형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

【박천창 진안 능길마을 대표】 U턴형의 경우 도시에서 먹고 살기 힘들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고 지역주민들이 종종 생각한다. 이 오해가 없어져야 활동을 할 수 있다. 나의 경우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10년 넘게 마을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못했다. 그 후 경지 정리 사업을 하다 임시로 6개월 정도 이장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연이 되어 4년간 이장을 맡게 됐다. 이후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며 이장을 넘겨주고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곳에서는 이장의 경우 마을 행정위주의 일을 맡아 역할분담을 잘 한 사례로 보면 된다.

■ 귀농귀촌인 흐름

【박천창 진안 능길마을 대표】 진안으로 오는 귀농귀촌인은 두 층으로 구분된다. 30~50대는 일자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뭐라도 하려고 준비하고, 50대 후반 이상은 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마을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50대까지가 65%정도 된다. 여성들의 경우도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가교실', '

도자기교실', '우리 면(面) 알기', '산야초효소만들기', '공부방'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정부의 전원마을 사업에 대해

【박천창 진안 능길마을 대표】 '전원마을 새울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주력했던 일은 서울에서 사전 모임을 갖는 것이었다. 전원마을 하나가 마을에 들어와 그냥 단독적으로 갑자기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을주민들과 충분히 교감을 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과, 어느 날 주거단지가 똑딱 생기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새울터 입주주민들의 경우 입주전 원주민들과 단합대회까지 했다. 이런 것이 있었기에 그나마 소통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전원마을은 새울터처럼 30가구 이상으로 규모화 되어서는 곤란하다. 소규모로 해야 한다. 다른 마을과 달리 집단적으로 오기에 힘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5~10가구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농촌에 100~300가구의 뉴타운을 만든다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세력싸움의 차원이 아니라 그 힘에 의해 주변 마을이 흡수돼 원주민들이 끌려가는 양상이 나타나면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진안군의 경우 네 가구 이상이 들어오면 1억원 정도를 후속지원을 해 준다. 이것이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전국 처음이다. 진안군의 경우 마을당 평균가구수가 20~30가구인데, 그 큰 마을이 옆에 생기면 원주민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농촌 마을의 현실을 고려하면 규모화 된 전원마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 동향면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유

【박천창 진안 능길마을 대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며 일을 함께 한 사람들이 10여명 정도 밖에 안 된다. 과도기라 보면 된다. 농산물 가공 등 각종 소득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직 전반적인 소득향상까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3년 정도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또 이곳으로 귀농귀촌한 경우는 가치지향형이 많다. 귀농귀촌인들이 동향면을 선택한 이유는 땅값이 싸고 환경이 깨끗하며 인심이 살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땅값이 농지는 3만~5만원 대이고, 대지는 7만~10만원이다. 강원도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왔다고 보면 된다. 돈은 적게 벌더라도 자녀들과 친환경적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도시민들이 왔다고 볼 수도 있다...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이 농사를 통해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귀농귀촌인들이 농사를 지어 소득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더라도 특별한 게 없다. 이곳에 온 권모씨나 이모씨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다. 농사가 아니라 그 밖의 일자리를 통해 60만~12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20~30명에 이른다. 행정기관 사무보조, 정보화마을관리자,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담당, 도서관장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별지 제4호 서식]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부서/과제담당관	경영조직과	담당공무원	주동철
연구방식	1. 위탁형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3. 자문형 용역()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2. 수의계약(√)		
연구기간	2010.8.21 ~ 2011.1.26 (5개월)		
연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안군 귀농·귀촌자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귀농·귀촌 후 종사 분야 등 조사 ○ 귀농·귀촌자들과 지역주민 간의 협력, 갈등, 통합의 사회적 관계 분석 ○ 원주민들의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인식 및 관계 방식 조사 ○ 집단 귀농·귀촌 마을 내부 구성원들간의 갈등 및 조정의 상호작용 분석 ○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만족도, 기여도 등 지역 사회와의 관계 ○ 귀농·귀촌인과 지역원주민간 주민통합 및 농촌활력 프로그램 개발 ○ 귀농·귀촌 사례의 심층적 현지조사를 통한 일반화 모델과 비교 기준 마련 ○ 지속발전 가능한 귀농·귀촌 정책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제안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적합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적합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적합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적합 • 기타사항 : 적합 		
평가자	구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명	경영조직과장 최완현	주동철